



주제 과학 기술 문명과 인간

일시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12:30~16:10

장소 연세대학교 연희관 401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학술 대회 일정

12:30~13:00 등록 및 윤리 교육

제1부 손 보기 기념 강연(13:00~13:45)

사회: 임 상헌(경희대학교)

발표자	발표 제목
김 학수 (서강대학교)	What has impeded our capability development?

신진 학자 발표(13:45~14:15)

사회: 임 상헌(경희대학교)

발표자	발표 제목
이 예슬 (계명대학교)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 : 막스 베버의 에로틱 영역 분화 논의를 중심으로

14:15~14:20 휴식

제2부 주제 발표 및 토론(14:20~16:10)

사회: 송 재룡(경희대학교)

발표자	발표 제목
김 철 (숙명여자대학교)	과학 기술 문명과 인간의 윤리
김 환석 (국민대학교)	과학기술 문명과 인류세: 신유물론적 관점
이 강환 (서울대학교)	우주와 생명
최 종덕 (독립학자)	변화의 인류학적 변화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 윤리 교육 일정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연구윤리교육은
- 한국연구재단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로
- 진행합니다.
- 연구윤리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홈페이지
- (<http://hi1977.or.kr>) 자료실을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RF 한국연구재단

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올바른
인용표기를
위한 길잡이

목 차

01	표절의 이해	06
	1.1 출처표기의 중요성	08
	1.2 표절이란?	09
	1.3 중복게재의 범위	13
02	인용의 방법	18
	2.1 인용의 원칙	20
	2.2 대표적인 인용표기법	27
	2.3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31
03	유형별 인용표기 적절·부적절 사례	32
	3.1 도서	34
	3.2 학술 논문, 학위 논문, 학회 논문	47
	3.3 연구보고서	68

04	온라인 자료 활용 사례	82
	4.1 영상자료와 이미지	84
	4.2 웹페이지와 블로그	92
	4.3 데이터 및 기타 자료	102

부록	118
인용표기 관련 질의응답 사례	120
참고문헌	130



|| 목 차

제1부 손 보기 기념 강연

What has impeded our capability development?

1

신진 학자 발표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 : 막스 베버의 에로틱 영역 분화 논의를 중심으로

6

제2부 주제 발표

과학 기술 문명과 인간의 윤리

32

과학기술 문명과 인류세: 신유물론적 관점

59

우주와 생명

65

변화의 인류학적 변화

80

제1부 손 보기 기념 강연

- ▷ What has impeded our capability development?

What has impeded our capability development?

김 학수(서강대학교)

《 Son Pokee Memorial lecture 》

WHAT HAS IMPEDED OUR CAPABILITY DEVELOPMENT?

Delivered in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s,
November 12th, 2022.

BY HAK-SOO KIM

Professor Emeritus of Communic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Formerly Distinguished Professor, DGIST, Daegu, South Korea;
Fellow,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
Fellow, Korean Academy of Science & Technology (KAST);
Member,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Scientific Advisory Board (SAB).
E-mail : hskim@soga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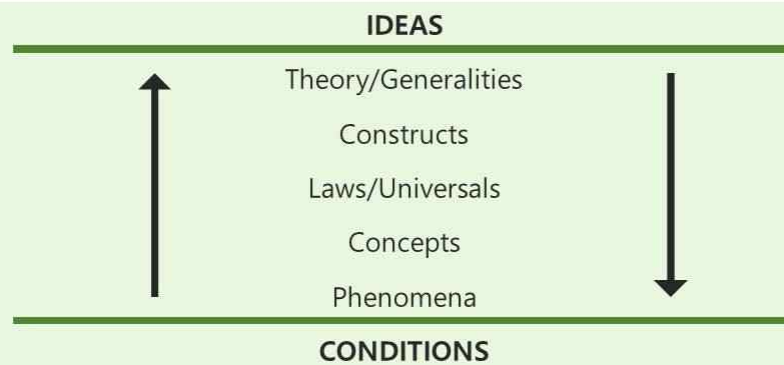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 | |
|---|---|
| 1 | The Hierarchical-Theory Model: Oneness & Logical Necessity |
| 2 | The Body/Entity-Tree Model |
| 3 |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Model |
| 4 | 40 Years' Journey of Theoretical Explication:
Coorientation & Teamwork from Concepts to Constructs |

01
CONTENT

The Hierarchical-Theory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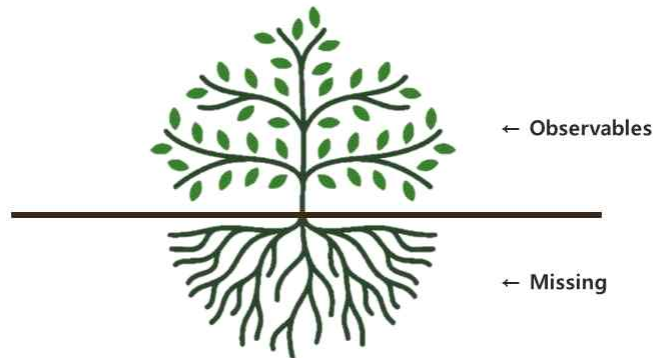
ONENESS & LOGICAL NECESSITY



- ▶ The order of things/causality/prediction: Traditional SCIENCE
- ▷ Concatenated-theory model (network of relations/convergence/tendencies/"Behavioral Necessity") (Kaplan, 1964)
- ▶ Coorientation: Traditional social science & empirical concepts (1982, 1986)

02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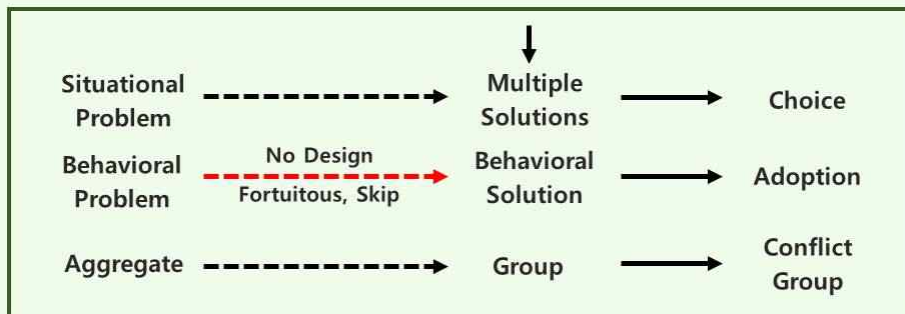
THE BODY/ENTITY-TREE MODEL



- ▶ Puzzle-solving as looking backward: What? How? + What for? How come?
- ▷ Body/entity/particle/DNA-focused/"Is as does & Does as is" (BPO): Immediate Observables
- ▶ The Behavioral Process (individual vs. collective): Missing, but Material
- ▷ The Behavioral Problem (individual vs. collective): General HOW? (Carter, 1988, 1991, 2022)
- ▶ Coorienting (1992, 2003, 2012) & Teamwork (2020, 2022) as theoretical constructs

03
CONTENT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MODEL



- ▶ Aggregate, group, public
- ▷ Decision-making: persuasive, conflictual
- ▶ Integration, gap-bridging
- ▷ Collectivity, community, team as theoretical constructs
- ▶ Problem solving as looking forward: Building the behavioral process (2020)
- ▷ Communicating & Coorienting as theoretical constructs (2020, 2022)

04
CONTENT

40 Years' Journey of Theoretical Explication:

**COORIENTATION & TEAMWORK
FROM CONCEPTS TO CONSTRUCTS**

원로학자가 보내는 메시지 :

김학수 회원이 후배 학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1964년 John Platt이 『Science』 지(誌)에 발표한 “Strong Inference”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에 과학연구 경향에서 연구방법 관련 기술(技術)에 탐닉한 나머지 연구주제 자체에 관한 치밀한 사고(思考) 능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객이 전도된 연구풍토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싶다. 같은 해인 1964년 Abraham Kaplan이 저술한 『The Conduct of Inquiry』에 따르면, 이론 형식에는 크게 두 종류, 즉 hierarchical theory와 concatenated theory가 존재한다. 혹시 전자를 이론건설의 유일한 형식으로 생각한 나머지, 행동과학이 logical necessity에 치중하면서 behavioral necessity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 싶다.

고(故) 김재권(前 Brown University 철학과 석좌교수)은 1985년 월간지 『신동아』(28권 2호)에 기고한 “한국철학이란 가능한가”에서 민족적, 문화적 맥락으로 제한되고 영향을 받는 독특한 한국의 철학적 전통을 중시하되, 그것을 뛰어넘는 보편적 철학에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편성(universality)을 넘어선 일반성(generality)에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다. Cutting-edge 연구는 그럴 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흙소식』 한국언론학회 뉴스레터 1호 (2021. 11. 8.), 5~6쪽
(copied from KSJCS Newsletter No. 1, pp. 5-6, Nov. 8, 2021)

*Potential impacts: Theoretical (vs. empirical); constructs (vs. concepts); general (vs. universal)

WHAT HAS IMPEDED OUR CAPABILITY DEVELOPMENT?

BY HAK-SOO KIM

신진학자 발표

▷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

: 막스 베버의 에로틱 영역 분화 논의를 중심으로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

: 막스 베버의 에로틱 영역 분화 논의를 중심으로

이 예술(계명대학교)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베버의 에로틱 영역 분화 논의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베버는 구원종교의 등장이 현세의 각 영역이 가지던 질서에 긴장을 불어넣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긴장이 현세의 질서를 합리화시켜 초월적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적 가치에 비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느냐 아니면 종교적 가치에 편입되느냐에 따라 독자적인 가치 영역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에로틱 영역의 분화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로틱 영역에 대한 현세의 질서를 제공하는 ‘성적 사랑’(sexual love) 또는 ‘에로틱 사랑’(erotic love)의 합리화 과정을 탐구해야 한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에로틱 사랑의 긴장 관계는 각각의 내재적 법칙을 통해 상대의 질서를 합리화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분화의 정도가 달라진다. 에로틱 영역의 합리화는 베버가 다루었던 다른 영역들(종교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지적 영역)이 합리적 질서를 따라 내재적 법칙을 형성한 것과 달리 에로틱 영역의 가치는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힘을 통해 내재적 법칙을 획득한다.¹⁾ 그래서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에로틱 영역 사이의 긴장은 다른 가치 영역의 긴장 관계보다 독특하다(Weber, 1958; 베버, 2008).

베버에 따르면 에로틱 영역과 심미 영역은 비합리적이고 심지어는 반합리적인 현세의 질서를 통해 구원을 추구한다. 합리적 질서를 통해 내재적 신을 창출해낸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보다 훨씬 더 첨예한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내재적 신을 만드는 원리가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로 나뉘기 때문인데,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은 금욕주의 원리로 에로틱 영역과 심미 영역은 신비주의 원리로 각 가치의 신을 만든다. 베버는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를 강력하게 위협하고 대체할만한 영역으로 에로틱 영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베버는 에로틱 사랑이 자연적 섹슈얼리티에서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합리화되었다고 ‘기술’(description)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explanation)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베버의 에로틱 영역의 분화를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적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1) 심미 영역도 에로틱 영역과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 힘을 통해 내재적 법칙을 발전시킨다.

2. 베버의 가치 영역 분화의 메커니즘

베버는 1915년 발표한 “중간고찰”(Zwischenbetrachtung)에서 가치 영역의 분화를 통해 근대 세계의 합리화 과정을 설명한다. “중간고찰”은 베버가 중국 종교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인도 종교로 연구를 이동하기 전, 연구의 틀과 논리적 구조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적 현세거부 단계와 방향에 대한 연구”라는 소제목이 보여주듯, 현세의 행복을 거부하고 다른 초월적 세상에 구원을 설정하는 구원종교를 설명하고 있다. 구원종교는 현세의 모든 지역적인 윤리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보편 윤리를 가르친다. 이러한 보편적인 형제애 윤리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다. 보편적 형제애가 무세상적 사랑(acosmic love)인 이유다(Bellah, 1999). 베버는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현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tension)을 통해 여러 가치 영역이 분화한다는 이론을 제시한다(베버, 2008).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구원종교 중 유일하게 ‘세상 안 금욕주의’만 현세와 맞서서 가치 영역을 분화시킨다는 점이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는 현세 윤리와 긴장 관계에 놓인다. 신의 질서를 통해 세상 안의 삶을 금욕주의를 통해 재조직하라고 형제애 윤리가 압박하기 때문이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가장 대표적인 세상 안 금욕주의의 규범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는 17-18세기 칼뱅교가 일상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라는 명령을 통해 일상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일상을 압박하면 할수록 현세의 질서와 긴장이 고조된다. 이 긴장은 현세의 질서를 합리화하도록 이끈다. 현세 질서를 탈주술화하고 합리화하여 주지주의적 언어화하면 새로운 독자적인 구원을 약속하는 가치가 창출된다. 초월적 세계를 향한 종교적 구원을 추구하는 가치와 실현하는 종교적 규범과 긴장 관계를 통해 새로운 현세의 가치가 탄생하는 것이다.

베버가 설명한 여섯 가지 가치 분화를 살펴보자(베버, 2008: 213-264; Weber, 1958: 327-357).²⁾ 여기서 종교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심미 영역, 에로틱 영역, 지적 영역의 분화 과정을 살펴보고 가치 영역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파악할 것이다. <그림 1>은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각 영역의 긴장 관계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각 영역의 긴장 관계

2) 여섯 가지 영역의 가치 분화에 대한 논의는 베버가 1915년 발표한 「중간 고찰」(Zwischenbetrachtung)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어로 번역된 『막스 베버 종교사회학 선집』(2008)과 영어로 번역된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1958)를 함께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가장 먼저 긴장을 형성하는 것은 혈연공동체로 만들어진 세계다. 형제애 윤리는 구원에 대한 내면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형제’를 혈연공동체보다 더 우선시하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자연발생적인 혈연공동체와 긴장 상태에 놓이고 그것이 신앙공동체라는 종교 영역의 분화로 이어진다. 경제 영역은 형제애 윤리와 이윤 추구 그 자체를 성스러운 가치로 삼는 세상의 원리와의 극심한 긴장관계로부터 분화한다. 시장제도가 발전하고 이윤추구 그 자체를 위한 독자적인 가치 영역으로 분화한다. 정당한 폭력 수단을 독점하는 국가 또한 형제애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정치 영역으로 분화한다. 악에 대해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형제애 윤리와 달리 권력투쟁과 폭력위협에 폭력으로 대응에 익숙한 국가제도가 발전한다. 이를 통해 정치를 위한 정치 영역이 분화한다. 심미 영역에서는 예술을 주술적 담지자로 보며 ‘비합리적 현세 내적 구원’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결국 아름다움을 위한 심미 영역이 가치 분화한다. 신비주의적인 에로틱한 도취인 ‘에로틱 사랑’과의 긴장관계는 에로틱 영역의 분화를 가져온다. 에로티시즘을 위한 에로틱 영역이 분화한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가장 깊고 원칙적인 긴장관계는 지적 영역의 분화에서 나타난다. 진리를 위한 진리 추구를 하는 지적 영역이 분화한다(베버, 2008).

베버의 가치 영역의 분화론의 메커니즘을 분석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 영역의 현세의 질서를 통해 사회세계가 작동했다. 구원종교가 등장하고 구원을 위한 실천 규범으로 형제애 윤리가 안내하는 질서는 기존의 현세의 질서와 긴장 관계에 놓인다. 현세의 질서와 형제애 윤리가 모두 합리적이면 합리적일수록 근본적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만약 한쪽의 합리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낮다면 더 합리적인 질서에 일방적으로 편입 당할 수밖에 없다. 종교적 형제애 윤리의 원리와 충돌하는 현세의 질서는 두 가지 경우로 변화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치 영역 분화가 성공하는 경우이다. 형제애 윤리와의 갈등을 통해 현세의 질서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내재적 법칙으로 발전하면 그 영역의 독특한 가치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한다. 구원을 위해 형제에 윤리를 통해 삶을 조직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 안 금욕주의’를 통해 삶을 조직하지 않아도 다른 가치 영역의 약속에 따라 그에 헌신하면 새로운 가치의 신이 안내하는 구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가치 영역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영역이 다양해야 가치다신교의 사회가 펼쳐질 수 있다.

두 번째, 가치 영역 분화가 실패하는 경우이다. 형제에 윤리와 긴장 관계 속에서 현세의 질서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내재적 법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한 경우 구원종교의 형제에 윤리의 질서로 편입된다. 이때 가치다신교의 사회가 펼쳐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로운 가치가 제공하는 구원이 구원종교의 것만큼 강력하지 않거나 새로운 가치가 분화하지 못하게끔 구원종교의 형제에 윤리가 영역을 확장하기 때문이다.

베버(Weber, 1958)는 구원종교의 형제에 윤리와 현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통해 여러 가치 영역이 분화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합리화 과정인데, 합리화는 탈주술화와 주지주의화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과정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양적인 것으로 수학언어화 하고, 기계적인 원인-결과의 과정으로 세계를 구성한다(최종렬, 2009a: 128-148, 2015: 242-245). 합리성은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과 ‘가치 합리성’(value rational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구적 합리성은 도구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외적 대상과 사람에 집중한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합리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의 실천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을 더욱더 정확한 계산을 통해 찾아내려는 자세”(베버, 2008: 181)를 가진다. 가치 합리성은 열정적이고 표현적으로 관찰 불가능한 가치를 지향하고, 내재적으로 주관적인 가치이다. “더욱더 엄밀한 추상적 개념들을 통해 현실을 더욱더 이론적으로 지배해 가는 방식을 의미”(베버, 2008: 181)한다. 행위의 원인을 내재적으로 주관적 가치에 지향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설정한다.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를 행위자가 스스로 내면적이고 주관적 가치를 설정해야만 초월적 구원을 추구하는 구원종교의 탄생으로 무의미해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Friedland, 2013, 2014).

가치 합리성은 베버가 ‘가치 영역’(value sphere)이라 불렀던 것에 지역화된다. 종교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 심미 영역, 에로틱 영역, 지적 영역은 가치 합리성이 분화되어 나온 대표적인 예시이다. 탈주술화된 근대세계에 가치 합리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영역으로 분화한다. 가치 영역은 궁극적 가치를 지향하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행위의 영역”(Friedland, 2013: 16)이다. 왜 가치 영역이 곧 행위의 영역인 것일까? 가치는 내적으로 헌신하는 행위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그러하다. 가치 영역에서 행위자는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없다. 행위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가 설정한 가치에 헌신하고 이를 자신의 행위와 삶의 목표로 삼는다. 내면성을 가진 행위자만이 가치를 설정하여 가치 영역의 신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베버의 가치 합리성은 곧 종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치 합리성이 종교 관념에 헌신하는 행위자를 만들어낸다.

베버에게 가치는 ‘다양한 질서의 신들’(the gods of various order)(Weber, 1958: 148)로 기능한다. 가치 영역의 분화는 합리화의 전체 과정의 결과인 ‘신들의 전쟁’으로 나타난다(Bellah, 1999: 279). 각 영역의 신이 자신만의 궁극적 가치를 통해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각 영역의 가치가 더욱더 합리화되고 내재적 법칙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정의 실천이나 종교적 금언에 의해 환원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로 합리화된(Friedland, 2013, 2014). 이 전쟁은 각 영역이 공동의 준거로 측정될 수 없는 그 자체의 독특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치다신교가 펼쳐진다. 베버가 말하는 가치 영역의 신은 전능하지 않고 그들 사이의 위계도 없으며 영역을 넘나들지 않는다. 각 영역의 신이 자신의 영역의 자율적인 내재적 운영원리로 작동하기에 한 영역의 신은 그 영역에서만 절대적 힘을 가진다. 그러나 가치 영역의 신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신’(mortal gods)이다(Bellah, 1999; Friedland, 2013, 2014).

가치의 신은 왜 영원히 살 수 없는가? 각 영역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며 전쟁을 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치 전쟁 중에 ‘목적론적 정합성’(teleological consistency)과 ‘논리적 정합성’(logical consistency)을 확보한다면 영원한 신이 될 수도 있다(Weber, 1958). 목적론적 정합성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타를 제시한다. 가치의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가 제공하는 초월적 가치와 같다. 논리적 일관성은 가치, 규범, 목표 상징체계가 내재적 일관성을 가지도록 한다. 가치, 규범, 목표의 정합성이 이 지러지면 사회세계의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징체계의 내적 구조가 가진 자율성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Weber, 1958: 324)을 가진다. 각 영역이 가지는 이 정합성은 행위를 조직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삶을 일관되게 만드는 동시에 엄청난 긴장을 발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행위자가 자신이 설정한 가치에 헌신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자신의 행위와 삶의 규범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목적론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일치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신을 선택하는데, ‘인격’(personality)을 가진 사람만이 그 신을 선택할 수 있다. 베버는 인격을 특정한 궁극적 가치와 특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지속적이고 내재적인 관계를 수반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가치는 목적으로 달성되고 가치 합리적 행위로 전환된다(Friedland, 2014: 229, 254).

3.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

3.1 망아상태의 난교, 농부의 성생활 그리고 결혼

구원종교의 등장은 현세에 있던 에로틱 사랑의 질서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는다. 이 긴장이 현세의 질서를 합리화시켜 초월적 구원을 약속하는 종교적 가치에 비견할 수 있

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느냐 아니면 종교적 가치에 편입되느냐가 핵심이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근원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현세의 질서는 ‘성적 사랑’(sexual love) 또는 ‘에로틱 사랑’(erotic love)이다.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의 가치는 합리적 질서를 따라 내재적 법칙을 형성한 것과 달리 에로틱 영역의 가치는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힘을 통해 내재적 법칙을 획득한다. 그래서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에로틱 영역 사이의 긴장은 다른 가치 영역의 긴장 관계보다 독특하다(Weber, 1958; 베버, 2008). 베버에 따르면 에로틱 영역과 심미 영역은 비합리적이고 심지어는 반합리적인 현세의 질서를 통해 구원을 추구한다. 합리적 질서를 통해 내재적 신을 창출해낸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보다 훨씬 더 첨예한 긴장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내재적 신을 만드는 원리가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로 나뉘기 때문인데,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은 금욕주의 원리로 에로틱 영역과 심미 영역은 신비주의 원리로 각 가치의 신을 만든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는 사실상 금욕주의를 기반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합리적 질서이다. 에로틱 영역과 심미 영역은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달리 ‘수단-목적 도식’을 통해 일상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라 요구하지 않는다.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은 수단-목적 도식을 통해 일상과 경제적·정치적 활동을 조직하였기 때문에 세상 안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형제애 윤리와 유사한 바탕에서 내재적 법칙이 발전하였다. 반면, 에로틱 영역과 심미 영역은 비합리적이고 반합리적인 신비주의에 기반하며 금욕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새로운 구원의 형태를 약속한다. 주술에서 세계종교로 탈주술화되고 주지주의화된 문명사적 진화와는 무관하다는 듯, 여전히 주술과 신비적 카리스마를 통해 가치 영역을 통치하는 ‘에로틱 신’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훑아보기 위해, “중간고찰”(베버, 2008; Weber, 1958)과 *Economy and Society*(Weber, 1978)의 내용을 분석한다.³⁾ 베버는 두 글에서 섹슈얼리티와 종교의 관계가 비상할 정도로 친밀하다고 밝힌다(Weber, 1958, 1978). 성적 도취(sexual intoxication)는 원시적 수준의 종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종교 안에도 남아있다. 성적 도취는 재생산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에 종교에 의해 통제·조절되어야 한다. 에로틱한 난교(erotic orgy)는 망아상태(ecstasy)⁴⁾의 결과이다(Weber, 1978: 602). 주술의 세계에서는 애초에 종교와 섹스 사이의 분리가 되지 않아 긴장이 발생되지 않는다. 원시적 주술은 대개가 금욕주의 윤리보다는 신비주의 윤리에 가깝다. 그래서 성생활에 대한 금욕주의적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술과 섹스는 망아상태를 통해 다른 존재와 합일하는 종교적 의례의 속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뒤르케임(2020)이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에서 보여주었던 종교의례를 통한 집합흥분, 집단연대를 경험하는 과정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집합의례에 참여한

3) 「중간고찰」(베버, 2008: 203-277; Weber, 1958: 323-359)과 *Economy and Society* (Weber, 1978: 602-610)의 “Religious Ethics and the World: Sexuality and Art”에 속한 내용이다.

4) 이 글에서는 종교적 집합의례를 통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아를 잊고, 이를 파괴하여 더 큰 존재와 혼용되는 새로운 존재론적 전환을 경험하는 신비적 체험을 지칭하는 용어로 망아(忘我)를 사용한다. 주술적이고 카리스마적 힘을 체험하는 집합의례에서 본래의 자아를 잊는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들이 망아상태를 함께 경험하면서 집단적 일체감 즉, 집단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베버와 뒤르케임을 함께 이해하면 종교에서 행해지는 성적 도취나 에로틱한 난교가 집단연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베버가 ‘신성한 매춘’(sacred harlotry)을 모든 망아상태를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주술적 광란의 유물로 본 이유도 여기에 있다(Weber, 1958, 1978). 성스러운 종교적 의례를 집행하기 이전에 사제나 의례에 참석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적 행동을 금지당한다. 성적 행동에 대한 “일시적 금지의 일차적인 이유는 터부의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다. 터부의 규범은 주술적이고 영적인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성적 영역을 통제한다”(Weber, 1978: 603). 사제나 종교적 대가의 영구적 금욕이 카리스마적 자질을 가져다주는 큰 요인이며 망아적 능력의 원천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영구적으로 금욕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별한 유형의 행위이다. 몰성적(asexual) 존재가 된다는 것은 카리스마적 자질과 함께 초월적 존재와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초월적이고 절대적 존재에게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그 순결은 구원을 보장한다. 현세에서 성적 쾌락이 없는 것은 현세에서 누릴 성적 즐거움도 없다는 것이다. 현세에서 성적인 것은 그저 무의미할 뿐이다.

망아상태와는 전혀 다른 상태, 다른 존재와 합일되지 않는 성생활도 물론 존재한다. 농부의 성생활이 그 예다. 농부의 성생활은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자연주의에 가깝다. 그래서 농부의 성생활은 “동물적인 것과 유일하게 제거될 수 없는 결합”(베버, 2008: 252)으로 여겨진다. 주술적 광란을 통한 망아상태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농부의 소박한 자연주의’(the sober naturalism of the peasant)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일상의 성생활은 성기 기관 쾌락에 그칠 수밖에 없고 동물적인 것과 가장 가까운 것이 된다. 망아상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술의 세계와 섹스가 가시적인 긴장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유이다. 사제의 순결이 표면화될 때는 섹스와 종교 사이의 긴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영구적 긴장이 아니라 일시적 긴장일 뿐이다. 그래서 주술의 세계에서 순결은 악마적인 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종교집단의 엄격한 종교적 집단의례를 통해 통제되어야만 했다(Weber, 1958: 344). 광란적 주술을 통한 난교는 망아상태를 통해 다른 존재와 합일하는 종교적 속성으로, 집합흥분과 집합연대를 산출하는 종교적 의례이다.

구원종교가 등장하기 이전에 성생활은 주술적 광란 축제의 일부분이었으며 ‘신성한 것’으로 다루어졌다. 신성한 성생활은 결혼 제도 이전에 ‘신성한 매춘’의 이름으로 성스러운 장소인 사원이 제공하는 보호를 누리면서 무역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사원매춘으로 존재했다. 사원매춘은 망아적 난교로 이어지기도 한다(Weber, 1978: 602). 주술 세계에서 신성한 매춘은 고도로 추상화된 종교 관념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신성한 매춘은 특정한 매개물을 통하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보편적인 행위였다. 주술적 광란 축제에서 이루어지는 성기의 결합은 보편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라는 주술적 신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화폐가 매개되어 구체적인 대상과의 관계만 맺는 현대의 세속적 매춘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세속적 매춘도 주술세계의 신성한 매춘으로부

터 분화되어 나온 것이다.

구원종교의 등장은 두 요소(종교와 섹스)의 새로운 긴장을 가져온다. 구원종교가 삶을 체계적인 금욕적 질서로 조직한 이후에 이러한 비합리적 성생활은 규제되어야만 한다. 일상적이던 성생활은 비일상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것에서 비자연적인 것이 된다. 우선, 주술이 세계종교로 합리화되면서 구원종교의 가치는 형제애 윤리를 통해 개인의 삶을 금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하라고 요구한다. 금욕주의를 실천하며 수단-목적 도식을 통해 일상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해야만 한다. 구원이라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면 현세에서 누리는 쾌락은 의미를 상실한다. 현세의 구원, 즉 즉각적인 쾌락을 약속하는 성생활은 미래의 구원을 방해하는 유혹일 뿐이다. 그래서 구원종교는 거의 예외 없이 결혼과 성생활을 규제한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를 통해 삶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주술적 광란 주의나 비합리적 광기를 멀리해야만 한다. 금욕주의는 신비주의적 속성을 지닌 에로틱한 부산물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구원종교는 결혼 제도를 통해 성생활을 통제하는 생활체계를 만든다. ‘결혼제도의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에로틱 사랑의 긴장 관계 형성이 본격화된다. 이때 성은 일상의 영역에서 비일상의 영역으로 승화된다(베버, 2008: 245-258). 사실, 구원종교는 원리상 섹슈얼리티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섹슈얼리티 그 자체는 갈수록 실제의 삶에서 겪은 진화의 성격에 기반하는데, 그 진화의 성격은 삶의 조건에 대한 합리화의 결과로 나타난다”(Weber, 1978: 606). 구원종교가 성적 절제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종교에서 성적 난교를 터부시 하는 것은 결혼을 종교적으로 규제하고 합법화하기 위해서이다. 법적으로 규제된 결혼은 에로틱한 쾌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경제적 이유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이후에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으로서 결혼이 의미를 가진다(Weber, 1978: 605). 종교적 관점에서 미래의 노동력을 길러내고 과거에 죽은 자를 숭배하는 제도가 결혼인 것이다. 금욕주의와 결혼의 결합은 엄청난 문화적 힘을 만들어낸다.

가장 대표적인 노력은 ‘결혼’ 제도를 통해 성적 난교에 대한 도취를 “신이나 구원자에 대한 에로틱한 사랑으로 승화”(Weber, 1978: 603)시키는 것이다. 결혼 개념은 재산으로 여성과 자손의 상속권을 확보하거나 내세의 운명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낼 후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 예언자 시대 이전의 것이며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이때의 결혼 개념은 금욕주의와 무관하다(Weber, 1958: 344). 엄격한 의미에서 금욕주의 전통은 결혼과 금욕주의가 밀접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로마와 북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엄격한 금욕주의의 전통에서 결혼과 출산은 현세에 받는 고통이자 벌이다.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니교(Manichaeism)는 “성생활을 몸이 합쳐지는 행위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에 걸쳐 악한 물질의 세계가 성생활을 통해 확장되기 때문에 결혼을 악한 것으로 간주했다”(김경수, 2015: 30). 성생활이 쾌락이 아니라 재생

산으로 이어져도 부정적인 관점은 바뀌지 않는다. 결혼 내의 성생활은 곧 출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고통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생활을 통한 자녀출산은 영혼을 육체에 속박시키는 일이기도 했고 동거보다도 더 큰 죄”(김경수, 2015: 30)이기에 결혼은 금지되었다.

주술의 단계에서는 종교와 성(性)의 분리가 되지 않았다. 성은 자연주의적이고 일상적인 것이었다. 이때 성교는 주술적 광란 축제의 일부분이었고 광란적 흥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난교(orgy)는 사적으로 제한 없는 방종이나 음주와 성행위가 나타나는 사회적 모임의 한 형식이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비밀의식이었으며 종교적 행사이다. 구원종교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일상의 성 욕구를 떨쳐내야지만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에로틱 사랑의 제도로 합리적으로 규제된 결혼만 받아들인다. 결혼 제도 밖의 성적 쾌락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이러한 터부 위에서 혼외 성관계를 맺는 자는 원시인과 동일 선상에 놓인다. 사실, 원시인은 성행위를 “뭔가 독특한 것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실제로 부끄러운 감정 없이 관광객들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며, 그 행위가 “일상을 넘어선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Weber, 1978: 606-607).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농부의 성생활과 원시인의 성생활이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동물적인 것과 원시적인 것 사이를 오가던 성행위는 구원종교의 성적 질서와 결혼제도의 비호를 받으면서 일상적인 것에서 비밀상적인 것, 자연적인 것에서 비자연적인 것으로 전환한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아이와 여성에게 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에게 안전을 제공”(Weber, 1978: 607)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긴다. 재생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베버는 윤리적 종교의 차원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반감을 두 가지 태도로 나눈다. 윤리적 종교는 규범 차원에서 삶의 요소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종교이다. 가치 차원에서 개인의 삶을 안내하는 것보다는 규범으로 삶을 조직하는 것에 능숙하다. 우선 첫 번째는 신비주의적 입장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신비적 도피의 개념으로 섹슈얼리티를 대한다. 핵심은 구원을 위해서는 성적 절제가 필수불가결한 도구이다. 이 세상에서 성적 절제를 위한 대표적인 종교적 실천은 명상이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적 입장이다. 성행위의 독특한 비합리성에 의해 금욕주의의 질서가 위협받고 이지러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합리적이고 금욕적인 각성, 자기통제,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삶을 통해 절제된 성생활을 실천해야만 한다.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모두 특정 종교 안에서 섹슈얼리티를 향한 적대감을 가진 사실이 드러난다(Weber, 1978: 603-604). 금욕주의가 보기에 주술적 광란의 난교의 망아상태는 초월적 신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 가능한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을 사랑한다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성적 쾌락을 신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하여야 하는 것일까? 종교적 체험이 성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반에로틱 종교성, 그것이 신비적이든 금욕적이든 상관없이 성적으로 조건화된 신체적 욕구에 대한 대리 만족을 보여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Weber, 1978: 603).

3.2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 자연적 섹슈얼리티에서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일상의 성생활은 합리화의 두 단계, 탈주술화를 통해 성스러움을 소멸하고 합리적 언어로 설명하는 주지주의화를 거쳐 자연적 섹슈얼리티에서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합리화된다. 농부의 성생활로 대표되는 일상의 성생활은 ‘기사도 관습’(the convention of knighthood)을 통해 조절된다. 이 코드는 섹슈얼리티를 주지주의화하는 첫 번째 코드이다. 종교적 의례를 통해 망아상태에 이르지 못한 채 행하는 일상의 성생활이 기사도 관습을 통해 탈주술화한다. 기사도 관습이 섹슈얼리티를 승화시켜 에로티시즘으로 합리화한다. 농부의 성생활은 섹슈얼리티를 조절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동물의 섹슈얼리티와 구별하기 힘든 성기 감각 기관의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이다(Weber, 1958: 344). 그러나 기사도 관습은 섹슈얼리티의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토대를 ‘문화’로 조절한다.

기사도 정신은 11세기 말, 새로운 행동윤리와 삶의 이상을 제시하는 가치체제로 확립되었다. 윤리적·도덕적·사교적 복합체로 기사도 정신이 새로운 행위 규범으로 등장한 것이다⁵⁾(김정희, 2005; 이동춘, 2004, 2008; 최예정, 2018). 중세 문학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상적인 기사의 모습은 기독교의 7대 죄악(식탐, 음욕, 인색함, 게으름, 자만심, 시샘, 분노)과 반대의 형태를 띤다.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잘 생기고 여성과의 대화를 즐기며, 욕망을 절제하되 그렇다고 금욕적이지 않으며, 겸손하며 물질적인 것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 낭만적인 모습”(김정희, 2005: 271)이다. 베버의 관점에서 에로티시즘은 기사도 규약 코드에 의해 조절된 문화적 산물이며 농부의 성생활이 진화한 결과이다. “이러한 진화의 이유와 의미는 문화의 보편적 합리화와 주지주의화를 포함한다”(Weber, 1958: 344). 자연적인 농부의 성생활은 기사도 규약이라는 규범 상징체계를 통해 합리화된 문화적 에로티시즘이다.

기사도 규약 코드를 따라 작동되는 ‘의식적 향유’(conscious enjoyment)를 거쳐야만 에로틱한 것을 즐길 수 있다. 에로티시즘은 어떤 ‘가치-강조’(value-emphasis)에 두느냐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에로틱한 감각의 가치는 ‘봉건적 명예’ 개념을 바탕으로 기사적 충성관계의 상징이 에로틱하게 승화된 성적 관계로 이어지면서 발

5) 기사도 정신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 덕목으로 나누어진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용맹성, 투철한 충성심과 명예의식은 기사도 정신의 핵심인 군사적 덕목, 하나님의 믿음을 전파하는 종교적 덕목, 그리고 힘없는 약자에게 자비와 동정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적 덕목이다(이동춘, 2004, 2008; 최예정, 2018). 여기에 하나의 덕목을 더 추가한다면, 궁정의 사랑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기사가 귀부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인 궁정적 덕목을 포함할 수 있다. 궁정적 덕목은 르네상스를 거쳐 ‘귀족사회’의 등장으로 전통적 기사도 정신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등장한 덕목이다. 전사적 가치는 궁정 내에서 용맹성을 너무 과시해 사람들을 겁에 질리지 않게 해야 하며, 춤을 청하는 궁정의 여성에게 매너있게 행동해야한다는 등의 궁정의 코드가 강화된다. 군사적 덕목인 용맹함은 궁정이 아니라 전쟁터에서만 드러나는 것으로 충분하다. 노래와 춤, 세련된 화법과 의상 등을 통해 궁정의 사교적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생한다(Weber, 1958: 345). “궁정식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은 연인들을 품위 있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인을 존중하게 하며, 열정의 욕망을 끝없이 타오르게 한다”(박윤희, 2007: 356). 베버는 에로티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에로티시즘은 “독특한(idiosyncratic) 감각 작용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특한 가치를 발생시키고 일상의 삶을 초월한다”(Weber, 1978: 607). 에로티시즘은 주지주의화된 하나의 상징체계이다. 이 상징체계는 이전에는 일상적인 활동의 하나였던 성생활이 구원종교와 결혼제도로 비일상적인 것으로 승화한 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독특한 감각 작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여기서 성행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지위 협약이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방해가 섹슈얼리티를 에로티시즘으로 승화시키는 요소이다.

“새롭고, 진화하고, 합리화된 총체적 생활패턴의 출현은 단순한 농민의 실존적·유기적 순환으로부터 변환된 것이다”(Weber, 1978: 607).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는 농부의 자연적 성생활과 근원적인 긴장 관계에 놓인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기사도 규범을 통해 자연적 섹슈얼리티에서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합리화시킨다. 일상의 성생활이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를 내포하고 있는 기사도 규범을 통해 합리화되는 것이다. 베버는 섹슈얼리티가 에로티시즘으로 승화하는 것은 기사도 관습을 통해 가능했다는 사실을 밝히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궁정사랑’의 코드로 합리화된다는 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구원종교의 질서 아래에서 ‘총체적으로’ 성생활을 재조직할 때 나타나는 긴장은 구조적 긴장이라기 보다는 의미적 긴장이다. 상징체계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이다.

궁정사랑은 충정관계와 에로틱 관계가 ‘에로틱 종교성’과 결합하거나 직접적으로 금욕주의와 결합하면서 발전한다. 궁정사랑은 기혼녀에 대한 기사의 성애적 충정봉사였다. 성적 절제와 밤의 의무가 뒤섞인 코드로 나타난다(Weber, 1958: 346). 숙녀 앞에 선 기사는 자신의 에로틱한 감각을 활용해 대화를 이끌어나가고 기사도 정신을 기반으로 성애적 충정봉사에 열정을 쏟는다. 애초에 기혼녀와의 성적 관계가 불가능하기에 ‘유혹의 언어’로 낭만화하고 이상화한다. 그래서 ‘궁정사회’가 출현한 시기에 기독교 기사의 금욕주의는 음유시인의 에로티시즘으로 가득하다(엘리아스, 2003).

섹슈얼리티에 대한 합리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에로틱 사랑의 내재적 법칙도 발달한다. 사실, 자연적 섹슈얼리티가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합리화되는 과정은 에로틱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과 노동을 소명으로 하는 이들 사이의 금욕적 특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Weber, 1958: 346). 노동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행위 하는 인간은 에로티시즘을 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쾌락을 소모하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형제애 윤리가 안내하는 삶의 규범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오직 (재)생산적 노동에만 몰두한다. 금욕적 형제애 윤리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이들은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노동의 세계와 에로틱 사랑 사이의 긴장 아래에서 모순을 깨닫는다. “일상에서 제거되었던 혼외 성생활이 여전히 인간의 모든 삶에서 자연적 토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연대”(Weber, 1958: 346)였다는 사실 때문에 긴장이 더욱 고조된다. 결혼제도

밖에서의 성생활은 섹스와 종교가 합리화되면서 제거되었던 농부의 자연적 삶을 되살려 내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을 소명으로 삼아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상실된 감각 쾌락을 일깨워주는 촉매제가 에로틱 사랑이다.

“합리성에 대한 기쁨에 찬 승리는 근본주의 안에서 모든 종류의 세상 밖 구원 또는 초 세상적 구원 윤리에 의해 불가피하고 동시에 급진적인 거부와 상응한다”(Weber, 1958: 346-347). 합리성에 대한 기쁨에 찬 승리는 곧 세상 안의 감각 쾌락주의를 뜻한다. 원래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는 현세의 쾌락을 완전히 거부한다. 신의 세계인 초월적 세상 으로 가는 것이 가치 있기에 현세의 쾌락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 보니 현세의 감각쾌락 을 일깨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욕적 태도로 삶을 조직해도 괴롭지 않다. 성생활은 동 물적인 것과 유일하게 제거될 수 없는 결합으로 짐승의 생활과 같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종교적 형제애 윤리가 초월적 구원을 약속하면서 세상 안 감각쾌락을 거세하는 동안 에 로틱 사랑은 ‘세상 안 구원’을 약속하며 구체적인 감각을 강조하는 내재적 법칙을 구성 한다.

형제애 윤리에 따라 금욕적 태도로 세상 밖 구원을 추구하며 ‘신의 도구’로 노동하며 현세를 정복하면 미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에로틱 영역은 현세에서 합리적으 로 조직된 노동 생활의 고통스러운 일상으로부터 ‘바로 지금’, 구원을 약속한다. 고도로 체계화된 에로틱 사랑은 구원종교가 사랑의 종교, 형제애의 종교, 이웃사랑의 종교의 특 정을 강조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관계의 모든 순수한 동물성을 재해석하고 찬미한 다”(Weber, 1958: 347). 에로틱한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 이 직접적으로 융합”(Weber, 1958: 347)하는 것으로 이해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에로 티시즘이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가 에로틱 사랑을 결혼 제도에 묶어두는 이유는 에 로티시즘이 두렵기 때문이다. 에로티시즘을 통해 이르는 영혼의 융합은 새로운 집합연대 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 초월적 구원에 대한 미래의 약속은 노동에서 오는 현세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에로티시즘은 바로 지금, 현세 에서 영혼의 구원을 약속한다.

영혼의 융합은 곧 ‘너’(you)가 사라지는 것이다. 너의 소멸을 통해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에로틱 영역 이 내재적 법칙을 가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가치 영역으로 분화하는 것이다. 자연적 섹 슈얼리티에서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탈주술화하고 주지주의화한 결과 탄생한 에로틱 영 역의 신은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가 즉각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의 시점을 미래에 설정하는 모순을 공격한다.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서 구원 받으라고 손짓 한다. 에로틱 사랑과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가 근원적인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을 약속하는 근본적인 친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가능하기 때문이다. 에로 티시즘은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살린다. 그리고 에로틱 가치를 따라 에로티시즘이 제시 하는 구원을 쫓는 이들은 “그 스스로 합리적 질서의 차가운 해골손에서 그리고 매일의 상습의 따분함에서 완전하게 난다는 것을 안다”(Weber, 1958: 347). 에로티시즘이 안

내하는 구원은 에로틱 사랑이 고도로 체계화된 상징체계인 에로티시즘을 통해 영혼의 융합을 경험하는 신비주의적 체험을 통해 가능하다.

성숙한 인간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랑의 주지주의화된 형태이다. 사랑을 모두 합리화된 언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것이 주지주의화된 사랑이다. 기사도의 사랑, 열정적 사랑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주의화된 사랑은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된 모습이다. 형제애 윤리에 따라 자연적 섹슈얼리티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셈이다. 다만 여전히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는 성적인 영역에 대한 모든 자연적 속성을 반대한다. 자연적 섹슈얼리티에서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에로틱 사랑이 합리화되어도 여전히 근본적이고 적대적인 관점을 취한다. 세상 안 구원과 세상 밖 구원이 경쟁하는 이유는 상호관계이면서 대체가능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다. 그래서 에로티시즘과 구원종교 사이의 엄청난 긴장은 여전히 팽팽하다.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가 금욕적 숭고함을 강조하면 할수록 에로티시즘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Weber, 1958: 347-348).

종교와 에로티시즘은 둘 다 타인에게 자신을 무한히 내어주는 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기서 에로티시즘과 형제애 윤리의 대체가능성이 또다시 드러난다. 에로티시즘은 에로틱 사랑이 제공하는 욕망과 강압에 기반으로 영혼의 융합을, 형제애 윤리는 욕망도 강압도 없는 신의 사랑을 드러낸다. 쾌락을 거부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형제애 윤리가 에로티시즘은 대척점에 놓일 수밖에 없다. 금욕적 형제애 윤리의 관점에서 에로틱 사랑은 신의 무차별적 사랑을 방해하는 방종의 형식일 뿐이다. 에로틱 사랑은 구원종교의 보편적 사랑과는 반대로 배타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한다. 그래서 형제애 윤리는 에로티시즘을 갈등의 관계로 이해한다. 제3자를 배제하는 질투나 소유의 의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강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친밀성의 이중적 성격을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다. 서로의 영혼의 융합으로 사라지는 것은 덜 강압적이고 덜 잔인한 영혼을 가진 파트너이다. 나르시시즘적 성격이 강한 파트너는 상대를 “강제하면서 그것을 가장 인간적인 헌신이라 가장”(Weber, 1958: 348)하고, 거기에서 정교한 즐거움을 누린다. 동등한 두 영혼의 결합이라기보다 친밀한 관계의 권력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친밀한 강압이라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 역설은 둘만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기에 영혼의 강압을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4. 낭만적 사랑의 두 갈래 길: (금욕적) 숭고한 사랑과 (신비적) 열정적 사랑

베버는 구원추구의 방식 즉, 종교적 행위 지향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신비주의와 금욕주의이다.⁶⁾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와 의 긴장을 통해 에로틱 사랑은 신비주의와 금

욕주의를 융합한 근대적 사랑의 형식을 만들어낸다.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이다. 낭만적 사랑은 금욕주의적 성격을 가진 숭고한 사랑(sublime love)과 신비주의적 성격을 내포한 열정적 사랑(passionate love)이 결합한 형태이다. 숭고한 사랑은 신을 향한 사랑이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당신’ 뿐이라는 점을 상기한다. 그래서 나의 구원인 ‘오직 당신’과의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원한다. 이와 달리 열정적 사랑은 매혹의 속성과 파괴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기에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기든스, 2003).⁷⁾

낭만적 사랑은 숭고한 사랑과 열정적 사랑의 두 요소가 합쳐져 탄생한 새로운 사랑의 서사적 형식이다. 로맨스(romance)는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근대에 들어서 이 서사가 개인화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개인화된 사랑으로 불리기도 한다. 숭고한 사랑의 요소는 섹슈얼리티를 ‘바로 그 사람, 단 한 사람’과 나누는 배타적 관계를 강화한다. 열정적 사랑은 자유, 일상과 의무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일상과 의무로부터의 단절을 뜻한다. 이 두 요소 중 숭고한 사랑의 요소는 성적인 열정의 요소를 배타적 관계를 통해 통제하고자 한다. 낭만적 사랑은 ‘찰나의 매혹’에 빠지는 서사를 즐겨 활용한다. 다시 말해 ‘첫눈’에 반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Swidler, 2001). 하지만 이는 열정적 사랑의 성적이고 에로틱한 충동과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만 낭만적 사랑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과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열정적 사랑은 제거되고 숭고한 사랑의 요소가 더 강조된다. 열정적 사랑의 요소에 의해 성적 사랑의 성격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숭고한 사랑의 요소 때문에 관능의 기술은 포함하지 않는다(기든스, 2003: 3장).

에로틱 사랑이 낭만적 사랑으로 합리화되는 것은 ‘결혼’을 통해 세상 안 금욕적 구원을 약속한다는 의미이다.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과 숭고한 사랑의 결합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근대의 사랑이다(기든스, 2003). 성적 사랑과 연관된 열정적 사랑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금욕적 사랑의 형태인 ‘숭고한 사랑’을 강조한다. 사실 낭만적 사랑은 “욕정이거나 노골적인 섹슈얼리티와는 양립불가능하다”(기든스, 2003: 85). 그래서 종교적 사랑의 형태인 숭고한 사랑이 더욱 강조되고 성적 사랑과 연관된 ‘열정적 사랑’은 배제될 수 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세상 밖 구원’을 추구하는 형제애 윤리와 ‘세상 안 구원’을 약속하

- 6) 상황적 질서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세상 밖’ 태도와 ‘세상 안’ 태도이다. 이에 따라 구원과 개인의 행위에 대한 네 가지 규범 유형은 ‘세상 밖 신비주의’, ‘세상 밖 금욕주의’, ‘세상 안 신비주의’, ‘세상 안 금욕주의’이다. 베버의 구원추구의 방식과 상황적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경험적 연구는 최종렬(2015)를 참조할 것.
- 7) 근대적 사랑의 형식인 낭만적 사랑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열정적 사랑과 낭만적 사랑의 역사적 형태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사랑의 형태는 크게 ‘동반자적 사랑’(companionate love), ‘열정적 사랑’(passionate love/ amour passion),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 ‘합류적 사랑’(confluent love)의 역사적 변천을 겪는다. 우선 동반자적 사랑은 근대 이전의 사랑으로 가계나 농장을 꾸려갈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경제적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랑의 형태이다. 근대 이전의 유럽에서 서로의 성적 매력에 결혼의 기초가 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기든스, 2003).

는 낭만적 사랑의 긴장 관계는 에로틱 영역이 내재적 법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숭고한 사랑은 금욕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섹슈얼리티 또한 ‘바로 그 사람, 단 한 사람’과 나누는 ‘배타적인 두 남녀의 관계’를 전제한다(기든스, 2003; 숄트, 2008). 이때 성관계도 결혼으로 엮인 두 개인의 배타적 행위만 낭만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여겨진다. “낭만적 사랑에 빠진 개인에게 그 사랑의 대상인 타자는, 단지 그가 판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결여를 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기든스, 2003: 86)임과 동시에 “공동의 기억”(숄트, 2008: 130)을 나누어 가지는 존재이다. 둘만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온갖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혼 밖의 성관계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자 우리집단 경계를 해체할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사랑을 나누는 대상도 유일무이하고, 망아상태를 체험하는 경험도 둘만의 것이어야만 한다. 보편적 사랑을 요구하는 형제애 윤리와 배타적 사랑을 강조하는 낭만적 사랑의 긴장이 더욱 심화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낭만적 사랑은 재생산을 통해 장기적인 삶을 궤적을 제공한다. 결혼을 통해 세상 안 금욕적 구원을 약속하는 결혼은 삶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매춘이나 결혼 밖의 성관계를 통해 단기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찰나의 쾌락을 통해 가족과 가문의 불멸성을 기리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다. 부지불식간에 사회적 삶으로부터 둘만의 세계로 고립되는 열정적 사랑이 가족과 가문의 불멸성을 추구하기 위한 코드가 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혼-임신-출산-육아의 장기적 삶을 기획하여 가족과 가문의 불멸성을 추구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 궤적을 따라 살아가면 문제적 상황에 놓일 위험성이 훨씬 낮아진다.

종교적 형제애 윤리와 긴장으로 에로틱 사랑이 낭만적 사랑으로 합리화되면 될수록 숭고한 사랑의 금욕적 속성으로 인해 형제애 윤리와 극심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목적론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에로틱 사랑이 낭만적 사랑으로 합리화되었지만, 에로틱 영역의 내재적 법칙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결혼으로 귀결되는 낭만적 사랑은 강력한 금욕주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버의 시대에는 에로틱 사랑과 형제애 윤리의 긴장 관계를 통해 에로틱 사랑이 합리화된 낭만적 사랑이 새로운 가치로 여겨졌다. 결혼이라는 세상 안 금욕적 구원은 에로틱 사랑이 신비적 구원을 추구하다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을 합리화한 것이기도 하다. 에로틱 사랑이 세상 안 금욕적 구원을 약속하지만 역설적으로 현세 내의 신비적 구원의 가치는 증가한다. 주술적 세계에서 망아상태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와 연대를 창출한 신비적 힘에 대한 노스텔지어는 또 다른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를 예고한다.

베버가 합리성을 넘어 기쁨과 환희를 제공한다고 묘사한 에로틱 영역은 낭만적 사랑 코드로 구성되는 순간 합리성의 영역에 갇힌다. 낭만적 사랑의 합리적 질서는 자녀를 낳아 기르며 은총 받게 하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과 긴장 관계를 맺고 있던 형제애 윤리는 ‘재생산’으로 축소된 섹슈얼리티에서 수렴한다. 에로틱 사랑은 형제애 윤리의 영향을 통

해 금욕적으로 합리화된다. 낭만적 사랑은 형제애 윤리가 강조하는데로 서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배타적 연대에 그치게 한다. 베버가 언급한 ‘순수한’ 에로틱 영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순수한’ 에로틱 영역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창출하는 문화적 에로티시즘이다. 우리는 어디서 ‘순수한’ 에로틱 영역의 내재적 법칙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창출하는 문화적 에로티시즘을 낭만적 사랑의 또다른 요소인 열정적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열정적 사랑은 성적 애착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열정적 사랑에 빠진 인간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에 처한다. 열정의 고통이 있어야만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열정적 사랑은 근대의 개인성을 일깨우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열정적 사랑에 빠진 연인이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것은 가족이나 공동체와 같은 집합적 실체의 힘에 맞서기 때문이다. 괴로움과 고통이 개인의 내면성을 흔들어 깨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도덕과 윤리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루만, 2009). 열정적 사랑은 매혹의 속성과 파괴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기에 사회 질서와 의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너무도 위협적이다. 무료한 일상생활과 달리 타자와의 강력한 감정적 역임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기존의 사회 질서와 의무를 파괴하기 때문이다(기든스, 2003). “열정적 사랑을 통해 영구적인 애착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는 결국 파멸하고 만다는 내용의 이야기나 신화는 대부분의 문명에서 나타나고 있다”(기든스, 2003: 78).

낭만적 사랑이 열정적 사랑과 숭고한 사랑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숭고한 사랑의 요소가 열정적 사랑의 에로틱한 요소를 조절해왔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낭만적 사랑은 두 갈래 길로 나뉜다. 기존의 사회 질서와 의무로부터 도피해 성적 사랑을 실천하는 열정적 사랑의 길과 섹슈얼리티를 배타적인 단 한 사람과 나누는 숭고한 사랑의 길이다. 대부분의 낭만적 사랑은 사실 숭고한 사랑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장기적 삶의 궤적을 제공해주는 낭만적 사랑의 안정성을 택하는 것이 열정적 사랑으로 인한 불안정성의 고통에 빠지는 것보다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숭고한 사랑과 열정적 사랑의 두 요소 중 숭고한 사랑을 강조하는 낭만적 사랑만을 문화구조로 인정하고 활용한다. 왜 그러한가? 열정적 사랑은 기존의 사회 구조를 흐트러트리므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만든다. 열정적 사랑에 내재된 불안정성 때문에 그러하다. 열정적 사랑이 지닌 불안정성은 무엇인가?

사랑을 공적 상징체계와 코드의 역사적 변화 과정으로 분석한 루만(2009)의 논의를 살펴보자. 루만은 긍정의 사랑이 열정적 사랑으로 그리고 낭만적 사랑으로 역사적으로 발전한 것은 코드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사랑이 새로운 의미나 특징을 획득했다는 것은 사랑을 정의하는 코드가 변화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열정적 사랑은 18세기, 섹슈얼리티에 대한 강력한 코드였다. 열정적 사랑은 사랑의 역설을 포함한다. ‘사랑의 결의론’(casuistry of love)이라고도 표현되는 사랑의 역설은 연인들의 행위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다. 사랑의 불안정성은 논리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 풀릴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불안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지는 열정적 사랑은 “마음의 문제를 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감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문제를 해결”(루만, 2009: 95)하는 나침판이다. 열정적 사랑의 분화와 그것의 내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은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 나아가 에로틱 영역의 분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것이 형제애 윤리와 짝을 짓는 숭고한 사랑이 강조된 낭만적 사랑으로 귀결되느냐 아니면 순수한 에로틱 가치를 만들어내는냐를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열정적 사랑은 구애와 유혹의 사회체계가 된다. 열정적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도덕과 사회에서 벗어나 자아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타인 속에서 자기 포기, 소멸, 재탄생”(루만, 2009: 101)의 원리를 따르는 열정적 사랑은 타인 속에서 나를 부정하고 망아상태에 이르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를 나의 구원자로 여기는 서사를 가능하게 한다. 당신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겠다는 열정적 사랑의 서사이다. 망아상태로 기존의 자아를 상실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가 문화적 에로티시즘의 수준으로까지 이루어졌을 때 등장하는 ‘친교’(sociability)와 일치한다. 친교는 열정적 사랑이 문명화되고 합리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한 에로틱 영역에서 사랑의 원형은 열정적 사랑이다.

5. ‘순수한’ 에로틱 영역: 친교(sociability)의 세계

베버가 합리성을 넘어 기쁨과 환희를 제공한다고 묘사한 에로틱 영역은 낭만적 사랑으로 구성되는 순간 합리성의 영역에 갇힌다. 낭만적 사랑의 합리적 질서는 자녀를 낳아 기르며 은총 받게 하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과 긴장 관계를 맺고 있던 형제애 윤리는 ‘재생산’으로 축소된 섹슈얼리티에서 수렴한다. 에로틱 사랑은 형제애 윤리의 영향을 통해 금욕적으로 합리화된다. 낭만적 사랑의 상징체계와 이항코드는 서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배타적 연대에 그치기 때문이다. 베버가 언급한 ‘순수한’ 에로틱 영역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창출하는 문화적 에로티시즘이다. 문화적 에로티시즘이 스스로 독자적인 내재적 법칙을 발전시켜야만 에로틱 영역이 독자적인 가치 영역으로 분화될 수 있다.

문화적 에로티시즘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 글에서 문화적 에로티시즘의 원형으로 ‘친교’(sociability)(Simmel, 1947)를 제시한다.⁸⁾ 친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양식화된 형식이면서, 상호작용의 형식이다. 친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놀이’(play)의 형식을 도입하는 것에 있다. 놀이는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고 공유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친교를 나누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이해관계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즐

8) 짐멜의 친교는 독일어로 *Geselligkeit*이다. 영어로는 sociability로 번역되어 있다. 한국어로는 친교, 사회, 사회성 등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Geselligkeit*의 번역어로 ‘친교’를 택한다.

거움과 기쁨을 함께 체험하는 ‘친교’를 위한 친교의 장이다. 짐멜은 친교를 복잡하고 불안정한 근대세계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사회적 형식으로 이해한다. 친교는 사회의 이상화된 형태이면서 근대의 새로운 사회관계의 핵심인 것이다. 친교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사회 안에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다(Toiskallio, 2000). 나이·젠더·계급·지위·직업·인종·국적과 관계없이 유용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친교를 맺는다. 짐멜은 이렇게 친교를 사회성의 순수한 형태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Simmel, 1947). 물론 상호작용 중인 행위자가 완전한 평등 상태에 있다는 것은 환상에 가까운 일이다. 친교의 상호작용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처럼 처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마치 누구나 서로를 각별히 존경하는 척하기 때문에, 사교는 놀이다”(박성환, 2012: 204).

친교는 순수한 에로틱 영역에서 행해지는 상호작용의 형태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에로틱 사랑이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문화적 에로티시즘은 망아상태에 이른 영혼의 합일이 개인적 차원에서 존재의 전환을 야기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창출한다. 여기서 주술적 망아상태의 난교를 통해 존재론적 전환과 공동체의 연대를 창출하는 것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베버가 취한 진화론적 관점을 상기하여 에로틱 사랑이 합리화하는 진화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문화적 에로티시즘은 ‘세상 안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낭만적 사랑과는 다른 ‘세상 안 신비주의’를 약속한다. 에로틱 사랑이 세상 안 금욕주의를 가치로 하는 낭만적 사랑과 세상 안 신비주의를 가치로 하는 문화적 에로티시즘의 두 유형으로 분화된 것이다.

친교로 순수한 에로틱 영역을 접근하면 새로운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 그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쾌락이 펼쳐지는 세계이다. 친교의 세계는 한 행위자의 ‘현전’(presence)이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의 존재와 행동을 즐겁고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다(Simmel, 1947). 이 점은 덜 합리화된 에로틱 사랑이 타자에 대한 성적 욕망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다. 에로틱 사랑의 성적 욕망이 문화적 에로티시즘으로 합리화되면 에로틱 사랑은 친교의 상징체계와 이항코드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에로틱 관계는 곧 사회적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에로틱 사랑은 신체적 감각 그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체화된 개인들의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구적이고 실용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타자의 현전 그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Bologh, 1987, 1990).

신비적 망아상태에서 두 영혼이 합일되고 존재론적 전환을 이루는 에로틱 사랑의 성적 욕망은 친교로 합리화된다. 에로틱 관계와 친교의 관계는 둘 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체험되며 그래서 매력적이다. 순수한 에로틱 영역은 육체적이고 도구적인 가치의 신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의례적인 가치의 신이 등장한다. 하지만 형제애 윤리의 관점에서 에로틱한 관계는 ‘투쟁 관계’이다. 두 사람 중에 더 무자비한 자가 덜 무자비한 자에게 내면적 억압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억압당하는 자는 자신이 억압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에로틱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 ‘서로에게 주어진 불가사의한 천명’ 즉, 운명이라는 방식

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열의 폭발이 우연히 일어났기에 가능하다. 에로틱한 관계에 내재되어 있는 열정은 또한 자기통제의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성과 인간의 품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구원종교의 형제애 윤리, 즉 세상 안의 합리적 금욕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된 혼인을 신의 질서로 인정한다. 자녀를 낳아 기르며 은총 받게 하는 것이 합리적 질서이며 관계이다(베버, 2008: 254-257).

왜 금욕적으로 규제된 결혼만 신의 질서로 인정되는가? 초월적 신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가 이지러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에로티시즘을 인간의 실존적 조건과 연결해 이해하면 에로티시즘이 현세의 질서뿐만 아니라 신의 질서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에로티시즘은 동물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내적 삶의 특성을 지닌다. 신이 배제된 일상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는 형태가 에로티시즘이다(바타이유, 1999, 2020). 문제는 이 성스러운 체험이 터부시 된다는 점이다. 주술세계의 망아적 난교가 구원종교의 질서에 의해 금지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에로티시즘에 대한 터부는 에로티시즘을 (재)생산의 문제로 축소한다. 이렇게 재생산으로 축소된 에로티시즘은 삶과 죽음 사이의 애매성에 놓인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킬 수 없다. 망아상태를 통해 내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던 에로티시즘이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에로티시즘이 제공하던 개인의 내적 체험을 상실하고 에로티시즘이 재생산에 묶이면 묶일수록 생명이 끓어 넘치는 에로스는 사라지고 서서히 타나토스, 즉 죽음이 등장한다.

친교의 가치 상징체계는 세상 안 신비적 구원으로 ‘에로티시즘’을 선택한다. 이는 세상 안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형제애 윤리와 낭만적 사랑 코드로 구성된 에로틱 영역과는 삶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다. 수단-목적 합리성을 통해 일상의 삶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태도를 가진 금욕주의와 달리 신비주의는 세상을 체념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일시성과 허무성의 영역이니 인간의 합리적 인식을 넘어섰기 때문에 신비적 깨달음이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의 이해관계를 벗어나려고 한다. 그래서 에로티시즘을 가치론적-실존적 상징체계로 설정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은 동물의 삶에 주어진 ‘단순한 성 활동’과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며, 탁월성의 한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바타이유, 1997, 2020; 아렌트, 2015). 탁월성은 “사물이나 물질의 매개 없이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수행”(아렌트, 2015: 57)되는 유일한 인간의 활동이다. 행위는 자유인만 할 수 있는 삶의 활동인데, 쾌락은 자유인이 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방식 중 하나이다.⁹⁾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소비하며 육체적·정신적 쾌락을 향유하는 삶

9) 아렌트(Arendt, 2015)는 인간의 활동적 삶을 노동, 작업, 행위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노동은 필연성의 영역으로 인간의 생존과 생식 활동을 한다. 작업은 유용성의 영역인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제2의 자연을 만드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행위는 탁월성의 영역이다. 행위의 세 가지 삶의 방식은 쾌락·정치·관조이다. 공적 영역인 폴리스의 국사에 참여하는 정치인의 삶, 초월적 세계의 영원한 것에 대해 탐구하고 명상하는 철학자의 삶이 대표적인 탁월성을 추구하는 삶이다. 여기에 육체적·정신적 쾌락을 추

이다.

리포베츠키(Gilles Lipovetsky)(1999, 2004, 2009)와 콜린 캠벨(Colin Campbell)(2010)이 논의하는 현대 쾌락주의를 실천하는 행위자의 모습이 자유인의 모습이다. 그들은 ‘나르시시즘적 개인주의’(narcissistic individualism),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 불안상태를 만들어내는 ‘자기환상적 쾌락주의’(self-illusory hedonism)를 적극 실천한다. 다른 영역의 행위자와 독특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다. 다른 영역의 행위자는 인정투쟁하고 경제·사회·문화·상징 자본의 내기물을 획득하기 위해 부단히 싸운다. 그러나 순수한 에로틱 영역은 타인의 인정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 즐거움, 쾌락, 자아실현을 더 우선하는 자유인이다. 순수한 에로틱 영역은 곧 자유인의 영역인 것이다. 친교를 통해 신비적이지만 합리화된 망아상태에 돌입한다. 이때 사회 전체의 연대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할 수 있다.

친교는 ‘성스러운 게임’¹⁰⁾(the sacred game)(Goffman, 1967: 91)을 가능하게 한다. 상호작용 중에 있는 행위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하는 이기적 행위자와 서로에게 성스러운 자아를 침범하지 않도록 의례와 경의(deference)를 표하는 행위자의 사이 그 어딘가에 있다. 성스러운 게임은 자기 보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위하면서도 상대에게 의례와 경의를 표하는 고프만적 행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예슬, 2015; 최종렬, 2012; Goffman, 1959, 1967). 순수한 에로틱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게임은 자신의 성스러운 자아가 침범 당하지 않도록, 또 상대의 성스러운 자아에 침범하지 않도록 온당한 의례를 끊임없이 행하는 상호작용의 릴레이이다. 의례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성스러운 ‘게임’이다.

성스러운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짐멜(1993)이 설명한 ‘연애유희’(flirtation)¹¹⁾이다.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의 심리적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애유희는 남녀관계의 대표적인 상호작용의 형식이다. 수용과 거절, 양보와 거절, 동의와 거절의 상징적 행위가 적극적으로 벌어지는 성스러운 게임의 장이다. 연애유희를 하는 여성은 남성에게 도전을 청한다. 그래서 연애유희하는 여성은 매혹적이다. 이때 여성과 남성은 서로 호혜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애유희는 일방향적이라면 애초에 시작될 수 없는 게임이다. 양보와 거절은 “여성들만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짐멜, 1993: 206)이다. 그들은 저항을 하지도 항복을 하지도 않는다. 그저 yes와 no, 저항과 항복 사이에 줄타기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행위자이다. 여성이 가진 능력은 연애유희에서 권력과 자유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핵심은 “자유 의 기분,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

구하는 삶도 포함된다.

10) 성스러운 게임의 정의와 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Choi and Lee(2020)의 연구를 참조할 것.

11) 짐멜은 연애유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유형은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정복할 수 있더라도 난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을 걸요”로 대표되는 아침으로서의 연애유희이다. 두 번째는 경멸로서의 연애유희인데,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날 정복하게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럴 능력이 없을 걸요”식의 유형이다. 마지막 유형은 자극으로서의 연애유희다. “당신은 어쩌면 날 정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르지요—한 번 해 보세요!”(짐멜, 1993: 200-201).

아의 독립, 지배적인 대립 관계를 초월하는 자발적인 존재”(짐멜, 1993: 209)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연애유희에서 핵심인 수용과 거절, 양보와 거절, 동의와 거절의 상징적 행위의 반복을 하는 사람은 “확실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존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파악되지는 않는 애매모호한 세계로”(짐멜, 1993: 205) 진입한다. 새로운 연대를 에로틱하게 창출하는 것이다. 연애유희는 “매혹적인 도박”이며 “달콤한 매력”을 가진 게임이다(짐멜, 1993: 211). 이 도박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고 유혹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존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현실의 놀이를 수행한다. 연애유희는 그 어떤 것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놀이’다. 남녀 사이의 연애유희는 ‘양보와 부정’이라는 과정이 그 관계의 전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 사이의 우정이나 증오,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집단이거나, 종교적·사회적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계와는 독특하게 구별된다. 성스러운 게임은 에로틱 하면서 즐겁고, 기쁨의 에토스가 지배한다.

친교를 위한 사회적 모임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정치적 권력을 활용하고 사회적 지위를 과시한다는 행위자가 다수라면 성스러운 게임은 불가능하다. 친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자유인’이 행위하는 탁월성의 영역이고, 성스러운 게임의 규칙을 통해 일상을 조직한다. 이때 성스러운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상생활의 요소가 사회적 모임이다. 사회적 모임은 경제적 이윤 추구의 장도, 정치적 권력 추구의 장이 아니다. 순수한 에로틱 영역에서 자유인은 진중하게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관계를 앞세워 경제적 이득을 계산하지 않는다. 순수한 에로틱 영역에서 행위자는 문화적 에로티시즘을 일깨우는 상호작용을 한다. 자신의 쾌락, 즐거움, 행복을 위해 타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놀이 장이다. 이 놀이의 장에서는 경제적·정치적·종교적 이해관계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의 내재적 법칙이 놀이를 방해해서도 안 된다.

6. 맺음말

왜 에로틱 영역은 독자적인 내재적 법칙을 형성하기 어려운가? 에로틱 사랑에 대한 논의를 개인의 성적 쾌락이나 유희에 한정하기에 그러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에로틱 사랑의 논의를 축소시키면 비합리적이고 신비주의적 성격만 강화될 뿐이다. 에로틱 사랑의 질서가 에로틱 영역으로 분화될 수 있을 내재적 법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로틱 사랑이 사회 전체의 연대로 확장되어야 가능하다. 농부의 자연적 섹슈얼리티에서 낭만적 사랑까지 종교적 형제애 윤리를 통해 에로틱 사랑을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에서 멈춘 에로틱 사랑의 합리화는 배태적인 둘 사이의 연대, 좀 더 넓게 보면 가족적 연대로 한정된다. 금욕주의의 성격을 지닌 종교적 형제애 윤리와 낭만적 사랑의 한 요소인 숭고한 사랑의 질서가 크게 다르지 않아 더 이상 긴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에로

틱 사랑이 내재적 법칙을 더 발전시킬 원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달리 친교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연대 그리고 사회적 삶의 에너지를 제공한다. 에로틱 사랑의 또 다른 유형인 친교는 새로운 사회의 연대를 형성하고 개인의 삶의 에너지 제공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생동감 넘치게 한다. 이는 다른 영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다. 에로틱 영역은 가장 개인적 차원의 쾌락을 추구하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사회 전체의 연대를 창출하는 영역이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황홀하게 만드는 에로티시즘이 에로틱 영역의 가치이기에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마르쿠제, 2017; 바타이유, 1999; 프로이트, 2020; Bertilsson, 1986).

(금욕적) 숭고한 사랑이 강조된 낭만적 사랑은 역사적으로 꽤 오랫동안 에로틱 영역의 가치 신을 자처했지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성애 중심의 일대일의 배타적 관계를 설정하는 낭만적 사랑은 둘만의 연대를 형성하는 것에는 탁월하지만 보편적 연대를 창출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비적) 열정적 사랑이 균형을 맞춘다면 새로운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열정적 사랑의 바탕인 성적 사랑은 개인의 쾌락 추구를 확장시키고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증가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문명화된 에로티시즘으로서 친교는 사회적 모임에 참여한 이들 사이의 보편적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 에로틱 사랑이 친교로 합리화되어야만 에로틱 영역의 가치 분화가 근원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밝혔지만, 형제애 윤리와 (금욕적) 숭고한 사랑이 강조된 낭만적 사랑은 논리적 정합성과 목적론적 정합성이 유사하다. 둘 사이의 차이에 의한 긴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에로틱 사랑은 내재적 법칙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나 에로틱 사랑이 합리화된 또 다른 유형 친교가 형제애 윤리와 긴장 관계를 새롭게 형성한다면 에로틱 영역의 가치 분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신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친교는 금욕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형제애 윤리의 법칙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내재적 법칙을 발전시킬 수 있다. 내재적 법칙을 가진 친교의 가치는 외부의 형제애 윤리의 질서와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친교의 가치가 사회 전체에 에로티시즘을 불어넣어야 새로운 에로틱 영역의 내재적 신이 등장할 수 있다. 에로틱 영역을 단순히 베버의 가치 분화론의 한 이념형으로 머무르게 하기에는 친교의 내재적 법칙으로 운영되는 가치 영역이 어떠한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은가?

참고문헌

- 기든스, 앤서니. 2003.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 김경수. 2015. “금욕주의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성과 결혼: 『결혼의 유익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35: 25-51.
- 김정희. 2005. “기사도 정신의 형성과 변용: 중세에서 르네상스까지.” 『한국프랑스학논집』 49: 267-288.
- 뒤르케임, 에밀. 2020.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민혜숙·노치준 옮김. 한길사.
- 루만, 니콜라스. 2009. 『열정적 사랑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정성흠·권기돈·조형준 옮김. 새물결.
- 리포베츠키, 질. 1999. 『패션의 제국』. 이득재 옮김. 문예출판사.
- 리포베츠키, 질. 2004. 『사치의 문화: 우리 시대의 일상이 된 사치에 대하여』. 유재명 옮김. 문예출판사.
- 리포베츠키, 질. 2009. 『행복의 역설: 과소비사회의 소비심리를 분석한 미래사회 전망 보고서』. 정미애 옮김. 알마.
- 마르쿠제, H. 2017. 『에로스와 문명: 프로이트 이론의 철학적 연구』. 김인환 옮김. 나남.
- 바타이유, 조르주. 1999. 『에로티즘』. 조한경 옮김. 민음사.
- 바타이유, 조르주. 2020. 『에로스의 눈물』. 윤진 옮김. 민음사.
- 박성환. 2012. “근대 사회의 분화와 ‘사교’의 문화적 의의.” 『문화와 사회』 13: 187-220.
- 박윤희. 2007. “궁정식 사랑의 노래: 유희의 언어.” 『중세르네상스 영문학』 15(2): 355-382.
- 베버, 막스. 2008. 『종교사회학 선집』. 전성우 옮김. 나남.
- 숄트, 크리스티안. 2008. 『낭만적이고 전략적인 사랑의 코드』. 장혜경 옮김. 푸른숲.
- 아렌트, 한나. 2015. 『인간의 조건』. 이진우 옮김. 한길사.
- 이동춘. 2004. “14세기 기사도 관점에서 본 『가웨인 경과 녹색의 기사』.” 『영미연구』 11: 95-116.
- 이동춘. 2008. “웨이크필드 매스터(Wakefield Master) 극에 나타난 기사도(Knighthood)와 현실.” 『외국문학연구』 32: 229-253.
- 이예슬. 2015. “‘동물원’과 고프만: 국제결혼 한국남편의 스티그마와 성스러운 게임 행하기.” 『베버와 바나나: 이야기가 있는 사회학』. 최종렬·최인영·김영은·이예슬 지음. 마음의 거울. 68-121쪽.
- 짐멜, 게오르그. 1993. 『게오르그 짐멜: 여성문화와 남성문화』. 가이 오스크 역음. 김영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예정. 2018. “마법, 기사도 그리고 궁정.” 『영미연구』 42: 63-92.
- 최종렬. 2009a. 『사회학의 문화적 전환: 과학에서 미학으로, 되살아난 고전 사회학』. 살림.
- 최종렬. 2015. “베버와 ‘바나나’: 한 무슬림 이주자의 이야기에 대한 서사 분석.” 『베버와 바나나: 이야기가 있는 사회학』. 최종렬·최인영·김영은·이예슬 지음. 마음의 거울. 227-291쪽.
- 캠벨, 콜린. 2010. 『낭만주의 윤리와 근대 소비주의 정신』. 박형신·정현주 옮김. 나남.
- 프로이트, 지그문트. 2020. 『문명 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열린책들.

Bellah, Robert. N. 1999. “Max Weber and World-Denying Love: A Look at the

- Historical Sociology of Relig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67(2): 277-304.
- Bertilsson, Margareta. 1986. “Love’s Labour Lost? A Sociological View.” *Theory Culture and Society* 3(2): 19-35.
- Bologh, Roslyn W. 1987. “Max Wber on Erotic Love: A Feminist Inquiry” Pp. 242-258 in *Max Weber, Rationality and Modernity*, edited by Scott Lash and Sam Whimst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ologh, Roslyn W. 1990. *Love or Greatness: Max Weber and Masculine Thinking—A Feminist Inquiry*. New York: Routledge.
- Choi, Jongryul and Yeseul Lee. 2020. “Sacred Game: A Goffmanian Ethnography of a Women-Only Public Place in South Korea.”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16.
- Friedland, Roger. 2013. “The Gods of Institutional Life: Weber’s Value Sphere and the Practice of Polytheism.” *Critical Research on Religion* 1(1): 15-24.
- Friedland, Roger. 2014. “Divine Institution: Max Weber’s Value Spheres and Institutional Theory.” *Religion and Organization Theory Published Online*: 13 Oct 2014; 217-258.
- Goffman, Erving.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Anchor Books.
- Goffman, Erving.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on Face-to-Face Behavior*. New York: Pantheon.
- Simmel, Georg. 1947. “The Sociology of Sociabi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5(3): 254-261.
- Swidler, Ann. 2001. *Talk of Love: How Culture Matt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oiskallio, Kalle. 2000. “Simmel Hails a Cab: Fleeting Sociability in the Urban Taxi.” *Space and Culture* 3(6): 4-20.
- Weber, Max. 1958.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eber, Max. 1978. *Economy and Society*,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rkel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제2부 주제 발표 및 토론

- ▷ 과학 기술 문명과 인간의 윤리
- ▷ 과학기술 문명과 인류세: 신유물론적 관점
- ▷ 우주와 생명
- ▷ 변화의 인류학적 변화

과학 기술 문명과 인간의 윤리

김 철(숙명여자대학교)

〈목 차〉

서론

1.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2. 피그말리온(Pygmalion)
3. 스푸트니크 쇼크(1957)와 쿠바 미사일 위기(1962)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2022)
4. 긴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가 1989년 가을에 등장하다.
5.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1990년 대 중반에 등장하다.
 - 5.1 <인디펜던스 데이>(Independence Day)
 - 5.2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24일 이후

본론

1. “과학 기술 문명의 사람과 윤리”
 - 1.1 사이버 공간(cyberspace)
2. 1989년
 - 2.1 해체된 동 유럽에 어떻게 새로운 입헌주의를 세울까?
3. 인터넷과 사회 윤리
 - 3.1 위험한 세계적 작가
 - 3.2 폭력적 게임이나 또는 폭력적 영상이 청소년의 폭력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논쟁
4. Covid-19 이후의 과학 기술 (Science & Technology) 과 그 사회적 맥락.
 - 4.1 진실을 말하는 영웅 (heroic truthteller in China)
 - 4.2 중국과 테크놀로지
 - 4.3 유럽 연합의 입장
5. 코로나 시대의 평가 : 의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종합적 평가
 - 5.1 랜싯 위원회의 구성
 - 5.2 랜싯 보고서(2021년 2월 10일 기준)
6. 테크놀로지 주도 사회의 새로운 권위의존주의의 대두(2016~)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파악하였는가?
 - 6.1 경제사가 아담 투즈
 - 6.2 정치적 특징
 - 6.3 트럼피즘에 대한 정치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 6.4 좌파 권위의존주의와 우파 권위의존주의는 심층 심리학에서 볼 때 같은 특징이 있다
 - 6.5 권위의존적 인성 연구를 트럼피즘 연구에 연결시키다(알테마이어, 2018)

- 6.6 F-scale을 세련화시켜서 RWA(right wing authoritarianism: 우파 권위의존주의)라고 이름 붙임
 6.7 RWA 고득점자와 반 민주주의적 성격(Linden, 2017).
 6.8 고전적 정의에서의 우파(right wing)와 좌파(left wing) (Altemeyer, 2018)
 6.8.1 공통점 : 판단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극단성
 6.8.2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차별의 정도 : 공통점
 6.8.3 내집단과 외집단의 극단적인 차별의 증상과 원인 : 공통점
 6.9 소결 : 고도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인간 형과 대중의 성격

맺음말

- 7.1 로버트 푸로스트 (Robert Frost , 1958) “테크노로지와 데모크라시”
 7.2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서론

이번에, 인문 사회과학회가 “과학 기술 문명과 인간”을 정기 학회 발표회의 주제로 정 한데에 공감하고, 법학자로서 참여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과학 기술은, 일차적으로 자연 과학자와 공학자들의 영역이나, 문명과 인간은, 인문 사회과학자들의 공유 영역입니다.

자연과학자, 공학자, 인문 사회 과학자들이 “과학 기술 문명”을 논 할 때, 법학자에게 남겨진 일은 무엇이 될까요? ‘과학 기술 문명과 인간’의 윤리 (Ethics) 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1.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1931년~1932년 세계 대공황이 진행되어 가고, 유럽과 아시아에 파시즘이 대두되고 있던, 음울한 시절에, 과학자 집안에 태어난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는, “용감한 신 세계”(Brave New World)¹²⁾라는 과학 픽션을 발표 했습니다. 이 공상적 과학 소설의 현저한 메시지는, 테크놀로지의 위험성을 우려해서, 헉슬리가 발한 경고음(alarm)이라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s)가, 사회를 통제하려는 데 사용 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the way human beings think and act)을 변화시키는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헉슬리가 “용감한 신세계” 에서 보여 주고자 한 것은, 고도의 과학 기술 사회가

12)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은, “멋진 신 세계” 로 출간 되어 있으나, 이 한국어를 다시 영역하면, “Wonderful New World”가 되지 않을 까? 내용을 참작하면, “용감한 신 세계”가 더 원저자의 의도에 맞지 않나? 생각된다.

“부정적 유토피아”(negative utopia)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배경(social background or context of science & technolog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피그말리온(Pygmalion)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목적에 의하여 쓰여 지는가에 대한 헉슬리(1932)의 무거운 톤을 밝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고전’에 속하는 문학--희곡의 예를 듭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발발(1914년) 이전의 공연 예술의 중심지 비엔나에서, 1913년 10월 16일 호프부르크 (Hofburg) 극장에서 도이취어로 초연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George Bernard Shaw)의 피그말리온(Pygmalion)입니다. 이 희곡의 주제는 대체로, “사회 계층(social class)과 언어 문화 격차” 쯤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소 다른 측면을 강조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히긴스가 두리틀의 런던 하층민 말씨와 억양을 고치는 데, 무엇을 동원 했는가? 히긴스의 전공인 음성학(phonetics)이, 언어 교정을 목적으로 쓰여 저서, 과학(science)의 성격을 가질 것이고, 더욱이 두리틀의 발음 교정을 위해서, 초기 에디슨 축음기(1877년 phonograph .원반 또는 원통에 홈을 파서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의 큰 나팔이 달린 턴 테이블을 사용하는 데, 소리의 기록과 재생이 가능 했기에, 방언과 발음 교정에 쓰일 수 있었던,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교정을 위한 테크놀로지가, 1913년 런던의 히긴스교수의 개인 연구실의 주요 설비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이 희곡은, 계층 문화를 극복하는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는 점에서, 또한 과학(음성학, phonetics)과 테크놀로지(에디슨 턴 테이블)가, 이타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 진다는 점에서, “더 큰 인간성의 고양(to heighten the greater humanity)”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헉슬리 시대(1930년 대)의 “용감한 신 세계”(brave new world)의 폐시미즘을 밝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3. 스푸트니크 쇼크(1957)와 쿠바 미사일 위기(1962)

3.1 냉전 시대 (1947년 트루만 독트린 이후 1989년 베르린 장벽 붕괴 또는 1991년 소련방 해체 까지의), 동서 양 진영의 체제 경쟁은, 군비 경쟁과 핵 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 기술의 경쟁을 가져 왔다. 냉전 체제에 돌입 한지 10년 뒤 인 1957년 10월 4일에, 소비에트 연방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1호의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 국가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스푸트니크 쇼크(Sputnik crisis)는 자연 과학 및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미국은 이후에 교육의 목표를

수정 보완하는 일대 개혁을 국가적 과업으로 삼게 되었다.

이후 미국은 우주개발이나 군비 확장을 위한 과학 기술 분야는 물론 교육 분야에서 일대 혁신이 일어나서, 초·중등 학교 교과 과정에서 수학이나 과학 분야를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고등 과학 기술의 고급 인력에 대한 취업 이민에 대한 개방 정책을 펴게 된다.

3.2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가을 (1962년 10월) 에, 1947년 이후의 동서 군비 경쟁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발사 기지가 미국 해안 선에서 160km 미만의 거리의 쿠바에 배치 되었었다. 이윽고 , 모스크바는 곧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제거하였다.

3.3 그로부터 60년 뒤 2022년 10월에,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처음으로 , 핵무기 사용의 직접적 위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서 행해졌다.

60년 동안(1962~2022), 핵 무기 관련 기술의 테크놀로지는 발전하였다. 즉 이제 더 이상 60년 전의 쿠바와 같은 미사일 발사를 위한 고정 기지는 필요하지 않다. 푸틴 핵 카드 시대의, “전술” 핵 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는, 구식의 로켓 발사대 (rocket-launcher)나 트럭의 대포 놓는 곳 (truck-bed)에서도 발사 할 수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시대의 유럽에 새로운 지리정치학적 현실(a new geopolitical reality)을 만들고 있다.

4. 긴 냉전 이후, “새로운 세계”가 1989년 가을에 등장하다.

베를린 장벽 붕괴(1989.11)는 이후의 도이치 통일 (1990. 10.3) 동 유럽 국가 전부와 소비에트 러시아의 해체(1991. 12.26.)를 가져 왔다.

동부 도이치 교회들은 1980년에 평화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서서히 힘을 더 해가다가, 1989년 가을에 드디어 그 운동은 폭발하였다.¹³⁾ (DW, 2014)

크리스찬 평화 운동(the Christian peace movement in the GDR)은, 오랫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1988년과 1989에 에큐메니칼 총회(Ecumenical Assembly) 이후 모든 교회를 포괄하게 되었다. 1983년에 창립된 국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어떤 흐름은 군비정책(armament policy)의 역전을 요구하였으며, 대량 파괴 무기의 전략적 배치에 대해서 역시 역전을 요구하였다.¹⁴⁾ 동 도이치의 크리스

13) From hope, a movement : The role of churches in the fall of the GDR ,(06.11.2014 dw.com)

14) “In 1983, Friedlich Schorlemmer had a sword melted down in the courtyard of Martin Luther's house in Wittenberg in the presence of ZDF television cameras. "Conciliar Process for Justice , Peace & the Integrity of Creation" , an international ecumenical movement founded in 1983 called for a reversal of armament -- also with regard to the deploy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6.11.2014 dw.com)

스찬 평화운동의 크리스찬들은 , 기독교가 동기가 된 군비 축소(disarmament) 운동이, 비폭력의 힘에 의해 급유 받기를 원하였다.(Schorlemmer: DW, 2014)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힘에 대항해서 경쟁하려고 하였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힘’은 무엇이었던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여기 도이치에, 가장 위험한 미사일이, 동독과 서독 사이에 아주 가까이 배치되어서, 그 위험성의 경고 조차도 더 이상 진행 할 수 없게 되었다.”

순전히 테크니칼한 관찰로는, 1989년 가을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간의 국경을 가로막고 있던 고압 전선 장벽의 전선을, 당국이 철거하면서, 이변이 일어났다. 동부 도이치의 시민들이, 이전에 폐쇄되었던 동 도이치-헝가리 국경을 먼저 넘어서, 오스트리아로 진입하고, 다음에 오스트리아 국경 부근의 린츠를 거쳐서, 마침내 서부 도이치로 역사적인 엑소더스를 감행하였다.

동 베를린과 도이치 시민들이, 민주화 개혁을 요구하면서¹⁵⁾, 베르린 장벽은 붕괴되고 1990년 10월3일에 도이치가 재 통일되었다.¹⁶⁾ 이때 대 탈출의 일차 주역은 동부 도이치의 기술자 계층으로, 그들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서 대 탈주를 감행 할 때, 트라비(Trabi)를 타고 있었다. 트라반트 601(Trabant 601)은 도이치 통일 (1990)이전의 , 동부 도이치의 작센 주 츠비카우(Zwickau)의 국영 자동차 공장에서 만든 4인승 국민 자동차이다. 동부 도이치의 유일한 자동차 모델이었고, 이 차의 구입을 위해서, 동부 도이치 사람들은 14년을 기다려야 했다. (Wikipedia)

5.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1990년 대 중반에 등장 하다.

15) 크리스찬 평화운동의 맥락에서 보기로 한다. 동부 도이치 전역의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 개혁(reform)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다. 또한 수많은 동 도이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는 미래를 볼 수 없었기에 동 도이치를 떠날 시도를 하였다.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Nikolai Church in Leipzig)의 목회자와 같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에게는, 단순히 사회주의 기반으로부터의 탈출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이 원 한 것은, 그들의 나라가 1. 단순히 더 자유로워지고(more freer), 2. 환경 문제에 있어서, 더 우애 있게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되고, 3. 더 민주적 (more democratic)이 되는 것이었다. 동 도이치 국가 당국도 더 이상 크리스찬 평화운동을 무시 할 수 없게 되었다. 1987년에 당국은 올로프 팔메 평화 행진(Olof Palme Peace March)을 허가하였다. 크리스찬 평화 운동(the Christian peace movement in the GDR)은, 오랫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1988년과 1989에 에큐메니칼 총회(Ecumenical Assembly) 이후 모든 교회를 포괄하게 되었다. 에큐메니칼 총회는 Dresden, Magdeburg 다시 Dresden에서 열렸는데, 1989년 가을의 폭발적인 붕괴를, 미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예비 한 것으로 간주 된다. (06.11.2014 dw.com)

16) 1990년 도이치의 재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Herman Richtenberger, 튀빙겐 대 신학부교수, “독일 재 통일과 독일 교회의 역할” 기독교 법률가회 주최, 2022년 10월6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 기독교법률가회 비전 센터. 이 강연회에 제가 참석해서, 짧은 질문을 하고, 정성어린 대답을 듣게 된 데 대해서, 기독교 법률가 회(Christian Lawyers Fellowship)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리히텐버거 교수께도 물론 감사를 드린다.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동 유럽 -러시아 사회에 개방에 이어서, 인류의 문명 사회에 등장 하였다.

5.1 <인디펜던스 데이>(Independence Day)

1996년에 출시된 <인디펜던스 데이>(Independence Day)라는 끔찍한 영화가 있었다. 그 스토리는 외계인의 침략에 관한 것이었다. 외계인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 많은 지구인들은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상주의자들에게 이들을 적대시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단지 꿈같아 보이던 외계인들과의 만남을 낙관하는 지구인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로렌스 레식 ;1999/ 김정오 ; 2000) (김 철, 2007ㄴ: 497).

그러나 외계인이 나타나고 열렬한 환영이 끝난 직후 분위기가 바뀐다. 곧 지구의 지도자들은 이 외계인들의 의도가 우호적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실 이들의 의도는 매우 위험스런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어 지구는 함락된다. 제프 골드브럼만 유일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감지한다. 물론 그는 항상 제일 먼저 알게 되지만.(윗 책) (김 철, 2007ㄴ: 497).

비록 나(Lawrence Lessig; 1999)는 그렇게까지 끔찍하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내 이야기도 이와 유사하다.

<인디펜던스 데이>에서 지구인들이 외계인들을 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인터넷을 적극 환영하였고 기뻐하였다.

우리는 그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물음도 없이, 인터넷의 성장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였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역시 잠재된 위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 그 자체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통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질문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레식 ;1999)(김 철, 2007ㄴ: 498)

5.2 우크라이나 2022년 2월 24일 이후

1989년 가을에 개방이 시작된 동유럽과 러시아의 “새로운 세계”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입으로, 33년 만에, 서방(the West) 대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파키스탄)¹⁷⁾가 각축하는 전쟁 터로 변화 하였다. 이 전쟁의 특징 중 과학과 기술이 관여 된 것은, 이 전쟁의 주도권이 점차

17)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 NYU economist)는 미국 vs. 중국 뿐 아니라, 서방과 대립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파키스탄을 포함한 수정주의자 세력들 (Roubini는 revisionist power 라고 부르고 있다) 사이에서 새로운 냉전 (a new cold war)이 대두했다고 한다.(October 18, 2022 Yahoo! finance)

로, 사이버 전쟁에서의 우위로 올라 갔다는 것이다.

영국(Britain) 국방성은, 금년 2월에 이웃 국가를 침공한 이후의 모스크바의 군사 전략과 전쟁 노력을 분석하여 소셜 미디어에 빈번한 최신 정보를 속속 주는 원천이 되었다. (Washington Post .Oct. 11, 2022)¹⁸⁾

GCHQ로 알려진 정부 커뮤니케이션 본부의 제레미 프레밍 (Sir Jeremy Freming , director of GCHQ)은, "국가 안보와 지정학의 컨텍스트에서 본, 진화하는 테크놀로지의 환경" 주제의 스피치를 했다.¹⁹⁾

프레밍 경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높은 사기가 승리의 열쇠이며, 영국과 동맹국들이 , 수 십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테크놀로지(cyber technology)를 전수하고, 첨단 장비와 정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안보가 실시간으로 강화됐고, 사이버 능력을 책임있게 사용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첨단 테크놀로지 능력이 뛰어나며, 러시아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cyber war)에서 이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EU(유럽 연합)는 무역과 경제 블록(trade & economic bloc)으로 창설되었지만, EU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에 자금을 주기위해서, 큰 금액을 책정 해 왔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 독재자의 침략 (an autocrat's aggression)과 민주주의의 “유럽적 가치”(“European values” of democracy) 사이의 실존적 다툼 (existential contest)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²⁰⁾

18) 영국(the United Kingdom)은 세 개의 주된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다. M16은 해외담당 정보 기구로, James Bond와 조지 스마일리(George Smiley)라는 가공의 인물로 유명해 졌다. M15는 국내 담당 기구인데, GCHQ로 알려진 정부 커뮤니케이션 본부이며, 도청(eavesdropping) 담당 기구이다. 잘 알려진 대로, 모든 정보 공동체(the entire community)는 비밀주의를 지킨다. "U. K spy chief : Russian military 'exhausted' , Putin's judgement 'flawed' (The Washington Post Oct.11 2022)

19) Sir Jeremy Freming , director of GCHQ , " Evolv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and geopolitics " Rusi Annual Security Lecture (2022 , 11. Oct. 2022 , Rusi .org)

20) Christian Science Monitor, 13 Oct. 2022

본 론

1. “과학 기술 문명의 인간과 윤리”

이제, 우리의 표제어로써의 주제 즉 “과학 기술 문명의 인간과 윤리” 로 돌아 갑니다.

저의 직업적 아이덴티티는 법학 교수이니까, 외국의 현역 법학 교수 중에서, “과학 기술의 윤리 ”를 주 된 영역으로 , 1990년 대 이후 현재 까지 활약하고 있는 교수 (1961년 생)를 찾아 보았습니다.

저는 세계 금융 위기 (2008) 이후 , 법과 경제 3부 작(김 철: 2009, 2010, 2014) 을 출간하였는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킨, 많은 요인들 중에서, 시장 만능주의, 또는 시장 근본주의에 대한 가장 현저하고 부인 할 수 없는 연구를 제공한 법학자는, 1999년에 처녀작을 낸 로렌스 레식(1961년 생)이었습니다. (Lessig, 1999)

1.1 사이버 공간(cyberspace)

레식 교수의 “과학 기술과 윤리” 영역에서의 최대 업적은, 사이버 공간(cyberspace) 에 대한 것이다.²¹⁾ 그러니까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의 윤리와 법 문제 라 할 만하다.

레식은 그의 필생의 영역인 “사이버 공간의 발견” 이, 1989년 가을 이후에 세계의 주목이 된, “동 유럽 러시아라는 새로운 사회”에 필적 한다고 한다.

레식은 어떻게 해서, 냉전 시대의 해체 이후에 전개된 “새로운 세계”와 1990년 대 중반 까지의 과학 기술의 결집인 “또 다른 새로운 세계”인 두 영역을 다 관계하게 되었는가?

순수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의 발견과 전개 및 윤리 ”는 “동 유럽 러시아의 체제 변환의 윤리”와는 아무 이론적 관계가 없는 듯 해 보인다.

세계사의 진행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계속된 냉전시대 (1947~1989) 이후에 도래한

21) 로렌스 레식(Lester Lawrence Lessig III, 1961~) 은, 1997년 ~2000년 3년 동안 하바드 로 스쿨의 교수로, 그 중 1년 간은 인터넷과 사회 센터(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에 연 계 된, 버크만 체어 교수직에 있었다. 2001년~2009년 6월까지 레식은 스탠포드 로 스쿨 교수 진에 가담했고, 인터넷과 사회 센터(Center for Internet & Society)를 설립하였다. 2009년 7월에 레식은 하바드 로 스쿨의 교수 및 에드몬드 J. 새프라 윤리 센터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 책 임자가 되고, 2013년에 로이 L 퍼만 “법과 리더 십” 체어 교수가 되었는데, 체어 취임 강의는 “아론 의 법 : 디지털 시대의 법과 사법”(Aaron's Laws: law and Justice in a Digital Age) 였다. 그래서, 레식은 1997년 이후 2009년 까지, 약 12년 간 처음에는 겨우 1년간 하바드에서, 다음에는 8년간 스 탠포드에서 “인터넷과 사회”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었고, 드디어 2009년 그가 대표작 “코드 :사이버 공 간의 법”을 출간한지 10년 만에 , 과학기술 윤리 문제를 연구하는 새프라 윤리센터(하바드 로 스쿨) 책 임자가 되고, 5년 뒤에는 “디지털 시대의 법과 재판” (information technology를 취급해서 한국에서 는 정보 관계 법이라고 번역한다.)을 영역으로 하는 체어 교수로 취임하였다.

동유럽 러시아의 체제 변혁(1989~)과 함께 서방인들 에게 나타난 동유럽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세계가 나타나고 , 1990년 대 중반에 드디어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나타 났는데, 이것이 사이버 공간의 도래였다고 한다.

그래서 로렌스 레식의 사이버 공간의 윤리(법 포함)의 최종 도달 점은, 과학과 기술(science & technology)의 내재적 발전의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역설적이지만,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또는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의 동 유럽 러시아 전역의 이른바 해방 공간 (liberated space)의 현장 관찰 및 새로운 공화국들의 체제 변혁의 경험에서 얻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경위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2. 1989년

1989년은 동 유럽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해 였고, 1990년 도이치 통일,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연결되었다.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문명세계를 양분하였던 냉전 질서가 와해 되었다.

2.1 해체된 동 유럽에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울까?

로렌스 레식은, 1989년에 로 스쿨을 졸업하고,²²⁾ 1991년~1997년, 시카고 로 스쿨의 동 유럽 입헌주의 연구 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Constitutionalism in Eastern Europe) 의 공동 연구 책임자로 있었다.²³⁾ 새롭게 전개되는 동 유럽 및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연구와 관찰²⁴⁾, 자문을 행 하였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사이버 공간의 발견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건과 필적한다고 얘기한다. (김 철, 2007: 481).

“1989년 봄, 유럽의 공산주의는 마치 버팀대가 뺏힌 텐트처럼 무너졌다. 나와 같은 헌법 선생들에게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로렌스 레식. 1999/ 김 정오 역 2000년)

22) 1989년에, 레식은 로 스쿨을 졸업하였고, 1989년에 저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러시아와 소비에트 법 제도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 하였다 (김 철, 1989) 89년의 동부 유럽과의 사태는, 저 에게도 “나날의 역사”를 체험하는 듯한 지적 흥분을 주었다. 세계 체계가 변화하고 있었다. (김 철, 1996, 2009)

23) 1991년~1997년, 레식은 갓 임용된 초임 교수로 “새롭게 전개되는 동 유럽 및 러시아에 대한 탐험가의 호기심”을 가지고, 시카고 발 동 유럽 행 비행기 안에서, 맛 없는 모닝 커피를 수 없이 마실 거의 같은 무렵에, 1991년~1995년, 저는, “새롭게 전개되는 동 유럽과 러시아에 대한 탐험가의 과학적 호기심”을 공유하면서, 그러나 직접 동 유럽 및 러시아 현장에 쫓아 가기 보다, 먼저 스승을 찾았다.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이후의, 서방 세계의 , 러시아 법 개척자 중의 가장 중요한 사람- 해롤드 J. 버만을 해후하였다 : 그의 “법과 종교”를 한국에 소개하고, 그의 비교법적 방법론을 한국 법학에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1991년, 6월13일 ~1995년 6월) 또한 1996년~1999년 한국에서 새롭게 설립된 국제 대학원에서 한국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동 유럽 러시아 법 강좌를 담당하였다.

24) 레식은 1989년 동 유럽 혁명의 현장으로 갔고, 저는 1989년의 동 유럽 혁명과 1991년 소비에트 러시아의 해체를 예견하고 있었던, 역사 법학자에게 간 것이다.

(김 철, 2002, 2007ㄴ: 481)

“연구소의 취지는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 우리의 목적은 변화와 발전 방법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관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변화를 이해하기를 원 했지, 변화의 방향을 잡아 주길 원치 않았다.”(1999년, 윗 책)

“우리가 목격한 상황은 이해 할 수는 있었지만, 충격적이었다.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처음에는 국가와 **국가의 규제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파도와 함께 정부에 대한 반감**이 팽배했다.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 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부가 하던 일을 새로운 사회인 시장과 민간 조직에게 맡겨라**. 공산주의가 몇 세대 지난 이후의 이런 반발은 충분히 이해 할 만 하였다.(지난 날의) 당신네들의 압제 장치와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1999년 윗 책)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에는 과거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려는 미국인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의 자문은 장황했고, 어리석기까지 했다. 그 들은 입헌주의가 잘 기능하는 나라에서 왔지만, 왜 잘 기능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었다. 몇몇 미국인 방문자들은 신흥 입헌 공화국에 말 그대로 헌법을 팔아먹었다.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 가에 관한 설익은 생각들이 무수히 많았다. (레식; 1999, 번역본 김 정오 2000) ”(김 철, 2007ㄴ: 482)

“자유지상주의라는 미사여구. **시장이 지배하게 하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라. 그러면, 반드시 자유와 번영이 성숙할 것이다.** 모든 것들은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국가의 지나친 규제는 필요없고, 들어설 여지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스스로 해결되지 않았고, 시장이 변창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불구가 되었으며, 불구가 된 정부는 자유에 대한 만병 통치약이 아니었다. 권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정부에서 마피아로 옮겨갔으며, 때로는 국가에 의해서 마피아가 조성되었다. 치안, 사법, 교육, 의료 등 전통적인 국가기능의 필요성이 마술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적 이익들도 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적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았다. 사회의 치안이 사라졌다. 지금의 무정부 상태가 이전 세 세대의 온건한 공산주의를 대체하였다. 변칙이는 네온사인은 나이키를 광고하고 있었고, 연금생활자들은 사기 주식 거래로 생계비를 다 털렸으며, 은행가들이 모스크바 거리에서 흰한 백주에 살해되었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이 또 다른 것으로 대체 되었지만, 어떤 시스템도 서구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체제는 아니었다.**”(김 철, 2007ㄴ: 483-484)²⁵⁾

25) 1999년에, 레식은 “코드와 사이버 공간의 법”(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를 출간하였다.

여기에서, 레식은 당시 역사의 실험장 (Harold Berman / 한국어 김 철)이었던, 동 유럽 러시아의 이른바 자유화, 민주화 방향의 체제 변환 과정에서, 자유 지상주의 (libertarianism)이라는, 이후의 동 유럽 및 러시아 뿐 아니라, 동 아시아 (외환위기 : 1997~1998) 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어떤 것을 , 과학자의 정확성을 가지고 직접 목도하고 , 과학자의 양심으로, 증언 한 것이다.

3. 인터넷과 사회 윤리

레식은 1997년 ~2000년²⁶⁾ 3년 동안 하바드 로 스쿨의 교수로, 그 중 1년 간은 인터넷과 사회 센터(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에 연계 된, 버크만 체어 교수직에 있었다. (2001년~2009년 6월까지 레식은 스탠포드 로 스쿨 교수 진에 가담했고, 인터넷과 사회 센터(Center for Internet & Society)를 설립하였다. 2009년 7월에 레식은 하바드 로 스쿨의 교수 및 에드몬드 J. 새프라 윤리 센터 (Edmond J. Safra Center for Ethics) 책임자가 되고, 2013년에 로이 L 퍼만 “법과 리더 십” 체어 교수가 되었는데, 체어 취임 강의는 “아론의 법 : 디지털 시대의 법과 사법” Aaron's Laws: law and Justice in a Digital Age 였다.

3.1 “위험한 세계적 작가” (레식,1999)

어느 날 밤 모스크바에 사는 16세의 소녀가 제이크의 소설을 읽었다. 그녀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미시간 대학 졸업생인 리처드 뒤발에게 보여주었다. 뒤발은 그 소설에 충격을 받았고, 그 계정에 'umich. edu'라는 꼬리가 붙어 있음을 보고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의 모교에 전화하여 항의하였다. 미시간 대학 당국은 그의 항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김 철, 2007ㄴ: 489).

대학은 경찰에 통보하였으며, 경찰은 작가인 제이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에 구속하였다. 많은 의사들이 베이커를 검진하였고, 몇몇 의사들은 그를 위험한 인물이라고 진

저는 , 이 책이 연세대 법학과의 김 정오 교수에 의해서, 2000년에 완역되어서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 이론”으로 나왔을 때, 서평을 썼다.(김 철, 헌법학 연구, 2002.4 : 273~290)

이 책에서, 로렌스 레식 교수가 공산주의 이후의 동부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나키적 현상을 직설하였고, 저는 무릎을 칠 정도로 공감하였다(김 철, 2007ㄴ: 482).

계속된 나의 연구는 레식의 사이버 스페이스의 윤리와 법에서 표명된, 새로운 가치가 , 예를 들어서,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법과 경제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 가를 될 수 있는 가를 시도 하였다.

26) 저는 1996년 ~ 1999년, 3년 동안 , 한국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설립 지원 한 국제 대학원 중 한 학교 에서 동 유럽 러시아 법 특별 강사로 , 1989년 이후의 동 유럽 및 러시아의 해체와 형성 과정을 정리 할 기회를 가졌다. (김 철, 2007ㄴ: 481-482).

단하였다.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특히 경찰이 그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제이크와 그의 캐나다 독자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발견한 후에 구속이 이루어졌다. 그 독자는 사이버 공간에 발표된 이야기들 중 일부를 현실공간에서 실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적어도 이메일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두 사람이 실제로 범죄의사가 있었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다. 제이크는 그것이 모두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했으며, 사실상 그의 기록들에는 완전한 허구가 아닌 어떤 것을 기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거의 없었다(김 철, 2007ㄴ: 489).

연방검찰청은 제이크를 교사범으로 기소하였다. 제이크는 자신의 이야기들이 단지 말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달 반 후에 법원은 제이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검찰의 기소는 기각되었다²⁷⁾(김 철, 2007ㄴ: 489).

3.2 폭력적 게임이나 또는 폭력적 영상이 청소년의 폭력을 유발하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논쟁

총과 폭탄 등을 사용한 살인, 파괴 그리고 위험한 경주 등이 만연한 게임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대표적 학자로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크레이그 앤더슨(Craig Anderson) 박사를 들 수 있다(박종현, 2012.9.14.: 2). 그

27) 비디오 게임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하는 공적 담론의 일종이라는 데 대해서는 ,

김 철, “폭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판례 : 네오리버탈리즘 ,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아노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 한국 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2012년 가을/겨울 통권 42호

2011년의 폭력적 비디오 게임 규제에 반대하는 미국 대법원 다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언론의 자유 조항은 공적 문제들에 대한 담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심지어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엔터테인먼트(책, 연극, ……영화, 비디오 게임)도 공적 담론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다수의견은 강조한다.”결국 비디오 게임은 표현의 자유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김 철, 2014: 236)

2.1.1. 반론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문명국가의 미성년들이 탐닉하는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과연 인류가 전제군주로부터 자유를 원할 때의 공적인 담론을 보호하는 목적이었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들어갈 것인가. 결국 이 판례대로라면 미성년자들의 폭력적 비디오 게임과 근대 및 근대 이후의 정치적 자유 획득을 위한 공적인 담론이 같은 성질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김 철, 2014: 236)

2.1.2. 공적인 담론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조항이 과연 상업적 메시지(commercial speech)에 속하는 광고, 홍보, 기타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공공적 성격이 낮은 상업용 콘텐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폭력적 비디오 게임이, 상업용 콘텐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광고나 홍보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공적 성격이 아주 낮다고 얘기할 수 있다(김 철, 2014: 236-237).

2.1.3. 또한 가장 중요한 지적은 미디어의 성질에 대한 것이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책, 연극, 영화, 비디오 게임은 열거하고 있는데(연방대법원 다수의견), 치명적인 점은 미디어의 성질에 따른 구분(Printed Media인가 Image Media인가, Cool Media인가 Hot Media인가에서도 정도의 문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 철, 2014: 237).

리나 끊임없이 이에 반대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Lawrence Kuther & Cheryl K. Olson, Lillian Bensely & Juliet Van Eenwyk, 2001)(Mark Griffiths, 2005).

이 문제는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방법론이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방법론과 전혀 같을 수가 있느냐는 과학사와 서양 법 과학의 원천 시대의 법 과학의 방법적인 특징 문제로 귀착한다(Harold Berman, 1983).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물론 구별하여야 하나,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인과관계가, 실험실의 실험관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관찰될 수 있는 인과관계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fact)의 인과관계는 경제사나 사회사에서는 최소 10년을 한 주기로 하고, 어떤 때에는 30년을 한 주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역사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물리학이나 화학, 공학에서의 인과관계 증명 방식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과학을 존재하게 하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원인이 실험실에서의 인과관계와 같을 수 없다면, 동시대에 있어서 같은 의식을 가지는 문명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일종의 사회적 실험(social experimentation)을 거치는데, 이 **사회적 실험**은, 실험실에서 짧은 시간에 테스트할 수 있는 효과와 달리 더 넓은 실제 실험장인 사회에서²⁸⁾ 더 긴 시간을 두고 그 스스로의 효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법의 실험은 일종의 “역사라는 실험실(laboratory of history)”에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Berman, 1983)(김 철, 2014: 237-238).

4. Covid-19 이후의 과학 기술 (Science & Technology) 과 그 사회적 맥락.

4.1 진실을 말하는 영웅 (heroic truth teller in China)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 할 때, 의학 및 의료 과학 기술과 그 사회적 맥락 (social context)은 앞으로 정리 되어야 될 엄청난 과제이다. 문명 세계가, 일차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Covid 19을,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세계 보건 기구가 인지하고 선포하는 과정이 지체 되지 않았나? 의 물음에 관한 것이다.

2019년에 최초의 발병지로 보고되었던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견자였고, 따라서 선구적인 과학자라고 할 만한 의사였던, 리 웬량 (Li Wenliang)은, 중국에서도 “영웅적인

28)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 “미국의 ‘영원한 내전’ --- 지난 해 2만 명이 죽었다.” (한겨레신문, 2021년 3월29일 월요일 25면) 2020년 거의 2만 명의 미국인이 총기 폭력으로 숨졌다. 팬데믹과 경제적 봉쇄(lock down)도 미국인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막지 못 했다. 여기에는 매년 총으로 자살하는 2만 4천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은 평균적으로, 100명 당 총 120정을 갖고 있다. 폭도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사당을 습격한 2021년 1월에, 미국인들은 200만개 이상의 총을 구입했다. 이들 총기 소유자들은 많은 정치적 힘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중 하나인 전미 총기 협회(NRA)는 500만 회원을 자랑한다. 미국 문화는 비디오 게임, 할리우드 영화부터 사냥, 페인트 볼까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진실을 말하는 자” (heroic truth teller) 로 간주된다.(Nytimes 2022.10.06)

그러나 그는, 당국에 의해서 처벌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임박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그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중 환자가 되었으며, 그 때 막 대두되기 시작한 세계적 유행 (pandemic)의 희생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과학자 (의학자)와 정치 체제 (법 체제)” 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는 사건이었다.

4.2 중국과 테크놀로지

중국은, 70년 대 말의 개혁 개방 이후, 교육 투자(investing in education), 산업 발전 (developing industry) , 현대 과학 기술(modern technology)의 성장을 통해서, 군사력을 건설(building military) 해서, 마침내 초 강대국(Super Power)가 되었다.

이른 바, 대국 굴기의 이 전 과정의 중심에, 과학기술(technology)이 위치했었다.

현대 중국인들도, “어떻게 뜻을 통하는 가? 소통의 문제”, “어떻게 장사(trade)하는 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 하는 가?” “어떻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가?”의 전 과정에서, 다른 문명 세계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technology) 즉 사이버 스페이스(cyberspace)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초 강대국 중국이, 그의 잠재력에 맞도록 일어 서는 것은, 중국 인과 중국인 공동체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인류 공동체의 생활에 기여 하는 정도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과학기술(technology) 양성이, 세계의 테크놀로지 생태계 체계 (echo system) 에서의 전략적 우위 (strategic advantage)가, 목적이라면?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힘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잘못 쓰여 진다면?

서방 국가들은 과학기술을 더 큰 자유, 더 큰 번영과, 더 큰 협력을 위한 방법 내지 도구(tool)로 보고 있다 : 중국 리더 심은, 테크 놀로지를 , 세계 시장과 세계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그들 시민들에 대한 통어력(control)의 잇점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본다. (Jeremy Fleming ,Oct. 11, 2022)²⁹⁾

4.3 유럽 연합의 입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아엔 (Ursula von der Leihen) 유럽 연합 (EU) 집행위원장은 10월 21일(2022년), “유럽의 중국에 대한 테크놀로지, 원자재 의존이 위험하다”며, “의존을 매우 경계 해야 된다”고 말 했다. 그녀는 부뤼셀에서의 EU 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화석 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필요한

29) Jeremy Fleming , " If China is the question, What is the question ? " RUSI Anual Security Lecture 2022 with Sir Jeremy Fleming , Director of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on the evolving technological envirenment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and geopolitics.

것인지 교훈을 얻었다.”라고 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지배력과 세계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EU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고했다.(2022.10.22 뉴시스 kyustar@newsis.com)

5. 코로나 시대의 평가 : 의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의 종합적 평가

의학을 중심으로 한 과학자 (보건학, 임상의학, 전염병학, 영양학)들의 종합적 평가. “무엇이 미국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창궐국이자 희생국으로 만들었나?”

무엇이 미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pandemic)의 최대 창궐국으로 만들었나? 2022년 10월 22일 기준으로, 코로나 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통계(구글 검색)에 의하면, 전 세계 확진자 6억 3천만 명, 미국 확진자 9천 9백만 명, 사망자 전 세계 658만 명 미국 109만명으로 추계된다.

이 숫자는 미국 군이 세계 제1차 대전(1917-1918; 희생자 116,516명), 세계 제2차 대전(1941-1945; 희생자 405,399명), 한국 전쟁(1950-1953; 희생자 36,574명), 베트남 전쟁(1961-1975; 희생자 58,209명)에서의 희생자 총수와 비교할 때³⁰⁾,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무엇이 미국을 코로나 (covid-19 pandemic)의 최대 창궐국으로 만들었나?(김 철, 2023: 3)

5.1 랜싯 위원회의 구성

랜싯 위원회(Lancet Commissions)는 2017년 4월에 구성되었으며, 구성 당시의 구성원의 전공은,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공중 보건, 임상 의학, 역학(epidemiology), 의료 정책(medical care policy), 영양학, 법학, 경제학, 정치학이며, 근무처는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원주민 공동체, 임상 기구와 공중 보건 기구, 노동조합, 그리고 입법기구들이었으며, 전국 간호원 연합, 원주민 사회 연구자를 포함한 33명이 참여하였다(김 철, 2023: 5).

2021년 2월 보고서 발표 당시의 랜싯 위원회는, 좁은 의미의 공중 보건 관계 기관, 즉 의과 대학(medical school)에서의 본래적 의미의 임상 의학, 즉 의과 대학의 내과학(호흡기내과)과 종양학 분과, 감염병 또는 역학(epidemiology) 부터 시작해서, 본래적 의미의 공중 보건(public health)을 다루는, 종합 대학교 소속의 공중 보건 대학원(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들, 그리고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공중 보건을 다루는 “보건 및 인권(Human Right)을 위한” 자비에르 백 누드 센터(Xavier Back Noode Center 하버드 대학교), 더 나아가서 “이주 및 난민 임상 프로그램”(하버드 로스쿨) 또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세계 보건 및 공통 선(common good)을 위한 프로그

30) 약 63만 5천으로 추계 된다.

램”(보스턴 칼리지; Boston College Law School)와 같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의료 인적 자원 중 가장 기본에 속하는 전국 간호원 연합(National Nurses United), 또한 원주민 연구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김 철, 2023: 5).

코로나 19 팬더믹 현상을, 의과대학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의료 문제로 파악하고, 공중 보건 대학원은 공중 보건 문제로 파악한다. “보건의 문제” 뿐 아니라 “인권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종합대학교 연구 센터가 있으며, 또한 코로나 19 현상은 이주민 난민 프로그램과 관계 있다고 보는 프로그램을 가진 로스쿨이 있으며, 코로나 19 팬더믹의 문제를 한 나라의 문제로 보지 않고, 즉, “세계 공중 보건 및 공통 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는 보편적 시점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김 철, 2023: 5).

이 위원회의 공동 의장(Co-chair)들의 다수가, 임상의학, 역학(epidemiology) 전공의 의학 전문가³¹⁾와 보건학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공중 보건 정책의 사회성과 국가 정책적 성격 때문에, 2021년 2월 11일에 발표한 “트럼프 시대의 공공 정책과 보건 보고서”는 점점 더 국가 정책 전반의 거시적 분석과 역사적 전망을 밝히게 되는 순서를 보여준다(김 철, 2023: 5).

5.2 랜싯 보고서(2021년 2월 10일 기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법이 달랐다면 사망자의 40%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김 철, 2021: 8).

보건학 보고서 랜싯(Lancet Commission, Public Policy and health in the Trump era, 2021. 2. 10.)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보건정책 분석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간과했으며, 건강보험 정책을 개편해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줄면서 공공보건의 취약해졌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다른 주요 7개국(G7) 수준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다면 16만명은 숨지지 않았다는 게 랜싯 위원회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지난 2018년의 기대수명이 G7 국가 평균과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보건 정책이 달랐다면 사망자 46만1천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의 사망률과 비교 분석했다. 미국에.....서는 (이 보고서 발간일까지, 2021년 2월 10일 기준) 코로나19로 47만명 넘게 사망했으며, 몇 주 내에 50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2월 현재). 또 누적 확진자는 약 2천700만 명으로, 사망·확진자 모두 전세계에서 가장 많다.

31) 구성원의 소속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 부분의 연구자는 의학 학위(medical doctor, MD)이고, 간호학 영양학 및 법학과 다른 사회과학(경제학과 정치학, 정책학)이 소수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음모론을 퍼뜨리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았다.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랜싯 위원회는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오 외에도 미국의 공공보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지지 않아 팬데믹 사태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2019년 미국의 공공보건 예산은 캐나다와 영국의 절반 수준인 3.21%에서 2.45%로 떨어졌다. 랜싯 위원회 추산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230만명이 늘어났다. 인종별로 2017~2018년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라틴계에서 1.6% 포인트(약 150만명)가 떨어졌으며,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계에서는 2.8% 포인트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백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기존 비율을 유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6~2019년 사이 환경·직업 요인에 의한 사망자가 2만 2천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전까지 사망자는 감소 추세였다.³²⁾(연합뉴스, 2021. 2. 11.)

6. 테크노로지 주도 사회의 새로운 권위의존주의³³⁾의 대두(2016~)를 과학자들³⁴⁾은 어떻게 파악하였는가?

32) 랜싯 위원회의 공동 의장들이 대표하는 공중보건 관계 기관은 다음과 같다. 뉴욕 시립대학 헌트 칼리지, 도시 공중보건 대학원; 하버드 의과대학, 캠프릿지 보건 연합; 하버드 로스쿨, 하버드 이주 및 난민 임상 프로그램; 하버드 대학교, 보건 및 인권을 위한 자비에르 백 누드 센터; 마이애미 대학교 밀러 의과대학 일반 내과학과 중양학 분과; 보스턴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콜롬비아 대학교 메일 맨 공중보건대학원; 보스턴 칼리지, 세계 공중보건 및 공통선을 위한 프로그램; 전국 간호원 연합; 뉴욕 주의회의 보건 위원회.(The Lancet Commissions, Feb. 11. 2021.)

33) 물론 서방의 학자들(스웨덴의 Lund, 캐나다의 Altemeyer,)의 2016년 이후의 일차적 관심은, 아메리카에 이변을 불러 이르킨 트럼프와 그의 적지 않은 추종자들이었다. 물론 심리학사에서는, 2차 대전 전후 청산 문제와 관련된 인종적 편견과 전쟁 중의 holocaust와 관련된 전범자(Eichman)에 대한 Adorno (1950)등의 연구가 선행되고 있다.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는 물론 러시아의 Putin과,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이 사회심리학자들의 똑 같은 연구 대상이 된다.

34) 과학자들(scientists)은 일상 흔히 쓰이는 어법으로는, 자연 과학자 (natural scientist)를 일차 적으로 의미한다. 사회과학(social sciences)은 대학이나 학문 세계에서는 자연 과학에 대비되는 용어로 쓰이나, 정치학자, 사회학자가 “우리는 과학자입니다” 라고 늘 하지는 않는 것은, 사회과학에는 역사와 철학이 포함되어서, 그 방법 론이 순수 자연 과학과 완전히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이 “과학성”을 표방 해 왔으나, 세계 금융 위기(2008~) 이후, 역사와 철학이 강조 되게 되었다. 학자의 세계 관이나 역사 관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중립성 (neutrality)을 강조하는 것이 학문의 “과학성” 논의의 핵심이나, 세계 금융 위기 이후의 경제학의 시기별 시대별 편향성과 정파성 때문에, 어쨌든,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 심리학의 사정은 어떤가? 대학에서의 심리학의 경우, 실험을 통한 연구 경향 때문에, 가장 철학이나 역사나 인문 쪽에서 멀리 떨어진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대학의 경우, 심리학은 , 다른 사회과학에 기초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기초 과학으로 자리 잡고 있고, 어떤 경우 자연 과학 (natural science faculty)에 소속하기도 한다. 우리가 “과학과 테크놀로지” 라고 할 때, 이 science에 , psychology를 포함 시킬 것인가? 한국 대학은 심리학과(관련 강좌)를 사회과학대학(서울 대 기타) 또는 사범 대학(교육심리학), 의과 대학(임상심리학)에 두고 있어서, 일반인의 직관으로는 힘 들 수 도 있으나, 한국이나 미국 또는 서방의 심리학자(psychologist)에게, 당신은 과학자 입니까? (Are you scientist?) 묻는 것은, 기초 의학이나 임상의학에게, 당신은 과학자 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대답을 얻을 것이다.

6.1 경제사가 아담 투즈

경제사가 아담 투즈는, 2008년 9월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Adam Tooze : 2018)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사의 흐름을 추적하고, 1930년 대의 대공황은 히틀러를 낳았고, 2008년 이후의 세계 금융 위기는 트럼프로 연결된다는, 대역사 얘기를 하고 있다 . 35) 2018년은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한 해이고,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2022.02.24)하기 4년 전이다. 다음의 투즈(Adam Tooze)의 문장 역시 2018년 당시의 신예 경제 사학가의 위기 의식을 표현 한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를 시작한 2008년 리먼 사태 직후, 유엔 총회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미국식 일방주의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미국이 근대성과 투명성, 자유, 세계주의를 전파하며 최강 대국의 위용을 뽐내던 시기는 금융위기와 함께 막을 내렸다고 그들은 선언했다. 미국 유권자 대부분은 2008년 미국 대선까지 뭐가 잘못 됐는지도 알지 못했다. 냉전 시대(1947년 트루만 독트린~ 1991년 12월 26일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아메리카 주도의 금융 질서는 금융위기와 함께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였다”(애덤 투즈/ 우진아 : 2019)

“금융위기가 만든 미국의 새로운 경제적 토대는 제조업의 몰락을 가져왔고, 러스트 벨트를 폐허로 만들었다. 실리콘 밸리에서만 젓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서_미국인들은 적응하지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약 8년이 흘러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일련의 사건은 하나로 연결된다.”

6.2 정치적 특징

포퓰리즘으로써의 트럼프즘은 권력의지(Wille zur Macht)를 핵심으로 한다

“..... 트럼프의 과격한 행동이나 선동의 중심에는 정책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순전한 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Adam Tooze, 2018: 804)

“그는 성공한 사업자이자, 10년간이나 인기를 끌어왔던 TV 쇼의 진행자로서 처음에는 기득권층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즉 연준 의장을 공격한다든지, 골드만 삭스 CEO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든지 해서, 대중에게 어필했다. 그러나 일단 권력을 잡자, JP모건과 손을 잡았다. 이제,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무소불위의 1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관된 정책이 있을 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오바마의 유산을 전복하

35) 물론 (1930년 대의 대 공황, 도이치, 히틀러) 라는 묶음은, (2016년~2021년 아메리카, 트럼프)라는 묶음보다는 , 정치체제(전체주의 또는 독재)와 법 체계를 감안하면, (2022년 중국, 시진핑의 3선) 또는 (2022년 2월24일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입)의 옆에 놓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는 것에 전력을 다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교정적 역할을 했던 오바마 정책 시대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했다.

6.3 권위의존주의 에 대한 정치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트럼프즘은,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심리학적으로 증명된³⁶⁾, 권위의존주의의 변종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푸틴은 어떠 할까? 또한 3연임 이후의 시 진핑은 어떠한 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2월에, 당시 중립국 스웨덴의 심리학자 막누스 린든(Magnus Linden, Lund University ; 2017)은, “트럼프의 아메리카와 권위의존적 성격 (authoritarian personality)”를 발표 했다.(The Conversation , Feb.16, 2017)

히틀러의 Holocaust의 공포 이후에, 심리학자들은 왜 어떤 개인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authority figures)이 내리는 명령에, 그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 인도주의적인 (humanitarian) 가치를 희생해야 되는 경우까지도, 순종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조사하였

36) 2차 대전 중의 전쟁 범죄와 관련된 권위 의존적 인성에 대한 원형적 연구(아도르노, 1950)

신성 로마제국 이후 중세 유럽의 주된 세력 중의 하나였던 자랑스러운 게르만 민족의 제3제국은 1930년대 후반에 성립해서 1945년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기까지 인간의 역사상 전례 없는 인종주의에 의한 특정 인종의 말살 정책에 경도된 병리적 국가가 되었다. 하인리히 하이네의 나라, 괴테의 나라, 그리고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활동영역이었던 이 문화 민족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구약의 주인공이었으며 예수의 선조였던 유대민족을 600만이나 그것도 살인의 신속성을 위해서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살인 공장을 그들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관리기술을 써서 유럽 대륙의 중심부에 운영하였던 것이다(김 철, 2002; 김 철, 2007: 324-325).

2차 대전 이후 소수민족의 국제적 조직과 도이치란트 내부의 내성적인 학자들과 그리고 국제적인 대학 관계자들의 큰 작업 중의 하나가 다음과 같은 의문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 어째서 도이치 제3제국은 이와 같은 도살공장이 되었으며 왜 어째서 대부분의 도이치란트 국민들은 침묵하거나 방관하거나 순종하였는가?!”(김 철, 2002; 김 철, 2007: 325)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버클리 대학의 여론연구소(The Berkeley Public Opinion)와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조사연구소(The Institute of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Frankfurt)가 공동으로 여러 과학분과를 학제적으로 통합하며 제각기 다른 연구방법을 통합하는 노력을 행하였다. 버클리 여론조사 연구는 사회 심리학의 관점에서 편견의 조사에 종사했으며 마침내 뚜렷한 사회적 편견과 어떤 인격적 특징간의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이 인격적 특징은 예를 들면 불관용과 같은 비합리적으로 비판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바대로 파괴적이며 니힐리스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조사 연구소는 이론적이며 방법론적인 원칙을 개발하는데 헌신하였다. 이미 1939년에 심리학적인 경향과 정치적인 편향을 연결하는 “권위주의적 인간형이라는 개념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1949년에 반유대주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프로젝트를 발간하였다. 4년 뒤 양 대학의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업적을 내놓기에 이르렀다.1)(김 철, 2007: 325)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가 편집한 “편견에 대한 연구” 시리즈가 그 업적 중의 하나인데 그 첫 번째 연구가 『권위의존적 인간형』(The Authoritarian Personality)은 아도르노(T. W. Adorno)들에 의해서, 『편견의 역학』(Dynamics of Prejudice)은 모리스 야노위츠(Morris Janowitz)들에 의해서, 『반유대주의와 정서적 무질서』(Anti-Semitism and Emotional Disorder)는 나산 에커만(Nathan W. Ackerman)들에 의해서, 『파괴의 연습』(Rehearsal for of Destruction)은 폴 매싱(Paul W. Mas sing)에 의해서, 『사기 예언자들』(Prophets of Deceit)은 레오 로웬달(Leo Lowenthal)에 의해서 진행 되었다(김 철, 2002; 김 철, 2007: 325-326)(김 철, 2023: 14-15).

다.

2차 대전 또는 이후의 전쟁을 제외하고, 전시가 아닌, 민간 정부 상황에서, 군부의 잔혹 행위(military atrocity)에 해당하는 예로, 2017년의 Linden은, 트럼프의 행정 행위에 의한 미국 국경 순찰대의, 이민자 입국 금지나, 5세 소년에 대한 수감 채우기를 들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월24일에 시작된 푸틴의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 언론에 보도된, 러시아 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비 군사요원, 민간인과 거주 공간, 학교와 의료시설, 민간인들의 생활의 인프라인 전기 발전 시설에 대한 무차별 폭격과 전쟁 포로 학살 혐의 등은, 2차 대전 이후의 주목 할만한, 전쟁 범죄와 인도주의적 잔혹 행위(atrocity)로 간주 되고 있다.

마그누스 린든의 연구 대로, 트럼프즘(2016~)이, 권위의존주의(authoritarianism)의 한 변종이라면,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의, 러시아의 푸틴은 또 다른 방향에서 병리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권위의존적 성격 (authoritarian personality) 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심층 심리학적으로 특화된 권위의존주의 (Authoritarianism)의 두 가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4 좌파 권위의존주의와 우파 권위의존주의는 심층 심리학에서 볼 때 같은 특징이 있다

즉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의 경직성(rigidity) 과 극단성(extremity) 또는 양극성(polarity)에서 그렇다. (Shils, 1954: Lipset, 1960)

도덕적 판단의 경직성(rigidity)과 극단적(polar)인 도덕적 판단(moral judgement)은 ; 우파 쪽(on the right)의, 반동 심리적 편견(prejudiced reactionary)에 국한되지 아니 하고, 어떤 문화적 환경에서는 좌파 쪽(of the left)의 교조주의자(doctrinaires)에서도 발견 될 수 있다. (Ithiel De Sola Pool, et al. : 1973, 791)

6.5 권위의존적 인성 연구를 트럼프즘 연구에 연결시키다(알테마이어, 2018)

캐나다의 마니토바 대학의 심리학자 알테마이어(Altemeyer, 2018)는 트럼프즘 연구를, 권위의존주의 연구와 연결시키고, 더 진행시켰다.

아도르노 등에 의해서 확인된 퍼스널리티 타입은, 아홉 개의 특징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 특징들은 아동 시절 또는 성장기의 경험의 결과로서, 같이 응집된다고 믿어졌다. 이들 특징들은 1.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관행에 잘 따른다는 의미에서의 인습주의(conventionalism), 2. 권위의존적 복종과 3. 복종의 결과로서의 공격(authoritarian submission and aggression), 4. 미신 또는 사교(superstition)에 잘 끌려드는 성향, 5. 상투적인 것만 쫓는 스테레오 타입형(stereotype) 성격 6. 힘(strength)의 숭배와 강건

성("toughness")에 대한 선망, 7. 파괴성(destructiveness)과 냉소주의(cynicism), 8. 투사(projection)의 높은 경향, 9. 성(sex)에 대한 과장된 관심 등을 말한다.

위의 특징 중에서, 아도르노 등은 반 유대주의와 파시스트 특징에 이바지한다고 믿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측정하려는 동기를 가졌었다.

6.6 F-scale을 세련화시켜서 RWA(right wing authoritarianism: 우파 권위의존주의)라고 이름 붙임

우파 권위의존주의(right wing authoritarianism)의 개념은, 1981년에 캐나다의 심리학자 알테마이어(Bob Altemeyer)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이것의 원형은 1950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과 버클리 대학 공동으로 개발한 권위의존적 인격(authoritarian personality)으로서 이 원형의 F-scale을 더 세련화시켜서, RWA(right wing authoritarianism), 즉 우파 권위의존주의라고 새롭게 이름 붙인 것이다.(Altemeyer, 1981)

권위의존적 성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의 원형 모델에서 제시한 아홉 개의 가설적 요인 중에서 세 개(세 가지 차원)가 서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① 권위의존적 복종(authoritarian submission): 권위에 대한 복종, ② 권위의존적 공격(authoritarian aggression): 즉, 권위가 시인한 경우의 공격적 행태, ③ 고도의 인습주의(conventionalism): 즉, 이미 무가치한 전통과 가치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연구된 반사회적 성향과 태도 중에서, 우파 권위의존주의가 악명 리스트에 확정적으로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Linden, 2017). 우파 권위의존주의자들(RWA 스케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더 인종주의적이며, 더 차별적이며, 더 공격적이며, 더 비인간적이며, 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더 성 차별적이다.³⁷⁾ RWA들은 또한 덜 동정적이며, 덜 이타적이다. 또 다른 RWA의 특징은 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권위를 가진 주체의 언동을 기초로 그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결과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RWA 높은 점수를 받은 자는, 비도덕적이나 비윤리적인 명령에 보다 더 잘 따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실험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밀그램 복종 실험"(Milgram obedience experiment)을 비디오 환경에서 복제한 실험에서, RWA 고득점자는 그들의 피 실험자에게 더 강한 전기 쇼크를 기꺼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6.7 RWA 고득점자와 반 민주주의적 성격(Linden, 2017).

이론적으로 알테마이어 연구에 의한 RWA 척도의 고점자는, 1950년대의 아도르노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가 제시한 반 민주주의적 성격(anti-democratic personality)과

37)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알테마이어가 개발한 RWA 측정 스케일이며, 물론 정도를 재는 높낮이의 척도를 쓴다.

같은 줄에 서게 된다. 즉, 연구 결과에 의하면, RWA의 특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더 반 민주적이다. 예를 든다. 1) 시민적 자유의 제약에서, 2) 감시의 문제에서, 3) 사형 문제에서, 4) 망명 신청자에 대한 강제적 구류 처분에서, 5) 전쟁 기간 중의 고문의 사용에서.

그래서 스웨덴의 심리학자 마그누스 린든(Magnus Linden)은 아메리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2017년 초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RWA는 민주사회에 위협이 될 것인가? 대답은 전반적으로는 관망세였지만, 그러나 가설적으로 대답은 예스였다. 이 대답은 모두가 현장 연구 또는 조사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Linden, 2017).

대학 학생들을 모 집단으로 한 현장 연구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권위의존주의 적 태도의 정도가, 위협이 없는 평상시의 상황 보다도, 테러 집단에 의한 공격이 있을 직후에 더 높아졌다. 이 현장 연구가 지지하는 발견은, 바깥 세상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고 인지될 때 RWA 즉, 우파 권위주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심리적 반응이 사람들의 정치적 선택, 즉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파괴적인 정치 리더(leader)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첫째로, 환경의 조건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리더와 추종자들이 환경적 조건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유독한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다. 높은 정도의 위협을 경험한 사회가 삼각형의 한 면이며, 자해적이며, 증오를 퍼뜨리는 정치 지도자가 다른 한 면이며,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반사회적 가치를 가진 추종자가 다른 삼각형의 한 면이다. 이 유독한 삼각형의 구조가, 파괴적인 정치적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6년 12월 미국 대선 이전에 이미 진행된 유독한 삼각형 구조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으로의 선출을 통계적으로 예언하는 데 있어서, 아도르노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다시, 시대에 맞게 세련화시킨 알테마이어가 사용한 주된 개념인 “권위의존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RWA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힘(hegemony)을 과시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고취될 때는, 비윤리적 결정이라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그들의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행동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사회를 위계질서(hierarchy)의 사다리 꼴로 보고 있고, 우세 집단에 의한 열등 집단의 지배는 정당화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영역에 있어서의 보다 더 전문적인 실험 심리학자들은, RWA 고점자나 다른 반 사회적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권력에 의해서 괴롭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직업들을 더 잘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래는 권위의존주의의 지도자 (leader)나 추종자 (follower)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 한 가지 종류의 권위의존적 성격(one kind of authoritarian personality)이 있다고 추측되어졌다. 그러나 권위의존적 문화에서 추종자와 리더들이 보통은 다른 타입의

권위 형들이라는 것이 샘 맥파랜드(Sam McFarland)의 연구에 기초해서 밝혀졌다.

6.8 고전적 정의에서의 우파(right wing)와 좌파(left wing) (Altemeyer, 2018)

RWA에서의 우파(right-wing)라는 어휘는, 특별한 정치적 믿음이나 신조가 관계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평등(equality)과 위계질서(hierarchy)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관계 있다.

좌파 (left-wing) 의 고전적 정의는, 사회적 평등(social equality)을 믿는 사람을 지칭한다. 우파(right-wing)의 고전적 정의는 사회적 위계(social hierarchy)를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

알테마이어(Altemeyer)에 의하면, 우파 권위의존주의자들 (right wing authoritarians)은, 사회에서 확립된 기득 권위(established authority)에 복종한다. 좌파 (left wing) 권위의존주의는, 기성 권위(establishment)를 전도시키기 원하는 권위에 복종한다. 알테마이어(Altemeyer)는, “우파 권위의존자(authoritarians)는, 지배적으로 행동하는 지도자에게 끌린다”라고 한다. 이 지도자는 성격적(본성적)으로 평등(equality)을 믿지 않는데, 그래서 의존자와 지도자는 공통점이 있게 된다. 트럼프와 트럼프 추종자들의 관계이다.

독단주의(dogmatism) 스케일은 밀턴 로키치 (Milton Rokeach)가 개발한 척도로써 측정한다. 순수히 권위의존주의(authoritarianism)를 측정하는 스케일(Scale)의 개발로, 우파(right wing)이든 좌파(left wing)이든 이 스케일은, 이데올로기와는 관계 없이, 오히려 폐쇄적 심리 상태 (“closed-mindedness”)를 측정하기 위해서이다(김 철, 2023: 20-22).

6.8.1 공통점 : 판단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극단성

심층심리학적으로 특화된 권위의존주의의 개념 요소 중 하나는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의 경직성과 극단성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권위의존주의는 이른바 서구 역사에 있어서 나타난, 오른 쪽에 속하는 사회적 편견이 많은 이른바 “반 작용 (reactionary)”에뿐 아니라 왼쪽에 속하는 교조주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나 수정주의 위에 선 권위의존주의가 가능하고 파시즘이나 반 작용적 보수위에 선 권위의존주의도 가능하다. (위의 사람, 위의 책, p.791)(김 철, 2014: 364)

6.8.2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차별의 정도 : 공통점

이때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직성과 극단성뿐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에 대해서나 문화적 지도자에 대해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태도보다) 권위의존주의적 인격성을 정하는 더 큰 F스케일의 척도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차별하는 정도이다(김 철, 2014: 369).

내집단·외집단의 극단적 구별의 태도와 같은 것의 정도를 측정하는 스케일로서는 F스케일을 개발했다(Adorno, Frenkel-Brunswik and others, 1950). (김 철, 2014: 370).

6.8.3 내집단과 외집단의 극단적인 차별의 증상과 원인 : 공통점

내집단이라 함은, 한 개인이 그 자신의 동일성과 일치시키는 집단이고 외집단이라 함은 한 개인이 소속감을 가지지 않는 집단이며 내집단과 정반대의 집단이다.(Adorno et.al, p.104) 외집단은 부정적 의견과 적대적 태도의 목표가 되며 내집단은 긍정적 의견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태도의 목표가 된다. 그래서 외집단은 내집단에 사회적으로 종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떤 문화가 내집단과 외집단의 이분법을 날카롭게 하게 만들고 있을 때, 그 극단적 이분법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존하고 있는(dependent), 어떤 존재 특히 위광(威光)이 있거나 특권적인 존재에 대한 적개심을 의식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그 적개심을 억압하게된다. 억압의 결과로, 그는 그 적개심을 더 약하게 보이는 외집단으로 향하게 하는데, 그 이유는 약하게 보이는 소수 집단으로부터는 보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Else Frenkel-Brunswik, p.480) 이 심리적 메커니즘은 그로 하여금 그의 심리적 약점을 상대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유지시키게 하는데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다 약한 그룹들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자신의 부도덕한 경향을 두려워하는 정도는, 특별히 외집단의 부도덕성을 과장하거나 비난함으로써 감경(減輕)된다.(Supra, p.480) 따라서 자기가 속한 내집단을 칭찬하며, 자기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을 부정하는 것은, 종종 사회적 믿음과 정치적 신조의 영역에서 친숙한 일인데, 병리적인 데이터에 있어서는 잘 나타나는 경향이다.(Supra, p.451) (김 철, 2014: 370-371)

6.9 소결 : 고도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인간 형과 대중의 성격

“중심적인 발견은 권위의존적 유형(權威主義的 類型)의 인간이라는 새로운 인류학적 종(種)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생각과 기술(technology)에 있어서의 고도 산업사회의 특징과, 비합리적이고 반이성적인 믿음과 신조를 함께 공유하는 인간이다. 다음과 같은 전혀 상반되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인간형이다. 즉, 근대 이후의 지식에 의해서 계몽되었으면서 동시에 미신적이다. 개인주의 자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독립 못 해서 안달하면서도 동시에 권력과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한다.”(Max Horkheimer, 1950) (김 철, 2009.9.: 49)(김 철, 2014: 535-536).

맺음말

7.1 로버트 푸로스트 (Rober Frost , 1958) “테크노로지와 데모크라시” 38)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1957)에 의해서 경악해서, 우리들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가속 시키기를 원하게 되었다. 나는 교육을, 특히 고등학교 레벨에서의 교육을, 강화(tone up)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들이 (스푸티니크 충격을 계기로) 이 나라를 스파르타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 하라. 나 자신은 승리하는 스파르타가 되기 보다는, 아테네 사람으로 사라지는 편을 택하겠다. 풍조(the Tone)는 아테네 식이어야 한다. 주된 풍조는, 심지어, 우리들 체제가 파괴 될 시점까지도, 아테네 식 자유(freedom)여야 한다.

데모크라시는 모든 위험을 다 지고 가는 것이다-- 의견의 충돌, 인간 형 즉 성격(personality)들의 대립, 그리고 엉뚱하고 상쾌에 맞지 않는 것(eccentricity)까지도. 우리 아메리카 인들은, 아테네 인 이다. -- 따라서, 감히 모든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고 자 한다.

7.2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

“1931년~1932년 세계 대공황이 진행되어 가고, 유럽과 아시아에 파시즘이 대두되고 있던, 음울한 시절에, 과학자 집안에 태어난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 (Aldous Huxley)는, “용감한 신 세계” (Brave New World)³⁹⁾라는 과학 픽션을 발표 했습니다. 이 공상적 과학 소설의 현저한 메시지는, 테크놀로지의 위험성을 우려해서, 헉슬 리가 발한 경고음(alarm)이라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s)가, 사회를 통제하려는 데 사용 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the way human beings think and act)을 변화시키는 더 큰 권력을 가지게 된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헉슬 리가 “용감한 신세계” 에서 보여 주고자 한 것은, 고도의 과학 기술 사회가 “부정적 유토피아”(negative utopia)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사회적 배경(social background or context of science & technolog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이 논문의 출발점과 같습니다.

도움 받은 글

38) Washington Evening Star, December 10, 1958 (Interviews, pp.193-194) Robert Frost as quoted by Mary McGrory

39)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은, “멋진 신 세계”로 출간 되어 있으나, 이 한국어를 다시 영역하면, “Wonderful New World”가 되지 않을 까? 내용을 참작하면, “용감한 신 세계”가 더 원저자의 의도에 맞지 않나? 생각된다.

김 철, 러시아 소비에트 법-비교법 문화적 연구, (서울, 민음사, 1989)

김 철, “아메리카와 러시아-소비에트 법 체계의 비교 ” 김 유남등 편 미소 비교론 (서울: 어문각, 1992)

해롤드 버만과 김 철, 종교와 제도- 문명과 역사적 법 이론(서울, 민영사, 1992)

김 철, 한국법학의 반성-사법 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제4부 제1장 러시아 법 강의 요지 제2장 체코와 러시아 제3장 중국법학을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

김 철, “서평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로렌스 레식 원저, 김정오 역, 나남출판, 2000)”, 『헌법학연구』제8권 제2호(서울: 한국헌법학회, 2002)

김 철, “한국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성”, 『사회이론』제30호(서울: 한국사회이론학회, 2006)

김 철, “제3부 제4장 커뮤니케이션과 우리 사회”, 『한국 법학의 철학적 기초 -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접근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2007ㄱ)

김 철, “제4부 제4장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한국 법학의 철학적 기초 - 역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접근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2007ㄴ)

김 철, “형이상학적 이원론 아래에서의 당위와 존재의 문제와 현대 법학의 과제”. 『현상과 인식』제32권 3호(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8)

김 철, “손 보기 기념 강연: 법과 종교, 법과 경제, 법과 혁명”, 『현상과 인식』제42권 4호(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8)

김 철, “제6장 제2절 네오리버럴리즘 시대의 청소년 문화(비디오 게임과 영화의 폭력)에 대한 규제 문제”, 『경제위기와 치유의 법학』(서울: 한국학술정보, 2014)

김 철, “제9장 트럼프즘과 신자유주의 정책과 법이 팬더믹에 미친 영향 -- 코로나 19 창궐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맥락 연구”, 『법과 종교(가치)』(2023년 출간 예정) (미공간 논문)

로렌스 레식/김정오 역,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서울: 나남출판, 2002)

박 중현 , “폭력적 비디오 게임 규제입법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Brown vs. EMA) ” 공법이론과 판례 연구회 월례회 발표문. 2012.9.14

크리스찬 평화 운동(the Christian peace movement in the GDR)은, 오랫동안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1988년과 1989에 에큐메니칼 총회(Ecumenical Assembly) 이후 모든 교회를 포괄하게 되었다. 에큐메니칼 총회는 Dresden, Magdeburg 다시 Dresden에서 열렸는데, 1989년 가을의 폭발적인 붕괴를, 미리 영적이고 정신적 으로 예비 한 것으로 간주 된다. (06.11.2014 dw.com)

Herman Richtenberger, 튀빙겐 대 신학부교수, “독일 재 통일과 독일 교회의 역할” 기독교 법률가회 주최, 2022년 10월6일 (목) 오후 7시30분 장소 : 기독교법률가회 비전 센터.

GCHQ로 알려진 정부 커뮤니케이션 본부의 제레미 프레밍 (Sir Jeremy Freming , director of GCHQ)은, " 국가 안보와 지정학의 컨텍스트에서 본, 진화하는 테크놀로지의 환경 (evolving technological environment in the context of national security and geopolitics) 주제의 스피치를 했다. (Rusi Annual Security Lecture 2022 , 11. Oct. 2022 , Rusi .org)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 NYU economist)는 미국과 중국 뿐 아니라, 서방과 대립된 러시아, 중국,이란, 북한, 파키스탄을 포함한 수정주의자 세력들 (Roubini는 revisionist power 라고 부르고 있다) 사이에서 새로운 냉전 (a new cold war)이 대두했다고 한다. October 18, 2022 Yahoo! finance

EU(유럽 연합)는 무역과 경제 블록(trade & economic bloc)으로 창설되었지만, EU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에 자금을 주기위해서, 큰 금액을 책정 해 왔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 독재자의 침략 (an autocrat's aggression)과 민주주의의 “유럽적 가치”(“European values” of democracy) 사이의 실존적 다툼 (existential contest)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

(Christian Science Monitor, 13 Oct. 2022)

The Lancet Commission, *Public Policy and health in the Trump era*, 2021. 2.
[http://doi.org/10.1016/S0140-6736\(20\)32545-9](http://doi.org/10.1016/S0140-6736(20)32545-9)

Huxley, Aldous, *Brave New World* (London: Chatto & Windus, 1932)

Lessig, Lawrence, *Code : And Other Law of Cyberspace* (Basic Books, 1999)

Adam Tooze, *CRUSHED how a decade of financial crisis changed the world* (N.Y, Penguin books, 2018)

Bob Woodward, *Rage* (New York: Simon & Schuster, 2020)

Magnus Linden, "Trump's America and the rise of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The Conversation* February 16, 2017.

T. W. Adorno et. al.,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Preface xi, Harper & Brothers(1950)

J. Levinson, IV. The Study of Ethnocentric Ideology b. Construction of the Ethnocentrism (E) scale p.109, in Adorno(1950)

Else Frenkel-Brunswik, Dynamic and cognitive Personality Organization as Seen Through the Interviews, Summary of interview results, p.480, in Adorno et.al, *Supra.*, p.480.

Bob Altemeyer,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nnipeg: University of Manitoba Press, 1981)

Bob Altemeyer, *The Authoritarian Spect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21)

Ithiel De Sola Pool, Public Opinion p.789 *Handbook of Communication*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973)

Patrick C. L. Heaven, Sandra Bucci,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personality: an analysis using the IPIP mea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Vol.15 Issue 1, 2001.

Robert Frost, *Poetry and Prose*, edited by Edward Connery Lathem and Thompson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84)

과학기술 문명과 인류세: 신유물론적 관점

김 환석(국민대학교)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22년 학술대회

과학기술 문명과 인류세: 신유물론 관점

2022년 11월 12일

김환석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 발표 목차 -

1. 서구 근대문명과 과학기술의 관계
2. 인류세의 도래와 근대문명의 위기
3. 인류세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생태근대주의/생태사회주의/신유물론
4. 문명의 전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5. 변혁의 주체: "생태계급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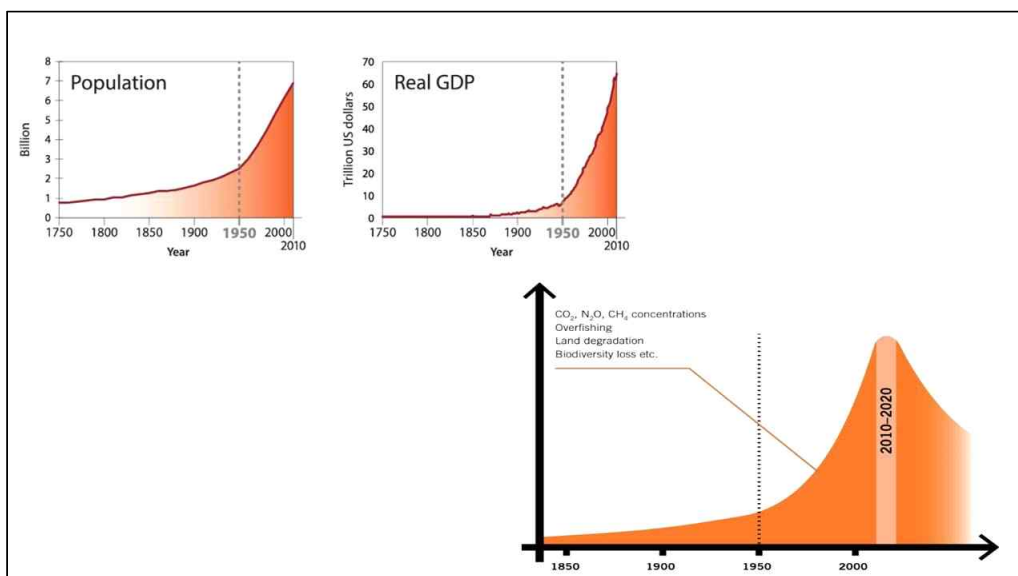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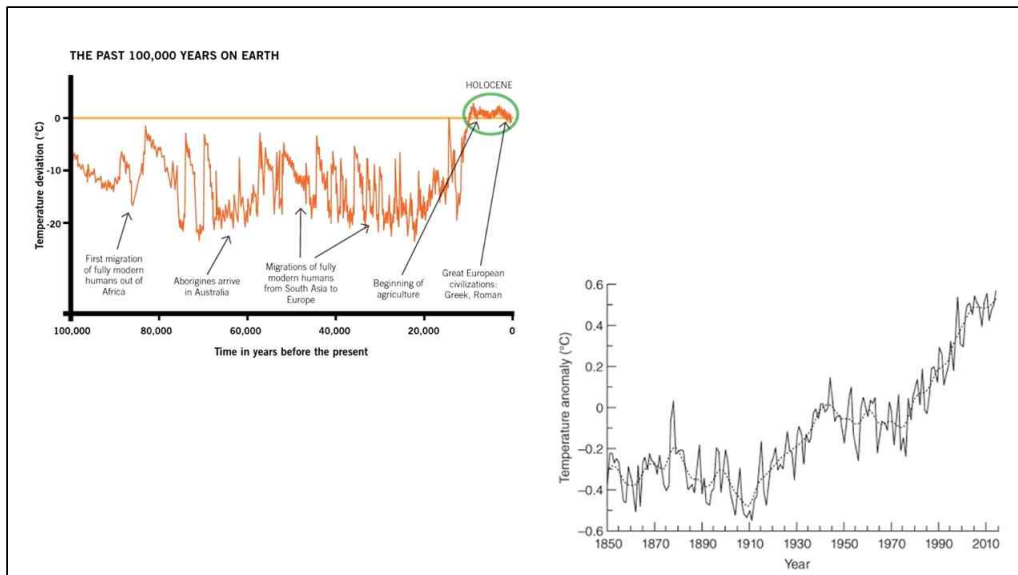
1. 서구 근대문명과 과학기술의 관계

- 17C 갈릴레오의 우주론 → “과학 혁명”(뉴턴 등):
 <특징> 우주로서의 지구 + 기계적 유물론 → 데카르트 이원론
- 18C 계몽사상(=이성주의)의 인간관과 역사관 → 칸트 주체철학
 (주체 vs 객체 = “자유의 영역” vs “필연성의 영역”)
- 18C말의 양대 혁명 → **근대문명의 확립**
 - 산업혁명(=기술혁명) → 탄소경제의 시작 → 온실가스 배출
 - 시민혁명(=정치혁명) → 자유주의+자본주의 = “근대사회”

- 19C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 → 마르크스주의(역사적 유물론)
- 20C 사회주의혁명 = 마르크스주의+근대 과학기술(탄소경제)
- 따라서 20C 세계정치는 우파 근대주의 vs 좌파 근대주의 대립
 이 그 핵심적 특징 → **근대 과학기술과 탄소경제는 양자가 공통**
- 탄소경제의 주 에너지(화석연료) 전환: 석탄 → 석유로
- 20C말 탈냉전 신자유주의 세계화+지구적 기후위기 대두

2. 인류세의 도래와 근대문명의 위기

- 근대문명이 성공한 의도 않은 결과로 '홀로세(Holocene)'로부터 '인류세(Anthropocene)'로 이행: P. Crutzen & W. Stoermer(2000)
- 인류세의 대표적 양상: 기후변화, 생물대멸종, 인수공통전염병
 - 세계인구의 증가: 20억 명(1920년) → 78억 명(2020년)
 - 온실가스의 증가: 325ppm(1972년) → 420ppm(2022년)
 - 포유동물의 분포: 인간 30%, 가축 67%, 야생동물 3%
- 근대문명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지구의 생태파국은 불가피함을 많은 학자들이 예고: 벤델 & 리드(2022) <심층적응>; 셰르비뉴 & 스테방스(2022) <붕괴의 사회정치학>



3. 인류세(Anthropocene)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1) 생태근대주의: "좋은 인류세" → <대안> 과학기술

- 과학기술(예: 지구공학)을 통해 행성적 한계를 초월~확장 가능
- 고로 인류세는 근대화를 생태적 목적으로 이용할 좋은 기회

2) 생태사회주의: "나쁜 인류세" → <대안> 정치적 혁명

- 자본주의 체제의 팽창→ 인류세의 생태계 파괴와 사회불평등은 자본주의 계급사회가 낳은 동전의 양면: "자본세(Capitalocene)"
-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체제혁명(=자본주의 철폐)을 통해 생태계 회복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

3) 신유물론: "탈이원론적 인류세" → <대안> 문명 전환

- 생태근대주의와 생태사회주의는 모두 근대문명의 이원적 존재론과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사상: 인간=주체 vs 비인간=객체

- Bruno Latour: 비인간 자연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성(=자기조절 능력)을 지닌 Gaia→ 인간의 근대문명이 초래한 생태계 파괴에 반작용(예: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 따라서 신유물론이 **탈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여 인류세의 생태위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사상이라고 판단됨.

<참고> 가이아 가설 (Lovelock & Margulis)

• 가이아(Gaia)란?

지구 위 모든 생물들이 무생물 주위환경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물들이 거주가능한 조건들을 유지해주는 **자기조절적 시스템(a self-regulating system)**을 형성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것이 그러한 거주가능성의 조건들이다:

- 지구표면 온도의 조절
- 대기 중 산소의 조절
- 해양 중 염도의 조절
- 이산화탄소의 처리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안정성



4. 문명 전환: 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 현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지배적 패러다임의 파악과 근본적 변혁이 없이는 인류세의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 근대문명은 이원론(정신/물질=인간/비인간=문화/자연)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를 토대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지구의 행성적 한계를 침범하고 가이아의 격렬한 반작용을 촉발함.
- 인류가 멸종을 피하려면 근대문명에서 벗어나 지구의 행성적 한계 안에서 가이아의 조화로운 일부로서 다른 종들과 더불어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

- 문명의 전환은 각 문명의 핵심을 이루는 패러다임(존재론, 인식론, 윤리, 행위성, 정치의 어셈블리지)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의 변화를 집합적으로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함.
- 근대문명의 핵심은 16~18세기에 형성된 **"기계적 패러다임"**으로서 이는 인류세의 생태위기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21세기의 생태문명은 신유물론의 **"관계적 패러다임"**이 그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라투르는 이를 "우주론의 변화"에 의해 설명).
- 기계적 패러다임 ← 갈릴레오의 우주론 = 결정론적 "우주로서의 자연"
관계적 패러다임 ← 러브록의 우주론 = 비결정론적 "과정으로서의 자연"

근대문명 vs 생태문명: 지배적 패러다임의 변화

	기계적 패러다임	관계적 패러다임
존재론	이원론(위계적 존재론)	다원론(평평한 존재론)
인식론	재현주의	구성주의
윤리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중심주의
행위성	오직 인간만 보유	인간과 비인간에 분포됨
정치	자유민주주의(+사회주의)	생태민주주의('사물의 의회')

5. 변혁의 주체: “생태계급의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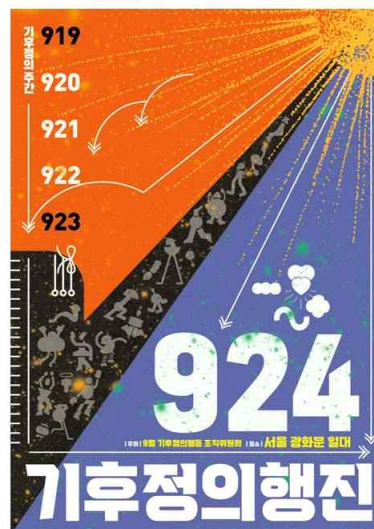
- 과연 누가 어떻게 문명 전환을 주도할 것인가?: 브뤼노 라투르는 가이아 정치생태학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변혁의 주체를 분석하는 작업을 니콜라이 슐츠와 더불어 착수→ <생태계급의 출현>(2022)
- 21세기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격화돼 결국 거주가능한 영토에 대한 지구사회적 투쟁으로 변모할 것임→ 고로 ‘사회적 계급’이 아닌 ‘지구사회적 계급’의 이론이 필요
- 19~20세기에 사회진보를 위해 노동계급이 투쟁했던 것과 비슷하게 21세기에는 생태계급이 출현하여 문명 전환을 주도할 것 → (예) 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행진’ 같은 투쟁을 통해 출현

사회적 계급과 지구사회적 계급의 비교

	사회적 계급	지구사회적 계급
사회의 ‘기초’는?	생산시스템	생성시스템
계급의 확인방법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로 정의되는 경제적 위치	재생산수단에 대한 접근으로 정의되는 영토적 위치
착취의 양식은?	잉여가치: 노동의 착취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윤	잉여존재: 타자들의 땅에 대한 착취로부터 생기는 영토적 이윤
계급투쟁이란?	생산수단에 대한 투쟁	재생산수단, 거주가능한 땅에 대한 투쟁
동맹 세력은?	생산시스템에서 당신의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물질적 존재조건의 종류를 공유하는 사람들
적대 세력은?	생산시스템에서 당신의 위치를 공유 않는 사람들	당신의 영토를 점유한 사람들

“문명을 구하자고 하면서 관중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돼요. 우리 모두는 문명의 미래에 이해관계가 있어요. 우리 대부분이 아이가 있고 손주가 있지요. 우리는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고 조만간 어떻게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레스터 브라운, 영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Normal Is Over)>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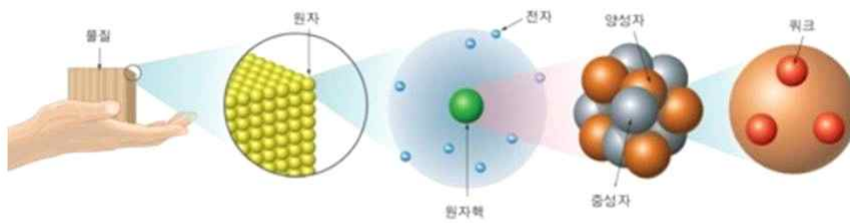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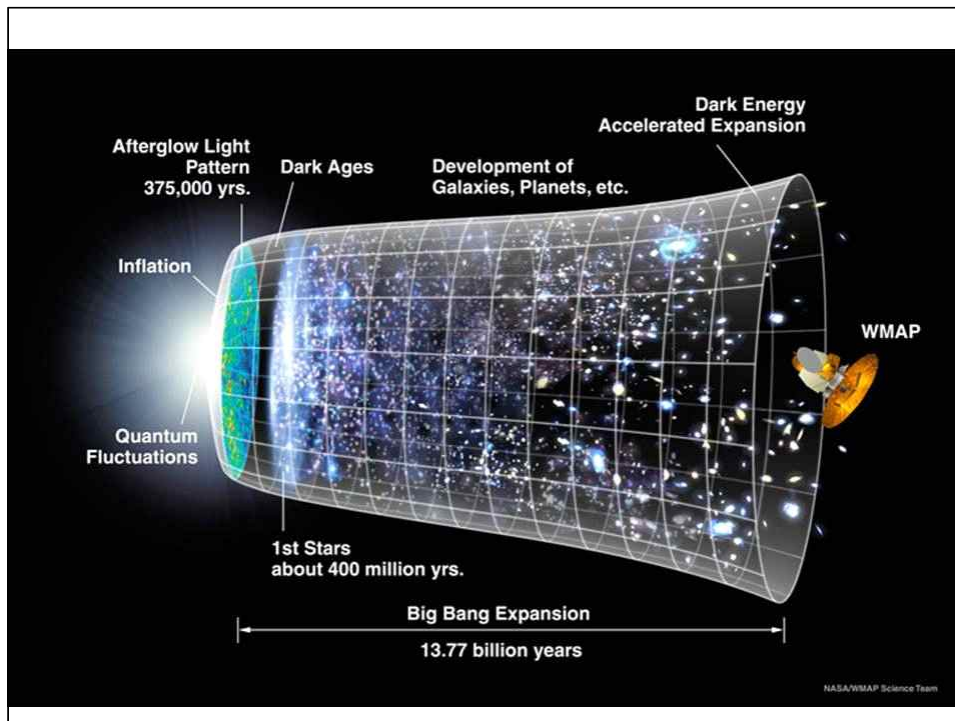


우주와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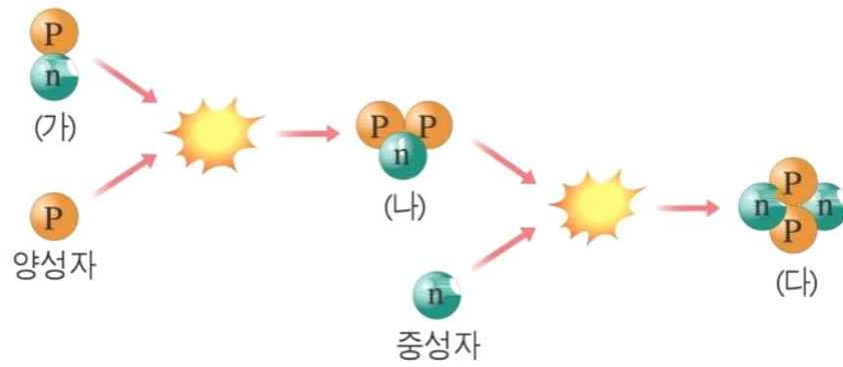
이 강환(서울대학교)

우주와 생명

이 강 환



쿼크와 전자 : $10^{-34} \sim 10^{-32}$ 초
 양성자와 중성자 : 10^{-6} 초



헬륨 원자핵 : 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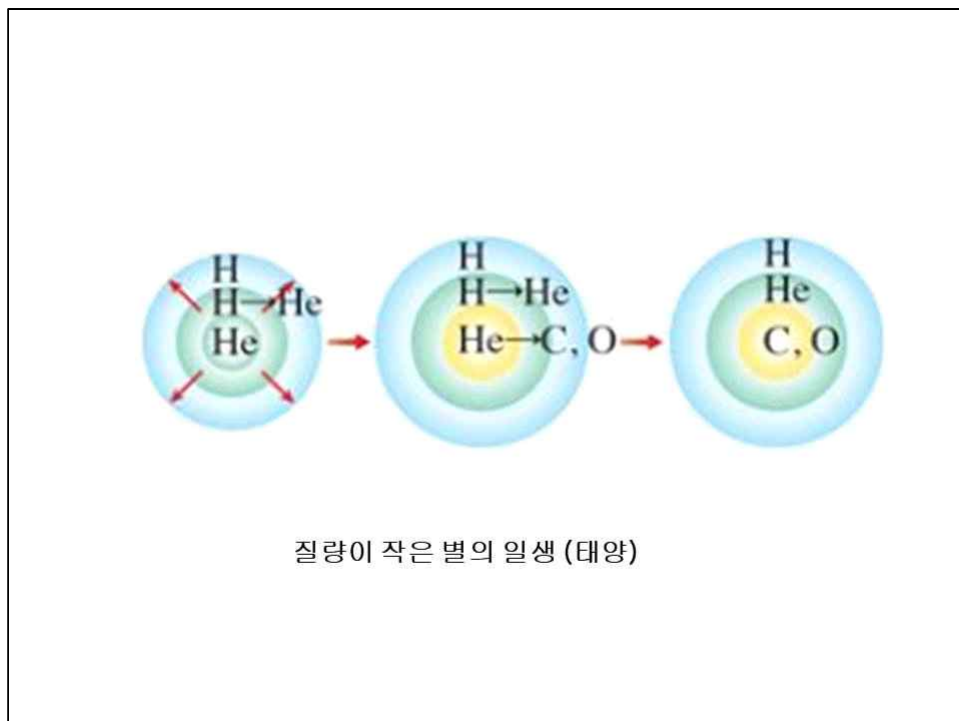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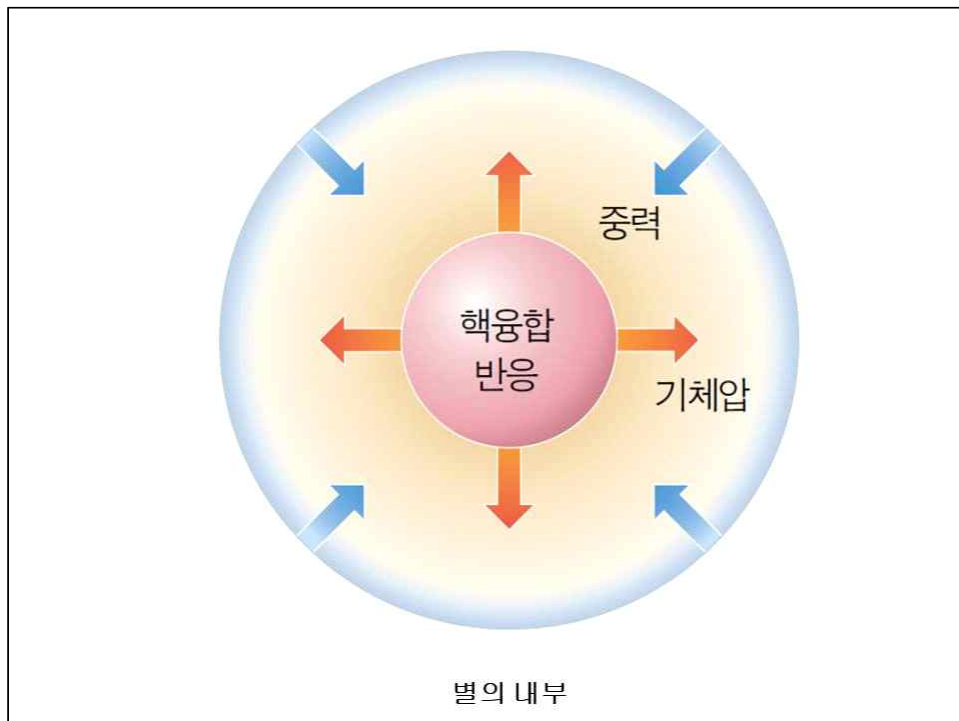
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기																		
1	1 H																	2 He
2	3 Li	4 Be											5 B	6 C	7 N	8 O	9 F	10 Ne
3	11 Na	12 Mg											13 Al	14 Si	15 P	16 S	17 Cl	18 Ar
4	19 K	20 Ca	21 Sc	22 Ti	23 V	24 Cr	25 Mn	26 Fe	27 Co	28 Ni	29 Cu	30 Zn	31 Ga	32 Ge	33 As	34 Se	35 Br	36 Kr
5	37 Rb	38 Sr	39 Y	40 Zr	41 Nb	42 Mo	43 Tc	44 Ru	45 Rh	46 Pd	47 Ag	48 Cd	49 In	50 Sn	51 Sb	52 Te	53 I	54 Xe
6	55 Cs	56 Ba	71 Lu	72 Hf	73 Ta	74 W	75 Re	76 Os	77 Ir	78 Pt	79 Au	80 Hg	81 Tl	82 Pb	83 Bi	84 Po	85 At	86 Rn
7	87 Fr	88 Ra	103 Lr	104 Rf	105 Db	106 Sg	107 Bh	108 Hs	109 Mt	110 Ds	111 Rg	112 Uub	113 Uut	114 Uuq	115 Uup	116 Uuh	117 Uus	118 Uuo
*란타넘족 Lanthanoids	*		57 La	58 Ce	59 Pr	60 Nd	61 Pm	62 Sm	63 Eu	64 Gd	65 Tb	66 Dy	67 Ho	68 Er	69 Tm	70 Yb		
*악티늄족 Actinoids	*		89 Ac	90 Th	91 Pa	92 U	93 Np	94 Pu	95 Am	96 Cm	97 Bk	98 Cf	99 Es	100 Fm	101 Md	102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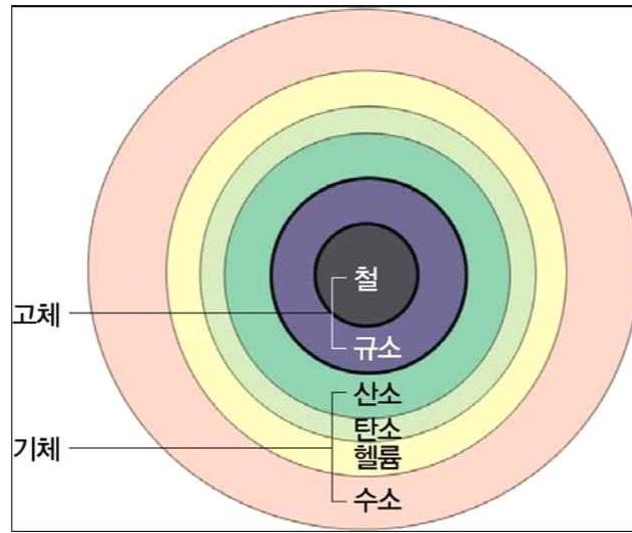


별의 탄생 (1~3억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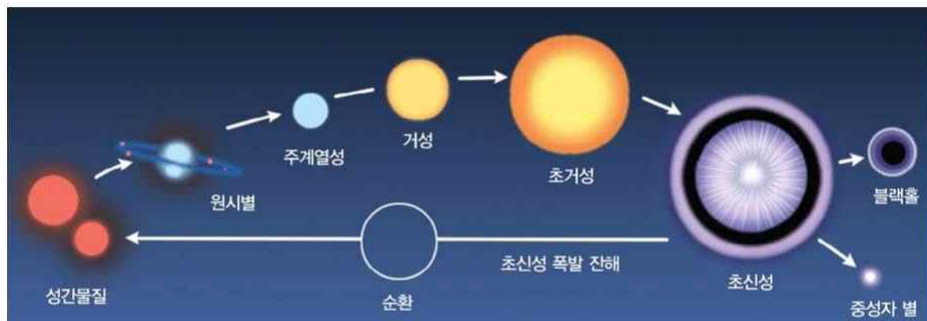


오리온 성운 (오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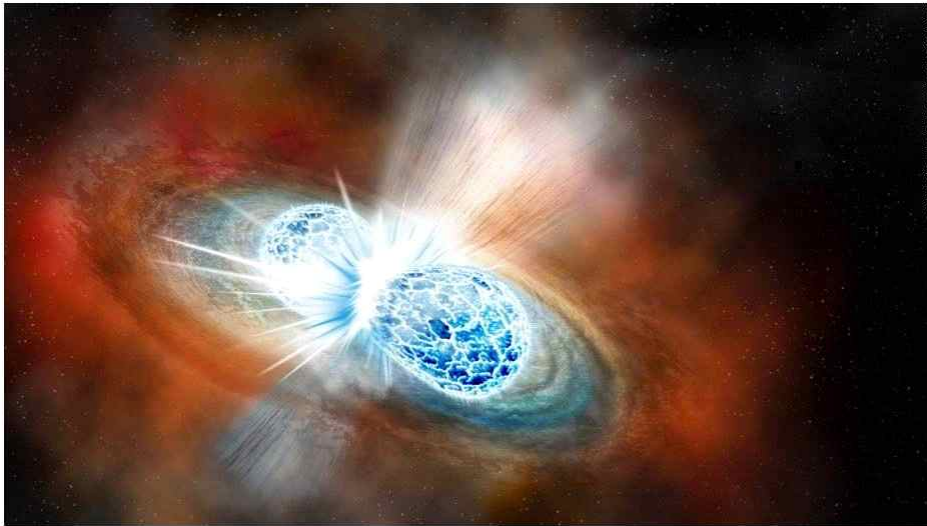




초신성 폭발 직전의 별의 내부



질량이 큰 별의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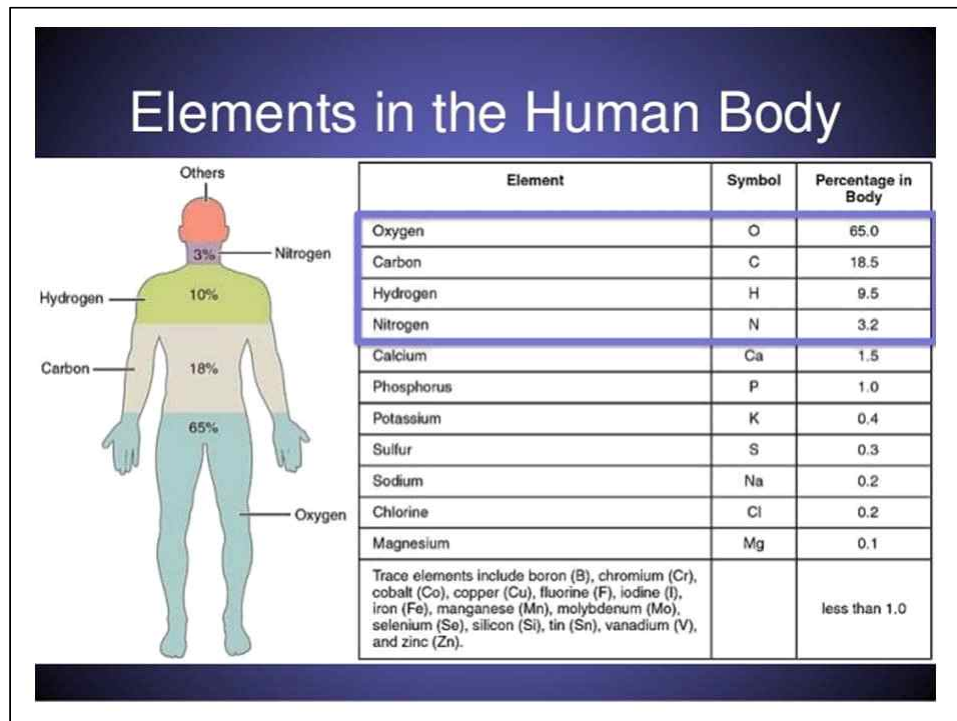
중성자별 충돌

The Origin of the Solar System Elements

1 H	big bang fusion 										cosmic ray fission 										2 He											
3 Li	4 Be	merging neutron stars 										exploding massive stars 										5 B	6 C	7 N	8 O	9 F	10 Ne					
11 Na	12 Mg	dying low mass stars 										exploding white dwarfs 										13 Al	14 Si	15 P	16 S	17 Cl	18 Ar					
19 K	20 Ca	21 Sc	22 Ti	23 V	24 Cr	25 Mn	26 Fe	27 Co	28 Ni	29 Cu	30 Zn	31 Ga	32 Ge	33 As	34 Se	35 Br	36 Kr															
37 Rb	38 Sr	39 Y	40 Zr	41 Nb	42 Mo	43 Tc	44 Ru	45 Rh	46 Pd	47 Ag	48 Cd	49 In	50 Sn	51 Sb	52 Te	53 I	54 Xe															
55 Cs	56 Ba	72 Hf	73 Ta	74 W	75 Re	76 Os	77 Ir	78 Pt	79 Au	80 Hg	81 Tl	82 Pb	83 Bi	84 Po	85 At	86 Rn																
87 Fr	88 Ra																															
																		57 La	58 Ce	59 Pr	60 Nd	61 Pm	62 Sm	63 Eu	64 Gd	65 Tb	66 Dy	67 Ho	68 Er	69 Tm	70 Yb	71 Lu
																		89 Ac	90 Th	91 Pa	92 U											

Graphic created by Jennifer Johnson

Astronomical Image Credits:
ESA/NASA/AAS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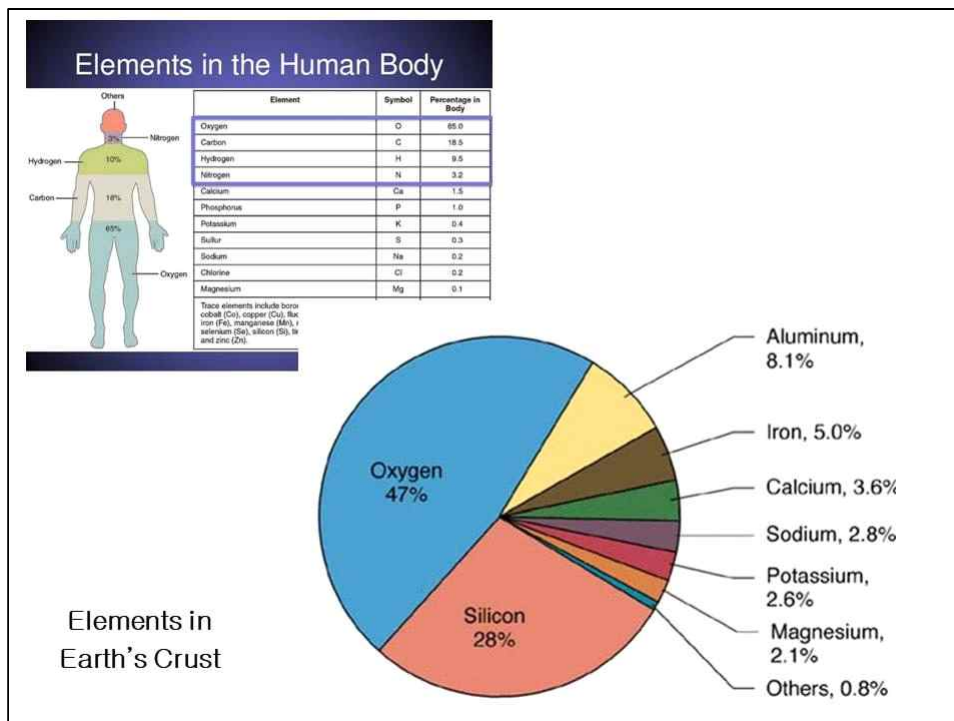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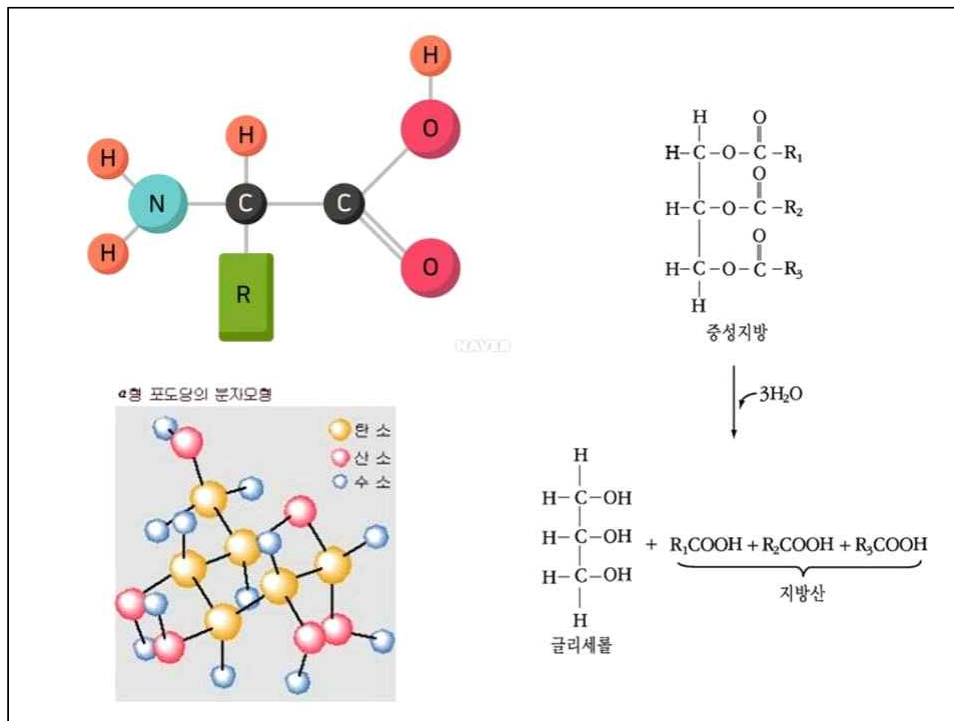


❖ 액체 상태의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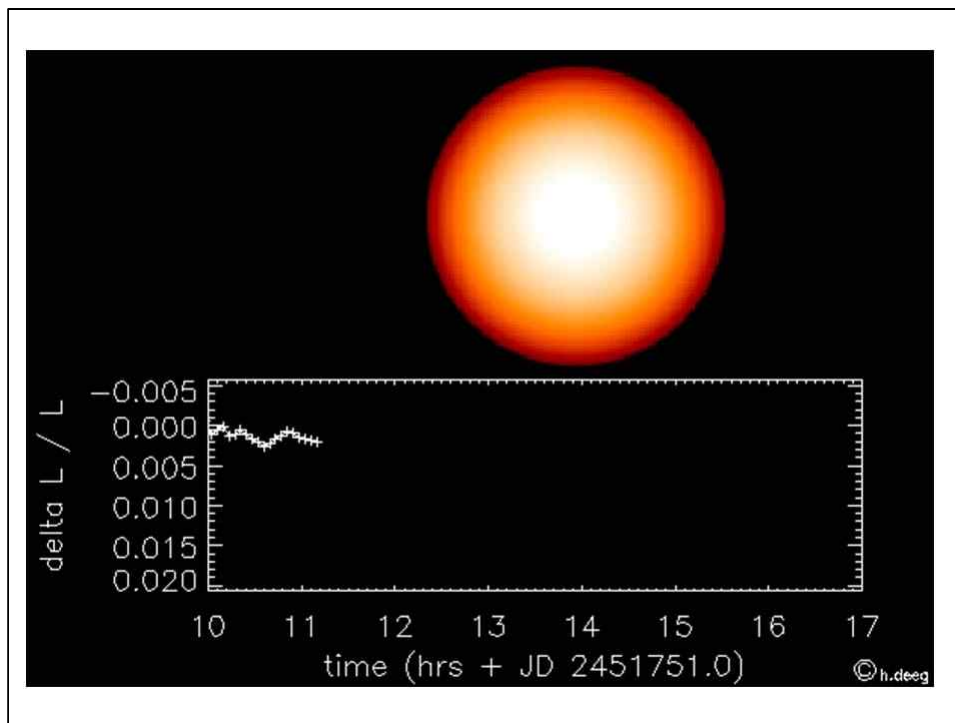
-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 유지
- 극성을 가져 화학결합이 쉬움
- 물은 우주에 가장 흔한 물질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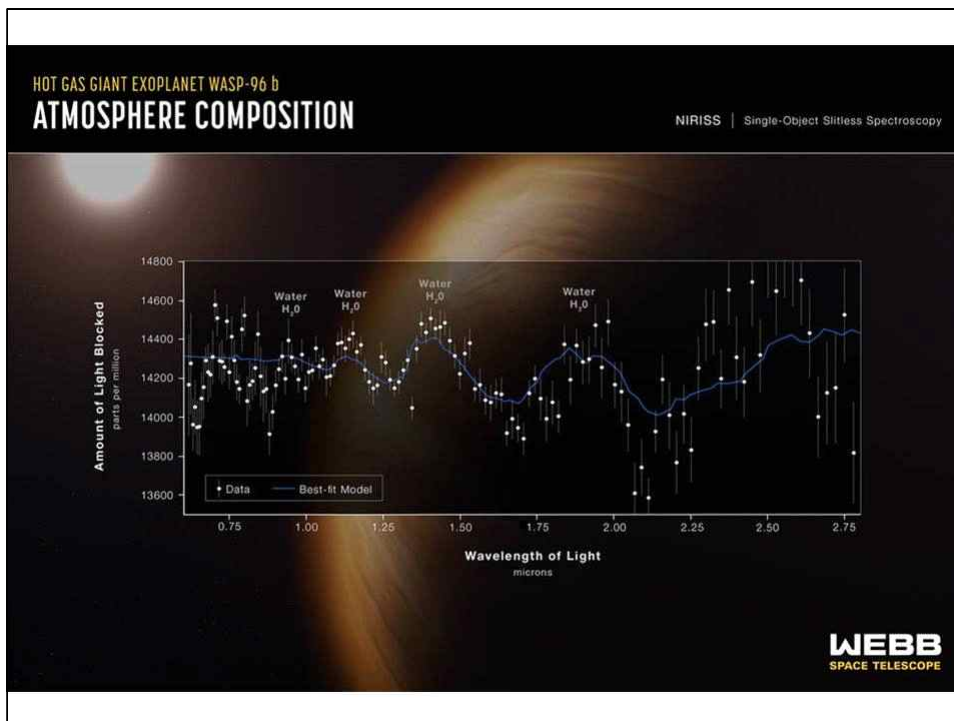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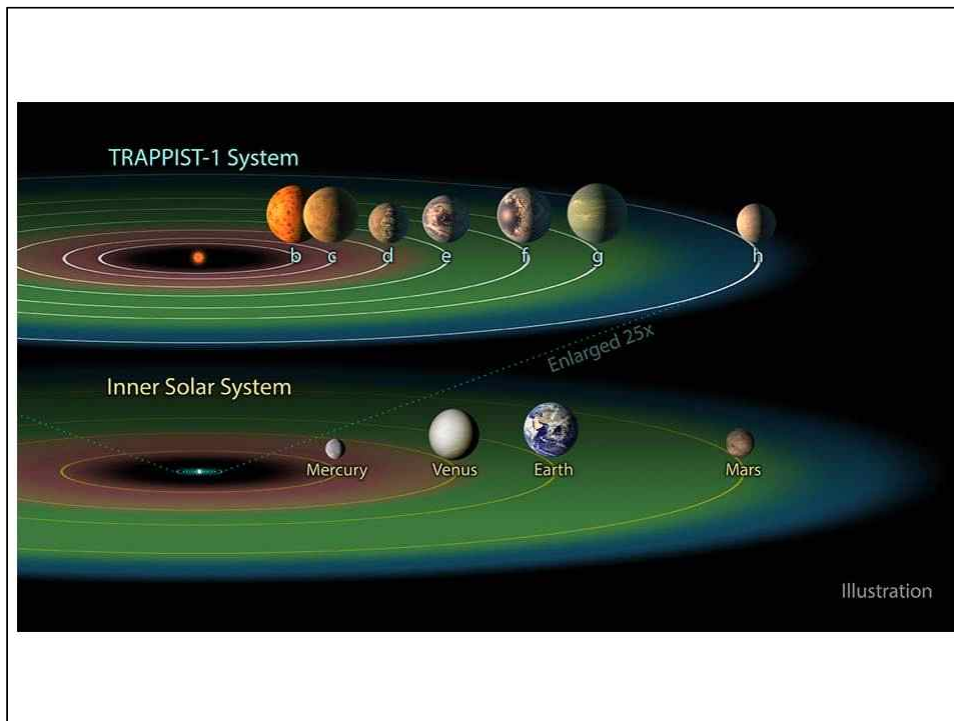
❖ 탄소 유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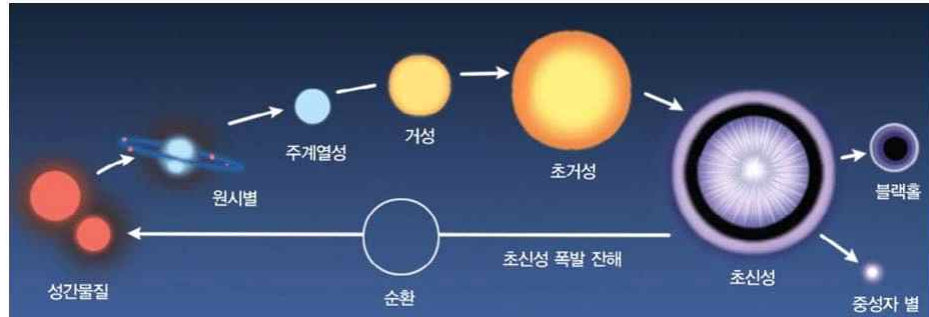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DNA 등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분자들은 모두 탄소 원자의 긴 사슬에 수소, 산소, 질소 등 다양한 원자들이 붙어있는 구조
- 4개까지 다른 원소들과 화학결합 가능
- 다른 탄소와 강력한 이중결합 가능



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주기																		
1	1 H																	2 He
2	3 Li	4 Be											5 B	6 C	7 N	8 O	9 F	10 Ne
3	11 Na	12 Mg											13 Al	14 Si	15 P	16 S	17 Cl	18 Ar
4	19 K	20 Ca	21 Sc	22 Ti	23 V	24 Cr	25 Mn	26 Fe	27 Co	28 Ni	29 Cu	30 Zn	31 Ga	32 Ge	33 As	34 Se	35 Br	36 Kr
5	37 Rb	38 Sr	39 Y	40 Zr	41 Nb	42 Mo	43 Tc	44 Ru	45 Rh	46 Pd	47 Ag	48 Cd	49 In	50 Sn	51 Sb	52 Te	53 I	54 Xe
6	55 Cs	56 Ba	71 Lu	72 Hf	73 Ta	74 W	75 Re	76 Os	77 Ir	78 Pt	79 Au	80 Hg	81 Tl	82 Pb	83 Bi	84 Po	85 At	86 Rn
7	87 Fr	88 Ra	103 Lr	104 Rf	105 Db	106 Sg	107 Bh	108 Hs	109 Mt	110 Ds	111 Rg	112 Uub	113 Uut	114 Uuq	115 Uup	116 Uuh	117 Uus	118 Uuo
*란타넘족 Lanthanoids			57 La	58 Ce	59 Pr	60 Nd	61 Pm	62 Sm	63 Eu	64 Gd	65 Tb	66 Dy	67 Ho	68 Er	69 Tm	70 Yb		
*악티늄족 Actinoids			89 Ac	90 Th	91 Pa	92 U	93 Np	94 Pu	95 Am	96 Cm	97 Bk	98 Cf	99 Es	100 Fm	101 Md	102 No		







우리는 모두 별의 후손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별의 후손

미 50년 만의 UFO 청문회 "미공개 정보 어디까지 밝혀 지나?"

입력 2022-05-17 17:18 | 수정 2022-05-17 17:18

🔍 📄 📌 🔄 🖨



미확인 비행현상 동영상



Oct 21, 2022

NASA Announces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Study Team Members



NASA has selected 16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its *independent study team* on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UAP). Observations of events in the sky that cannot be identified as aircraft or as known natural phenomena are categorized as UAPs.

The independent study will begin on Monday, Oct. 24. Over the course of nine months, the independent study team will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study on the nature of UAPs for NASA and other organizations. To do this, the team will identify how data gathered by civilian government entities, commercial data, and data from other sources can potentially be analyzed to shed light on UAPs. It will then recommend a roadmap for potential UAP data analysis by the agency going forward.

The study will focus solely on unclassified data. A full report containing the team's findings will be released to the public in mid-2023.

Why physicist Avi Loeb thinks there's a "serious possibility" that 'Oumuamua was an alien spacecr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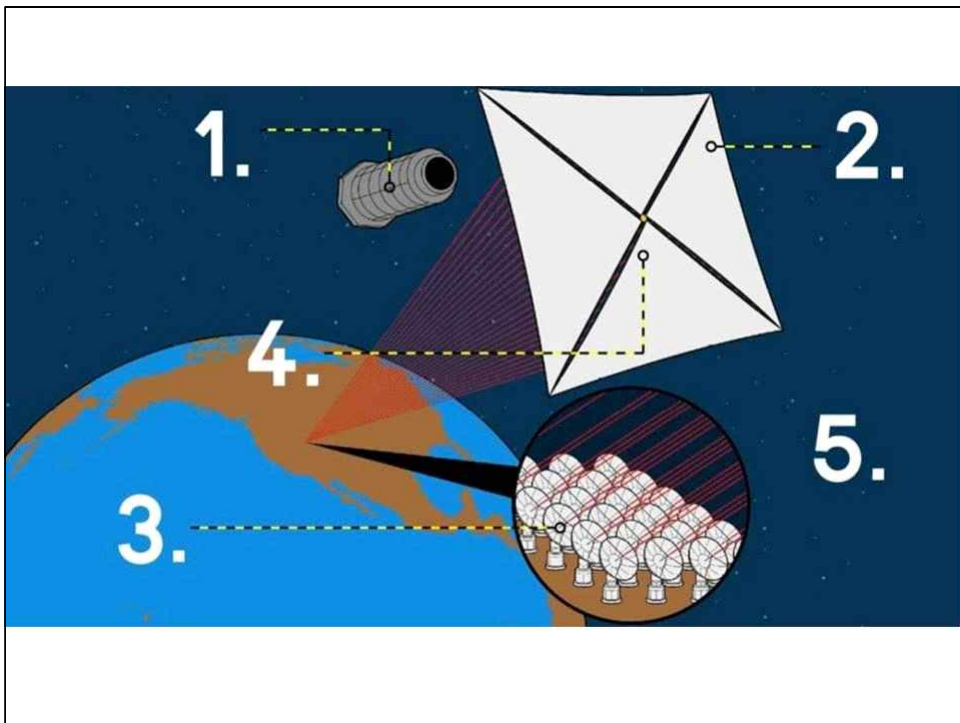
It's a "serious possibility that we should contemplate," Loeb says in his new book on the bizarre space ob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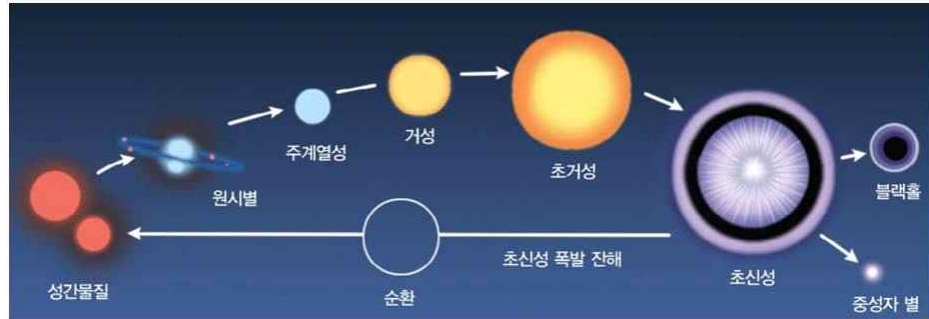
By **NICOLE KARLIS**
Senior Writer

PUBLISHED JANUARY 15, 2021 6:00PM (EST)



Extraterrestrial by Avi Loeb (Photo illustration by Saloni/Olivia Falcigno/Houghton Mifflin Harcourt)





우리는 모두 별의 후손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별의 후손

변화의 인류학적 변화

최 종덕(독립학자)⁴⁰⁾

인간이 자연을 모험하는 시간을 역사라고 정의한다.
모험이란 자연선택(적응)의 진화과정이다.
나의 존재는 욕구와 생존의 변증법이며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사르트르, 2007)

〈방향〉

(1) 구석기 시대 수렵채집기에서 (2)신석기 시대의 농경정착기를 거쳐 (3)고대 그리스와 인도 베다 그리고 중국 선진 철학기로 대표되는 소위 축의 시대the axial age를 지나 (4)산업화 시대에서 (5)파괴적 기술변혁기로 흘러가는 인류 문명사에서 자아가 어떻게 출현하고 변화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형되어 갈 지를 자연학적 방법으로 추적하고 인문학적 태도로 질문한다.

〈관점(기초방법론)〉

- ① 자아의 신체성과 자아라는 관념 모두는 자연진화의 소산물이다.⁴¹⁾
- ② 자아의 원형archetype을 자연과학의 도움으로 자연 안에서 찾는다.(Baldridge 1984)
- ③ 자아는 형이상학적 '존재'에 있지 않으며 생명주체의 행동에 있다. 주체는 관계의 존재이며 생태적 존재이다.(니체 도덕의 계보, 37)

⁴⁰⁾ <https://philonatu.com>

⁴¹⁾ 진화론 요약 : (1) 변이 개체들이 다양하며 다수이다. (2)변이개체들 중에서 어떤 것은 환경에 적응하여 더 많은 후손을 증식하며 어떤 것은 적응에 약하여 후손 증식이 미흡하다. 이후 그 후손들 사이의 적응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따라서 후손의 숫자도 더 차이난다. (3)더 증식된 후손의 형질은 그들 개체군에 존속되고 그렇지 않은 형질은 사라진다.(최종덕 2014, 2장)

〈질문의 변화 - 질문은 생존이다〉

구석기인의 질문

- 추위를 피하려면 어디가 좋을까?
-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하나?
- 사냥 돌축을 갈아서 창꼬치로 던질 수 있는 방법은?
- 사냥한 원숭이고기와 채집한 마를 어떻게 나눌까?
- 죽은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아니면 돌아오는 방법이 있을까?(후기 구석기)
- 5명이 협동사냥하여 나눈 몫과 혼자 사냥하여 온전하게 차지할 수 있는 기회비용, 무엇이 더 유리할까? (집단의식과 협동심)

신석기인의 질문

- 내 땅은 어디인가?
- 외집단 기습을 대비하고 알곡을 저장할 수 있는 터가 어디일까?
- 곡식을 심는 절기를 어떻게 알고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
- 태풍과 가뭄을 막아줄 수 있는 초인 혹은 만지만능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자연적 초자연 권력 탄생)
- 내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 (제례의식)

산업시대 근대인의 질문

- 공장 근처 어디 잘 데가 어디 없을까? 혹은 임대료를 어떻게 구하나?
- 일한 만큼의 댓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 톱니바퀴 수에 따라 힘이 어떻게 전달될까?

파괴적 기술혁신 변곡점 이후

- 사후의 나 혹은 내 몸, 냉동보존 업체를 알아 볼까 아니면 체세포 복제 업체를 알아볼까?
- 섹스와 사랑이 어떻게 연관되나?
- 알고리즘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디인가? - 혼자 성장하는 기계가 나에게 득인가 해인가?
- (정보와 자본을 포획한) 기업과 정부의 차이가 있기는 할까? - 나의 고용주는 기업인가 정부인가?
- 특이점singularity의 시기가 올것인가? -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자료1. 구석기인 자아의 신체와 섭식

* 구석기인의 정체성

구석기인이란 우리의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언스 외에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을 포함하여 걷기 시작한 구인류 모두를 포함한다. 2022년 노벨 생리의학 수상자인 페보(Svante Pääbo)연구팀은 2010년 3명의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그리고 1명의 데니소바인의 게놈 정보를 알렸는데, 오늘날 고유전체학 연구는 인류조상의 분기와 확산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DNA 시료로 사용될 화석자료 발굴이 부족할 뿐이다. 지금까지의 시료를 통해서 현대인류 호모사피언스의 기원은 315,000년 전 아프리카로 확인된다.(Reich 2018)

동북 아프리카에서 타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만 년 전이며 지구 전 대륙에 호모사피언스가 다 퍼진 것은 50,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이주는 1회성 대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사건으로 연이어 이루어졌다. 이주 시기 차이는 유전 변이의 차이를 낳았다. 예를 들어 20만 년 전 중동아시아 방향으로 이주한 인류 조상의 유전적 변이폭은 5만 년 전 이주한 후손들 유전 변이폭보다 크다는 뜻이다.(Stearns 2012, 4306)

아프리카에서 대륙으로의 이주는 호모사피언스에만 해당되지 않고 앞서 말한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4만년(39,000~41,000년) 전 멸종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호모사피언스와 함께 우리가 통상 구석기라고 부르는 200-300만년 동안의 고인류 중에서 최근까지 존속했던 연관 조상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유인원과 분기된 시점인 700만년 전 이후의 조상을 호미닌으로 통칭되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에렉투스 등과 같은 고인류를 말한다. 호미닌의 신체적 특징은 잘 알려졌듯이 직립보행이라는 데 있는데, 다수 화석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증거들을 통해 최소 440만 년 전 호미니드의 직립보행을 확인할 수 있다.(Kozma et al. 2018)

* 사피언스 현생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의 교유시기는 상당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주제다.

현생인류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에서 상호 교류는(물건, 기술, 섹스 포함) 일회성이 아니라 다지역/다시간/다계층에서 일어났다. 맨드랑 지역연구인 이 논문에서 발견한 더 중요한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 현생인류로 단 한 번의 기회로 점유지가 교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 서너 번의 교체가 뒤바뀌었다. 즉 현생인류로 교체되고 다시 네안데르탈인으로 점유되고 또 다시 현생인류로 점유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Grotte Mandrin

지역연구는 유럽의 다른 지역연구에서 보였던 선입관과 다르게 현생인류로의 대체 사건은 단일하고 단선적이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사이의 교류관계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 시기는 아래와 같다고 이 논문은 보고한다.(Slimak and Metz et al. 2022)

54,000년 이전 : 네안데르탈인 점유

54,000년 전후 : 현생인류 점유 56.8 ~ 51.7 ka

43,000년 전후 : 네안데르탈인 점유 44.1 ka에서 41.5 ka

그 이후 : 현생인류 점유

* 구석기인과 현대인의 섭식 차이: 정착문화와 지방섭취

성인 남성의 일 년 동안 백만 칼로리 수준을 소비하도록 작용된 몸이지만 현대인은 그보다 훨씬 많게 2배 가까운 칼로리를 초과 섭취한다. 현대인에게서 이런 초과는 대사성 질병을 초래한다. 혈관기능 장애, 인슐린 저항이라는 부작용으로 드러나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거나 심혈관질환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사량, 섭식 패턴, 음식 선호도에 최적으로 진화된 원래의 환경조건에서 구석기인의 생리상태는 저칼로리 섭취와 고강도 신체활동에 진화적으로 완전히 적응되어졌다. 반면 신석기 정주형 주거생활은 인간의 본래적인 신체 대사작용에 일치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대사성 만성질환의 진화론적 원인이다.(Wang and Mariman 2008)

구석기인의 주된 섭생방식은 수렵채집 방식이다. 후기 호미닌 전체 기간 중에서 수렵채집의 구석기 시대가 99% 이상이었다.(Tooby and DeVore 1987) 따라서 고대인에게서 생존을 위해 확고하게 적응되었던 형질은 수렵채집 환경에 적응된 소산물이다. 거꾸로 말해서 급속히 바뀌진 현대인의 신체는 새로운 섭식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진화론적 시간에서 절대 부족이었다. 급속한 환경변화와 빠른 시간에 적응하지 못한 신체 사이의 진화사적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적응시간의 차이의 간격을 “적응 미스매치” mismatch라고 표현한다. 이런 미스매치의 적응 결핍이 현대인에게 질병으로 드러난다.(Gluckman, Beedle and Hanson 2009, 179)

먼저 구석기인과 현대인 사이의 음식 섭취물 차이를 비교해보자. 가축시대 이후 축사에서 키운 소의 지방은 37%에 해당한다. 일반 야생동물의 지방 비율은 20% 대이다. (영양 20%, 엘코 17%, 큰영양 17%, 목초지 방목 숫소 21%) 결국 수렵시대에 비해 가축 섭취 시대의 농경인이 더 많은 지방을 섭취하게 되었다는 결론이 나온다.(Cordain and Eaton et al. 2002)

수렵인에 비해 농경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비슷한데도 지방 섭취가 증가했다는 것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야기하는 지방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농경문화는 오메가 균형까지 깨트렸다. 오메가3과 오메가6의 적절한 균형이 곧 건강의 기준이다. 우리 음식 섭취에서 오메가3에 비해 오메가6의 비율이 높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식물성 기름은 동물성 고기에 비해 콜레스테롤 저지에 더 유효하다. 그러나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3 대비 오메가6의 비율이 높다.(Konner and Eaton 2010, 599)

구석기 수렵채취인과 현대인의 음식물 섭취에 따른 생리적 차이를 추정한 코너와 이튼의 연구결과는 아주 흥미롭다. 그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아래 표로 만들어 보았다.

〈 섭취물과 생리 기준 〉

	수렵채취인	현대인
총에너지 섭취	더 많다	더 적다
칼로리 밀도	아주 낮다	높다
식사량	더 많다	더 적다
탄수화물 총섭취량	더 적다	더 많다
추가당분/정제탄수화물	매우 조금	훨씬 많다
혈당부하	더 낮다	높다
과일야채	2배 많다	반 정도
항산화능력	더 높다	더 낮다
섬유소	더 많다	더 적다
가용성섬유소 대 불용성섬유소 비	1:1	불용성이 적다
단백질 섭취	더 많다	더 적다
총지방 섭취	엇비슷	
혈액 내 콜레스테롤 야기 지방	더 적다	더 많다
불포화성 지방	더 많다	더 적다
오메가6와 오메가3	엇비슷	오메가6가 훨씬 많다
긴사슬 필수지방산	더 많다	더 적다
콜레스테롤 섭취량	약간 많다	약간 적다
미소영양소	더 많다	더 적다
나트륨대 칼륨 비	칼륨이 더 많다	나트륨이 더 많다
산도	약간 알칼리성	산성
밀크	모유	평생충분
곡물	최소	충분
수분섭취free water	더 많다	더 적다

(Konner and Eaton 2010, 599)

자료2: 신석기인의 생활

* 구석기인과 농경인 사이의 생활 차이

호미니드의 출발은 약 65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이 장구한 기간에 비하면 만년 전이라는 신석기 시대의 시작은 정말 최근에 해당한다. 최근에 해당하지만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속도의 문화변동이 신석기 시대에 일어났다. 변동의 핵심은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유목에서 정주 생활로, 그리고 가축 사육의 시작을 들 수 있다.

농경시대 농사는 식생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가축 전염질병 위험도를 같이 높였다. 물론 질병 위험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은 늘었다. 기대수명이 늘었지만 만성질병도 함께 증가했다. 농사는 수렵채집이나 유목 생활 포기에서 시작되면서 집단생활의 시작하게 되고 또한 정주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주생활로부터 도시 형성이 가능해졌다. 쓰레기가 발생하고 전염병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Armélagos et al. 2005)

이러한 급속한 변동은 구석기인과 다르게 인위적 행위에 의한 변화가 많아졌으며, 우리는 이를 문화적 변화라고 본다. 글루크만이 설명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아래의 표로 정리했다.(Gluckman, Beedle and Hanson 2009)

* 구석기 생활과 신석기 생활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유목과 농경의 차이	
유목 nomadic group	농경 sedentism
인구증가의 제한 : 4-5살 경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나이 터울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1) 도공, 철기가공, 군인, 철학자와 같은 전문가 그룹 형성 2) 인구증가와 재배기술의 급증과 권력집단 형성 3) 11,500년전 가축사육 증거(양, 염소, 돼지) 4) 병원균과 기생충의 확산-이동과 밀집에 따른 현상(Gluckman, Beedle and Hanson 2009, Chap.9) 예를 들어 철 결핍성 무기력증과 농경정착형 감염증이 증가의 유골들이 증거로 남아있다.(p.187) 5) 제한된 식량재배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곤충피해로 곡물생산의 단절로 기근이 오히려 늘어남(Gluckman, Beedle and Hanson 2009, p.187)

* 후기 신석기인과 현대인 사이의 신체구조는 변화가 없다.

적응진화의 소산물인 인간 신체란 20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에 이르는 기간에 적응된 형질을 말한다.(Pollard 2008) 거꾸로 말해서 아주 최근사에 해당하는 6천 년 전에서 3천 년 전 기간 즉 4대 문명이 발생하던 시기와 현대인 사이의 신체적(생리 및 내부 신체장기) 변화는 없다. 물론 지역에 따른 사소한 변화는 있다. 예를 들어 유목민 중심으로 락토오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진화적 변화가 약 6천-1만 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났다. 알콜 분해효소의 차이도 지역에 따라 진화적 변화가 어림잡아 1만년 사이에 일어났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 외에 지난 만년 동안 인간에서 자연선택은 최소의 변화만을 낳았을 뿐 현대인과 신석기인의 신체는 여전하다.(Eaton, Boyd, Stanley 2003, 153-159)

선사 시대 신석기인과 현대인 사이 문화적 문명변동은 매우 컸지만, 조상과 현대인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전혀 없다.(Chakravarthy, et al. 2004, 3-10) 유전적 진화는 문화적 변화의 빠른 속도에 일치되지 못한다. 현대인의 유전자는 구석기인의 조건에 적응된 채로 보존되어 있을 뿐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변화하지 못한다.(Eaton et al. 2003)

자료 3: 자아 형성에 중요한 변환점, 제의와 주술

구석기인 동굴벽화에는 주술적 요소가 자주 나타난다. 고대인의 특징으로 주술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주술적 원시탄생" 오류에 빠진다. 즉 현대인은 이성적이고 고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주술적이라는 것은 편견이다. 현대는 이성이며 고대는 감성이라는 이분법은 현대인 중심 사고의 산물이다. 이성과 감성은 상향식 발전 단계가 아니며 서로 분화된 것도 아니다. 이성과 감성은 진화적으로 위계범주가 아니며 서로에게 독립된 진화의 산물이다.

주술, 미신, 신화, 종교 장르는 훨씬 더 진화된 감성 양태이다. 감성 양태 이전 세계는 자연 상태이며 자연 상태는 주술이나 미신조차 없었다. 주술과 미신은 단기 공포가 장기 공포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 장기 공포를 느끼는 감성은 단기 공포를 느끼는 감성으로부터 진화되었다. 장기 공포는 추상화된 공포이다. 즉 단기 공포를 추상화한 것이 장기 공포이다. 주술과 미신은 장기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인공적인 노력의 소산물이다. 장기공포로부터 탈피하려는 연습이 성공하려면 체계화와 체제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체계화가 동반된 장기 공포 대처시스템이 곧 주술이나 미신의 원형이다. 주술과 미신의 시스템은 감성의 진화 측면에서 상당한 적응도를 거친 소산물이다. 주술 원형을 표현한 고대인의 벽화는 "주술적 원시 탄생"의 핵심이다.



쇼베 동굴Chauvet-Pont-d'Arc Cave
가장 안쪽 암벽에 위치한 부영이 그림
(30,000-35,000년 전)

새의 날개 몸체가 뒷면으로 보이지만 새
얼굴은 전면으로 그려진 부영이다.
부영이는 얼굴이 180도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점이 구석기인으로 하여금
(단기)공포를 느끼게 했으며, 이런
공포심은 부영이를 초자연적 경외와
주술 대상으로 여기도록 발전했다고
추정된다.

초기 구석기인의 자연 상태는 첫째 단기 공포가 지배하며, 둘째 제사, 숭배, 제의 시스템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셋째 장사는(사체 처리의 관례)지냈지만 세대를 이어가는 형식화된 제의는 없다. 4만 년 전 이후인 후기 구석기에 와서 제사, 숭배, 제의와 관련된 초기 문화변환이 일어났다.

자료4: 개념 탄생의 원형

4.1 추상성의 탄생: 문화폭발과 동굴벽화의 손 그림 등장

400개 이상 발견된 구석기 후기에서 신석기 중기에 이르는 동굴벽화는 주로 포식자로서 위험 대상인 동물이거나 혹은 사냥 대상인 동물을 암벽에 그린 것들이다. 신비한 상징, 동물그림 등, 4만전부터 갑자기 생성된 이런 고대인의 벽화는 "문화폭발"의 한 역사이다. 기존 학설로는 이런 문화폭발이 유럽중심으로 발생된 것으로 주장했었다. 그러나 인도나 중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동굴벽화가 발견된 이후 앞의 유럽중심 학설은 의미가 없어졌다. 더욱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동굴벽화는 아프리카에서 유럽 아시아로 이주하기 이전부터 예술적 기술을 다져왔었음을 보여준다. (George 2021)

스텐실 방식으로 그린 손 그림이 동굴 암벽화로 등장한다. 자기 손을 벽에 대고 스텐실 방식으로 돌가루 물감이나 숯가루를 벽에 뿌리는 방식이다. 이런 손 그림의 등장은 구체적 자연물보다 아래와 같은 추상화된 의식을 표현하려는 데 있다. (1)그림의 주인이라는 뜻의 자기인식self-awareness 능력의 증대 (2)영계를 진입한다는 봉인 의식 'sealing' ritual (3)치료 목적의 스프레이 의식 (4)손가락 수를 통해 산술이나 신호언어 sign language로 사용



프랑스 쇼베(31,000년 전) 아르헨테나(9,000년 전) 보르네오(12,000년 전)

자료5: 인구변화

인류의 인구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시대별 증가폭의 차이를 조망하면 미래 인류의 형태를 미미한 수준으로나마 예측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구 단위의 인구수가 중요해진 것은 근대 이후, 아주 최근의 일이다. 그 전에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인구수가 중요했다. (헨슨 2020, 17)

포유동물에서 집단형성은 개체 생존과 더불어 집단 보전에 중요한 변수이며 적응진화의 중요한 선택압력 요인이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2~15 마리의 집단을 이룬다.(Kamilar et al. 2010)

이와 비슷하게 구석기 시대(2백만 년 전에서 2만 년 전 사이) 수렵채집인의 사회집단은 20~50명의 무리였다고 추정되고 있다. 이후 신석기 시대(만삼천 년 전 이래) 농경인의 집단은 500~2,000명 정도의 마을 단위 공동체로 형성되었다.(Kantner and Mahoney 2000)

후기 산업시대라고 하는 현대에 와서 대부분 인구는 십만 명에서 천만 명 규모의 대도시에서 거주한다.(Giesen et al. 2010)

수렵채집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이 세 시대의 전체 기간은 엄청난 차이이지만 그 총량 인구수는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유념해보자. 1750년 이래로 약 200억 명의 인류가 태어났다. 만 년 전부터 1750년까지 태어난 인구총량은 500억에서 1,000억 명 정도이다. 그리고 구석기에 해당하는 백만 년 전에서부터 만 년 전에 이르기까지 호모사피언

스와 유사한 호미닌을 포함한 전체 인구 총수는 500억에서 1,000억 명 정도로 추정된다.(Haub 2011)

2020년 (현)기준 지구 인구수는 75억이므로 현존 인구수는 백만 년 전 이래 태어난 인구총량 대비 대략 5 %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인구수는 대단한 규모로 볼 수 있다.

백만 년간의 수렵채집시대, 만 년간의 농경시대, 250 년간의 산업시대, 그 지속기간의 차이는 크지만 전체인구 총량의 경우처럼 각 시대 경제총량도 서로 비슷한 규모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총 경제성장 변수들도 비슷했다. 각 시대마다 가치상품을 생산하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경제총량에서 2배씩 기하급수적 성장했던 기회가 약 7번에서 10번까지였다고 한다.(Hanson 2000).

수렵채집인 인구는 대략 25만년 마다 평균 2배 증가했다. 농경시대 인구는 천년 마다 2배 증가했다. 산업시대 경제총생산 규모는 15년 마다 2배씩 증가해 왔다. 그런 급속 경제성장으로 인구수도 급속 증가한 것이다.(Hanson 2000) 집단규모가 커지면서 노동분업이 세분화되었고, 집단의 분화도 잦아졌다. 즉 아주 먼 거리까지 거주와 생존범위를 넓혀가며 이동했다.(헨슨 2020, 21)

수렵채집인에서 집단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집단마다 지켜야 할 고유한 규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집단 안에서 폭력, 과시, 독점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규범들이다. 음악, 춤, 만들기(공작), 이야기 등의 놀이가 집단 안에서 자주 표현되면서 폭력과 과시나 독점 행위들을 줄일 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런 놀이와 규범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농경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Boehm 1999; Jordani 2011)

대륙 이동이 일어나기 전, 10-16만 년 전 지구 전체 인구(아프리카)수는 5천~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인구학적 측면에서 제의 관련 문화변환은 추정되기 어렵다는 뜻이다.(Hammer et a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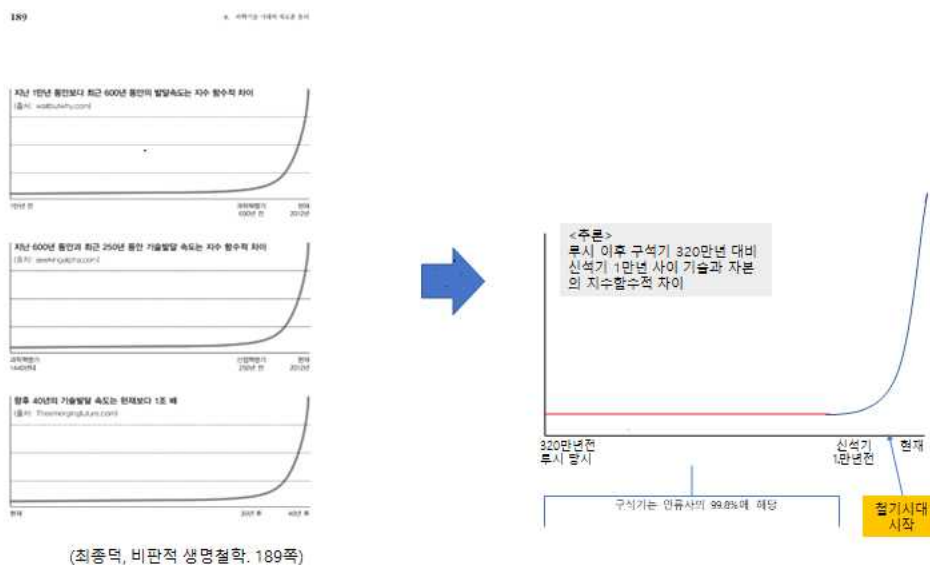
자료 6: 소위 4차산업이란



- Industrie 4.0 : 2011년 하노버 박람회에서 소개된 독일 연방정부 미래기술전략 프로젝트 (interconnection, information transparency, technical assistance, decentralized decisions)
- 4차산업혁명 : I40을 본따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등장한 개념

독일 I40 이후 (2030년까지) : 27개 산업에서 75만개 일자리 소멸 / 13개 산업에서 100 만개 일자리 창출 - 독일노동사회부(Bundes 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 BMAS)

자료7: 미래



〈참고문헌〉

- Abrams 2002, *Biology and Philosophy* 05(20): 98
- Armstrong, Karen 2006,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Beginning of Our Religious Traditions*. Knopf (한글판, 축의 시대: 종교의 탄생과 철학의 시작 2010)
- Baldrige WS 1984, "The geological writings of Goethe" *American Scientist* 72: 163-167
- Bellah, Robert H. 2011, *Religion in Human Evolution: from the paleolithic to the axial Ag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p. 250-251.
- Boehm, Christopher. 1999. *Hierarchy in the Forest: The Evolution of Egalitarian Behavior*. Harvard University Press, December 1.
- Boyd Eaton, Marjorie Shostak and Melvin Konner 1988
- David Eugenie Reich 2018, *Who we are and how we got here*.
- George, Alison 2021, "Lost art of the Stone Age: The cave paintings redrawing human history", In: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mg25133450-700-lost-art-of-the-stone-age-the-cave-paintings-redrawing-human-history/#ixzz724Bb9UNq>
- Giesen, Kristian, Arndt Zimmermann, and Jens Suedekum. 2010. "The Size Distribution Across all Cities-Double Pareto Lognormal Strik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8(2): 129-137.
- Hanson, Robin. 2000. "Long-Term Growth as a Sequence of Exponential Modes." October. <http://hanson.gmu.edu/longgrow.pdf>.
- Haub, Carl. 2011. "How Many People Have Ever Lived on Earth?" Population Reference Bureau, October. <http://www.prb.org/Publications/Articles/2002/HowManyPeopleHaveEverLivedonEarth.aspx>.
- Jordani, Joseph. 2011. *Why Do People Sing? Music in Human Evolution*. Logos, March 25.
- Kamilar, Jason, Richard Bribiescas, and Brenda Bradley. 2010. "Is Group Size Related to Longevity in Mammals?" *Biology Letters* 6(6): 736-739.
- Kantner, John, and Nancy Mahoney, 2000. *Great House Communities Across the Chacoan Landscap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Liu, Li. 2005, *The Chinese Neolithic: Trajectories to Early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Online publication 2009)
- McGovern 2009, *Uncorking the Pas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ott M. James 2009, "The Caveman's Conscience: Evolution and Moral Realis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7(2): 215-233
- 니체, 도덕의 계보
- 로빈 헨슨 2020, 뇌복제와 인공지능 시대
- 스미트-잘로몬, 위험한 철학. 2022 애플시드

최종덕 2014, 생물철학. 생각의 힘

최종덕 2020, 의학의 철학. 씨알아이

플러 토리(유나영) 2017/2019, 뇌의 진화, 신의 출현 - 초기 인류와 종교의 기원. 갈마바람

닉 보스트롬(조성진 옮김) 2014,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까치